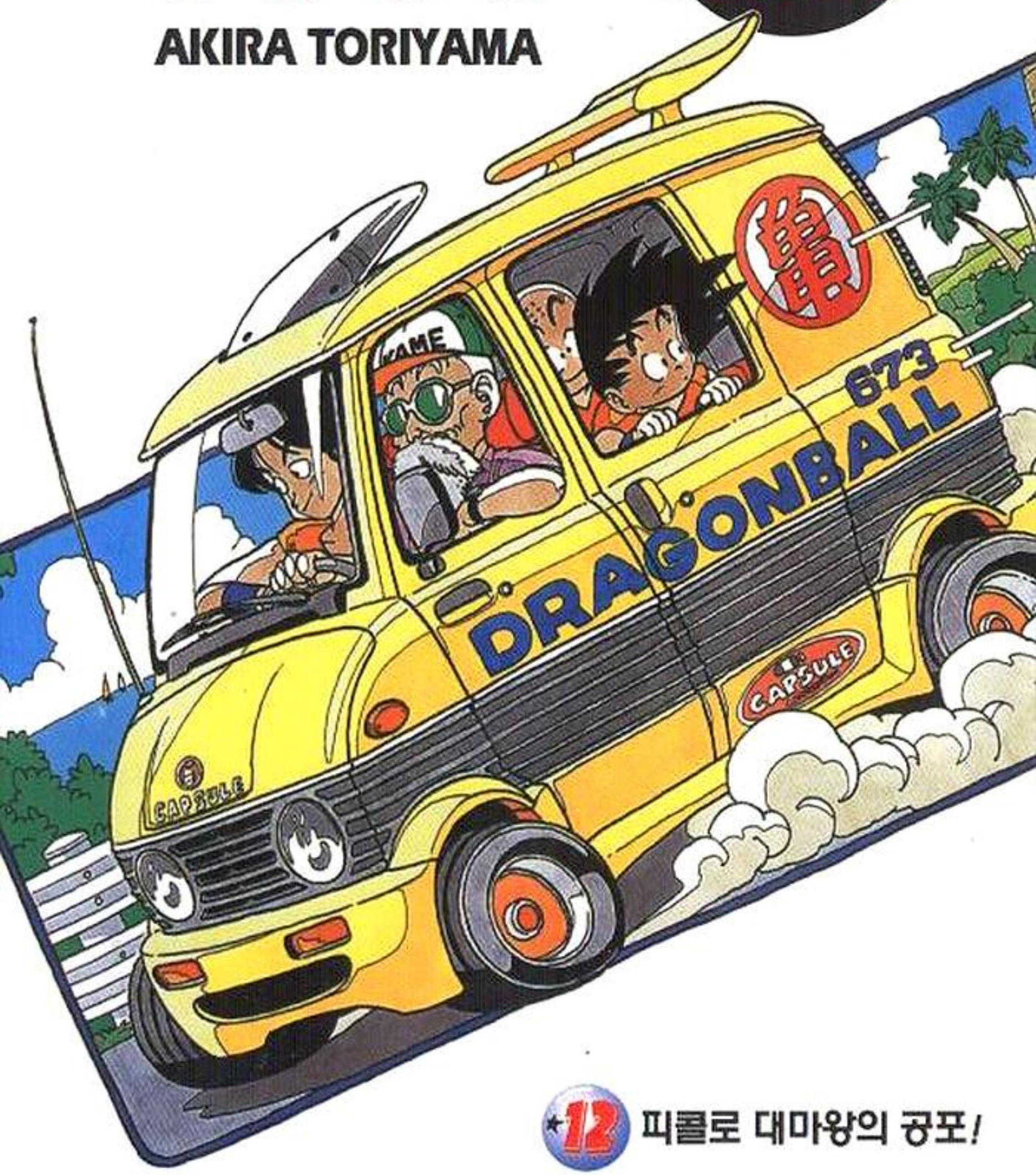
IQ JUMP COMICS

무수정 오리지널 한국어판

DRAGON BALL
드래곤볼

AKIRA TORIYAMA



★12 피콜로 대마왕의 공포!

canned by raprnb

DRAGON BALL



AKIRA TORIYAMA
-토리야마 아키라-

우리집의 고양이 <깜장>입니다. 새까만 몸이라서 뭐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깜장색입니다. 약 3년 전의 한밤중에 새끼 고양이를 주워온 것인데, 사람을 잘 따르고 마음씨가 고운 놈입니다. 출산을 할 때(암놈입니다)는 정말 너무나도 걱정이 돼서, 내쪽이 오히려 패닉 상태가 되었습니다. 무사히 4마리의 새끼가 튼튼하게 태어났습니다. 정말 다행이었죠. 그런데, <깜장>이란 별명을 붙인 것은 우리 마나님이었죠.

nned by raprnb



DRAGON BALL

드래곤 볼

제12편 피콜로 대마왕의 공포!

AKIRA TORIYAMA

sca

등장인물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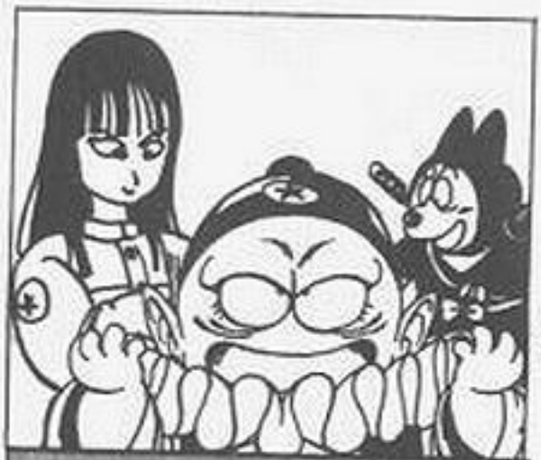
천진반



차오즈



피콜로 대마왕



피라후 일당

거북신선(무천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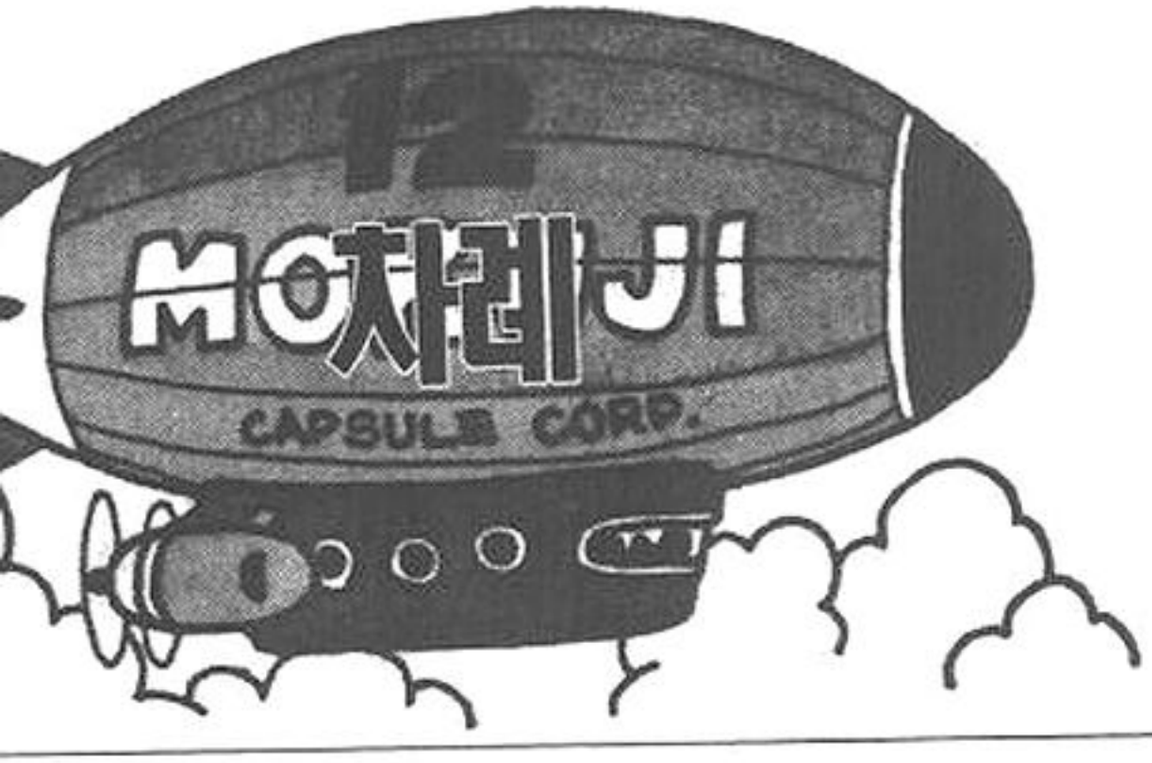


지난 줄거리

아주 먼 옛날. 부르마와 손오공은 7개가 모이면 용신이 나타나 소원을 한 가지만 들어준다는 신기한 드래곤 볼을 찾아 여행을 하고 있었다. 대 모험 끝에 겨우겨우 모든 구슬을 모았지만, 악당 피라후에게 뺏겨버린다. 그래서 오공과 친구들은 여자 팬티라고 하는 소원을 먼저 말해 버려 소원을 이룬다. 용신은 한 번 소원을 들어주면 1년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 그 기간 동안 거북신선 밑에서 수련을 쌓은 오공은, 다시 드래곤 볼을 찾아 모험여행을 떠난다. 도중에 알게 된 우파의 아버지를 용신의 힘으로 되살려준 오공은, 3년간 더욱 강해지기 위해 혼자서 열심히 수련을 쌓는다. 그리고 맞이한 천하제일 무술대회. 순조롭게 승리를 거두며 올라간 오공은 결승에서 천진반과 격돌!!

RAGON BALL 12

피콜로 대마왕의 공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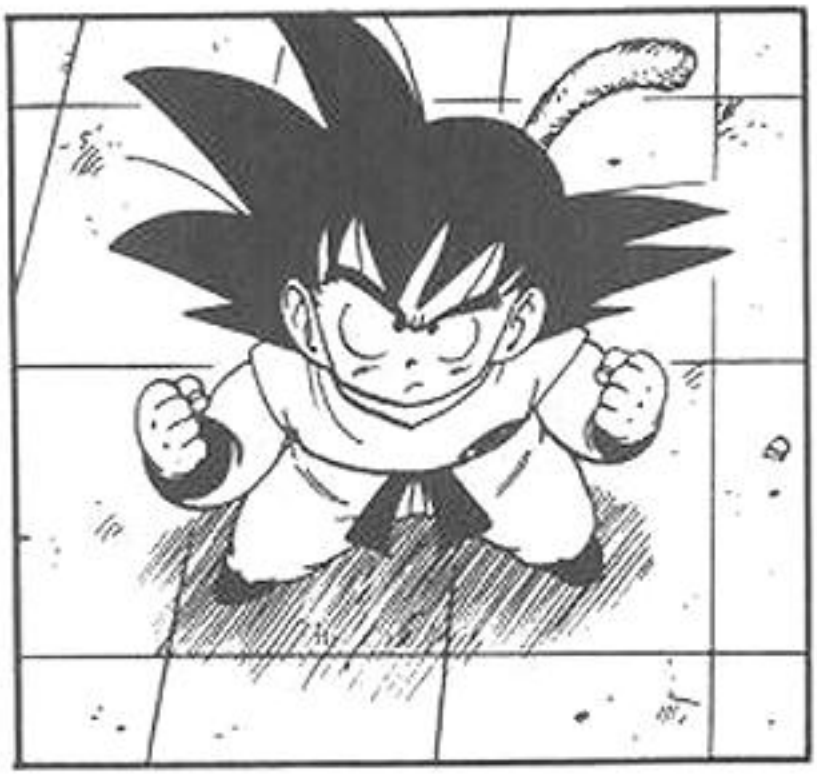


화 두 사람 최후의 전술!! ····· 7
화 무술대회 끝! 그리고 ····· 22
화 크리링의 죽음! 그리고 무서운 음모 ····· 37
화 피콜로 대마왕의 공포! ····· 52
화 부활하라, 손오공! ····· 66
화 구슬을 가진 묘한 녀석 ····· 80
화 야지로베의 사냥감 ····· 94
화 탬버린의 습격! ····· 108
화 손오공의 분노 폭발!! ····· 122
화 피콜로 대마왕 등장!! ····· 136
화 손오공 대 피콜로 대마왕 ····· 151
화 손오공 완패!! ····· 166
페이지 대특집 XI ····· 181

DRAGON BALL

제133화
두 사람 최후의 전술!!






기공포를 쓴 사람조차도 죽을지 모르는 무서운 기술이야!
저놈 말이 맞아! 괜히 고집 부리지 말고 피하라구!


천진반, 그만둬—!


무, 무슨 기막힌 기술을 보여줄 생각인가봐 …
뭐, 뭘 하려고 저러는 거지?


알겠지, 오공? 이걸 정면으로 막아내려 하다간 아무리 너라도 한 방에 저승행이야!
죽고 싶지 않다면 빨리 피해!


예…?
그게
어떻게요
…?
저 녀석은 무공술로
공중에 마음대로
떠있을 수 있어….
아마 녀석이 노리는 것은
손오공의 장외패겠지….


손오공에게
피하라고
하는 건
왜죠…?
그, 그치만
무천도사 님.
그런 무서운
기술을
쓰면서….




간다!!


파앗

하아 아앗 !!

흐…

어? 손에서 희미한 빛이 나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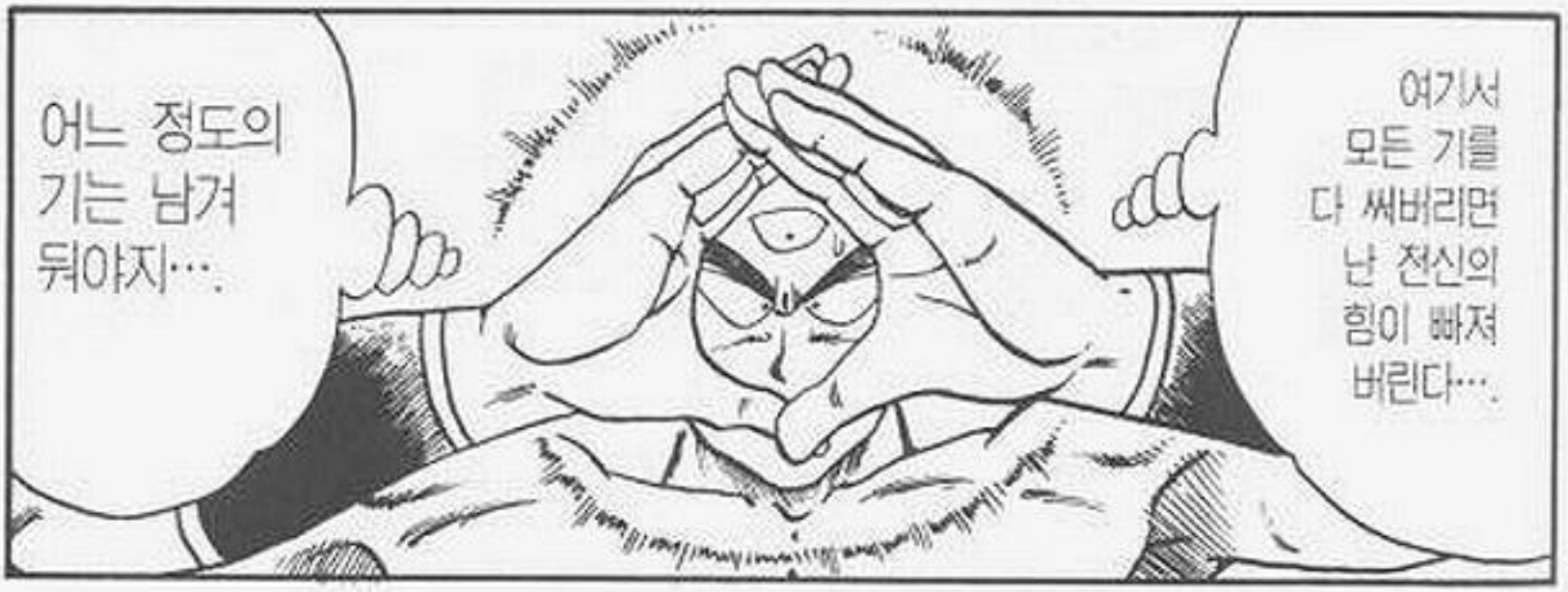
온 몸의 기를 손에 집중시킨 거지….

아…!

대단한 기다…!


시합장
이다…!


목표물은….


어느 정도의
기는 남겨
둬야지….
여기서
모든 기를
다 써버리면
난 전신의
힘이 빠져
버린다….


기공포!!




고독


오,
신이시여!
피해,
오공!
어!?


天下一

이…
이건…?

하

하

앗!!

없다!!

天下一武道会

앗!
시합장이….

여…. 역시
엄청난
파괴력이구나….
에네르기파원
비교도 안 돼….

오…
오공은?

오공이
없다!
같이
사라졌어!

와아아

이, 이, 이,
이럴 수가…!
수, 순식간에
시합장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위다!!

헉…
헉….

둘 다
죽지
않았어!

다행
이야!

아니야,
살아있어!
기가 느껴
지는걸!

저, 정말요?
어디!?

그 순간에 어느새 이 곳 공중으로 날아 올랐구나!

역시 대단하군!!

네 말대로 피하지 않았다면 진짜 죽었을 지도 몰라…!

놀라운 기술이야…!

미안하지만 이젠 네가 졌어!

아, 저기 먼 하늘에 있습니다! 어느새 솟아 올랐군요!

앗

그렇지만 난 무공술로 자유롭게 날 수 있지….

승부는 이미 결정된 거야.

넌 이대로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 그런데 이미 시합장이 없어졌는걸.

즉, 이 시합의 승패는 어느 쪽이 먼저 땅에 떨어지느냐가 문제야…!

……

훠—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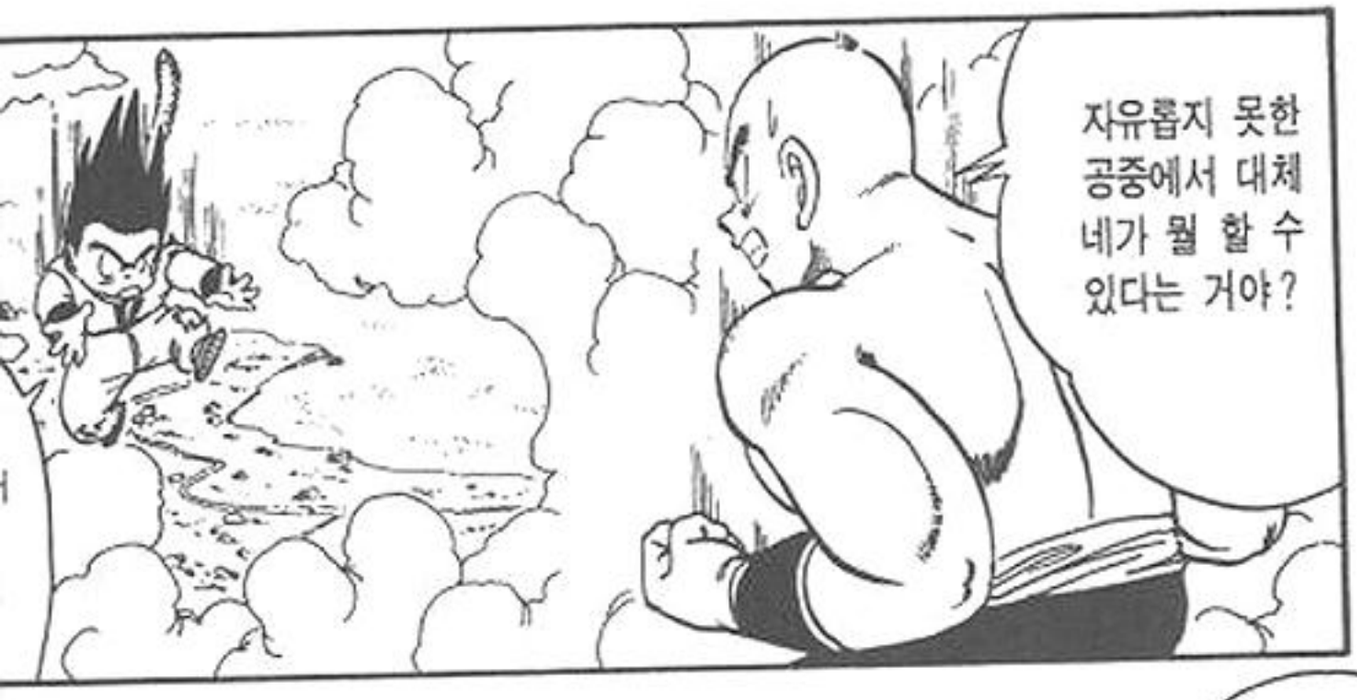
뭐!?

내 최후의 공격을 받아볼래?

그런 작전이었구나!

모든 게 다 끝났군…!


내 남은 힘을
전부 다 쏟아
넣겠다!


자유롭지 못한
공중에서 대체
네가 뭘 할 수
있다는 거야?


아니!?


앗!
손 선수,
저것은…!


에….
네….

크하하!

르….

내겐 전혀 안 통해! 최후의 발악이냐!?

뭔가 했더니 에네르기파를 쓴다고!

에네르기파 그 자체가 아예 통하질 않아. 위력이 문제가 아니라….

아니야…, 저 천진반이란 녀석 에겐….

그, 그래도 어쩌면 오공이 쏘는 거니까 엄청난 위력의 에네르기파일지도 몰라요.

안 돼! 에네르기파론 저놈을 쓰러뜨릴 수 없어!

힘만 빼고 헛수고야!

기….

그… 그럼…!

져…, 졌네…!



뒤로
돌았다… !!

아니 !?

파 !!



06

앗!!

이, 이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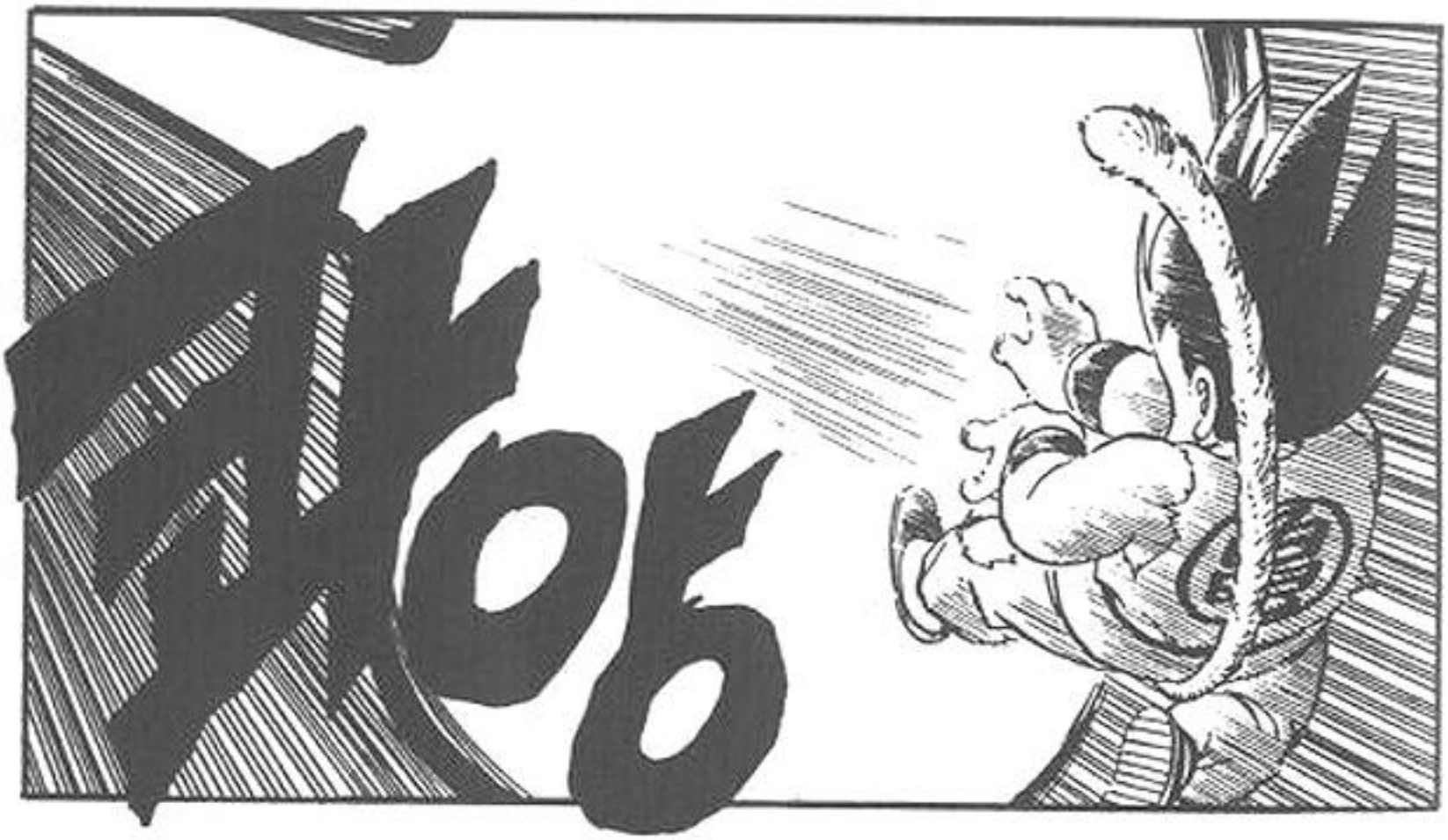
DRAGON BALL



제134화
무술대회 끝!
그리고….



이제 시합장은 없다!
오공은 남은 모든 힘을
다해 마지막으로
에네르기파를 뜻밖에도
뒤로 향해 쏘았다!





아무리 너라도
공중에선
빠르지
못할걸!!

이,
이런…!

앗!
그렇
구나!!


10




소, 손 선수!
뜻밖에도 에네르기파의
폭풍을 추진력으로
이용해, 몸통 박치기-!




됐다!!


아직은
몰라.
자…,
잠깐…,


천진반이
기절한 것 같아!
이겼다!
이겼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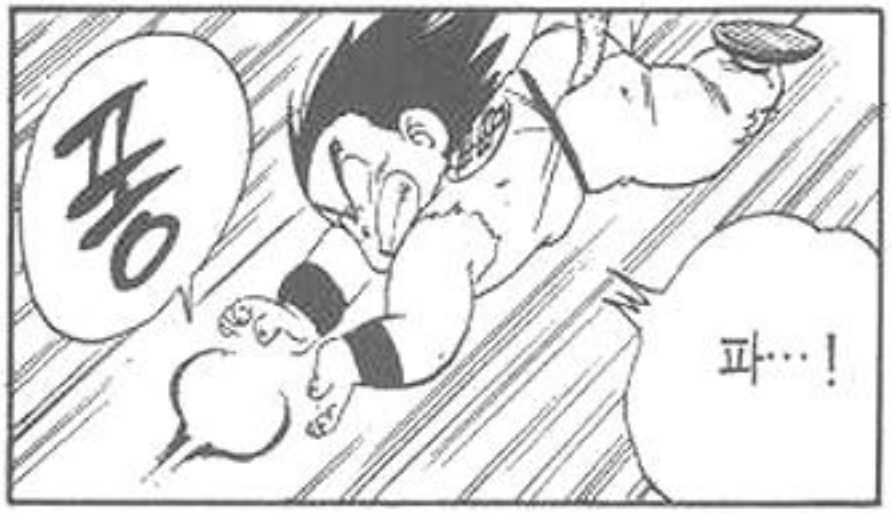

처,
천진반!!
떨어집니다,
떨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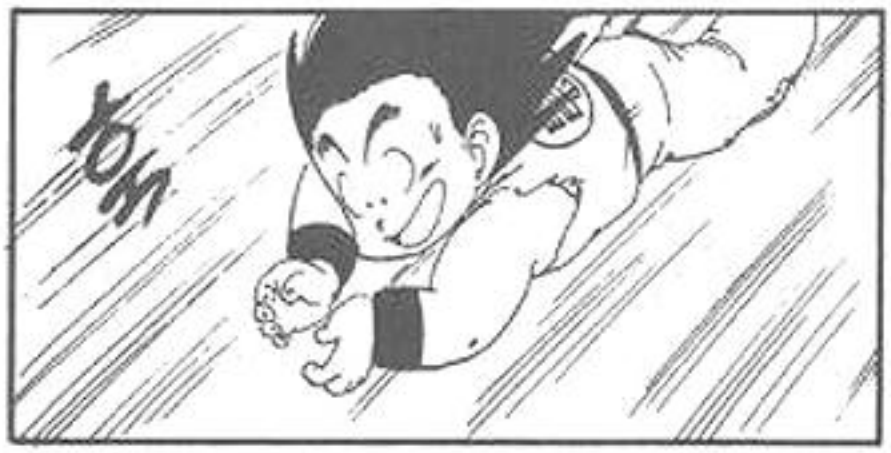

과, 과연
어느 쪽이
먼저 떨어질지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 그러나
손 선수도 함께
떨어지고
있습니다!


에잇!
으윽!!


이, 이런!
에네르기파에 힘을
너무 많이 써서
몸이 말을 안 들어!


BOM!
팟
휘익
제가 직접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거의 같은
위치입니다!
아, 아니!
오히려 손 선수가
약간 불리한 것
같습니다!


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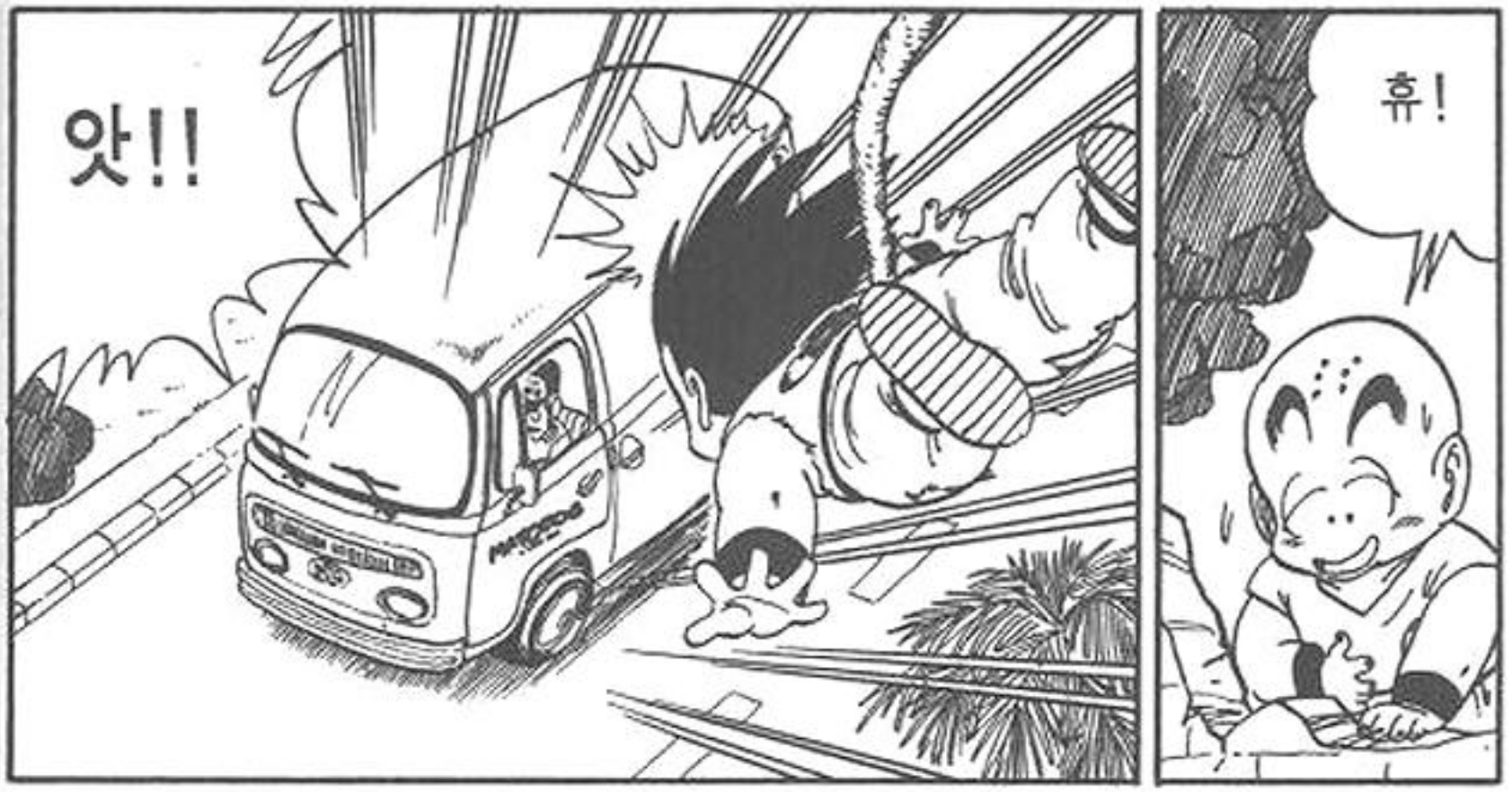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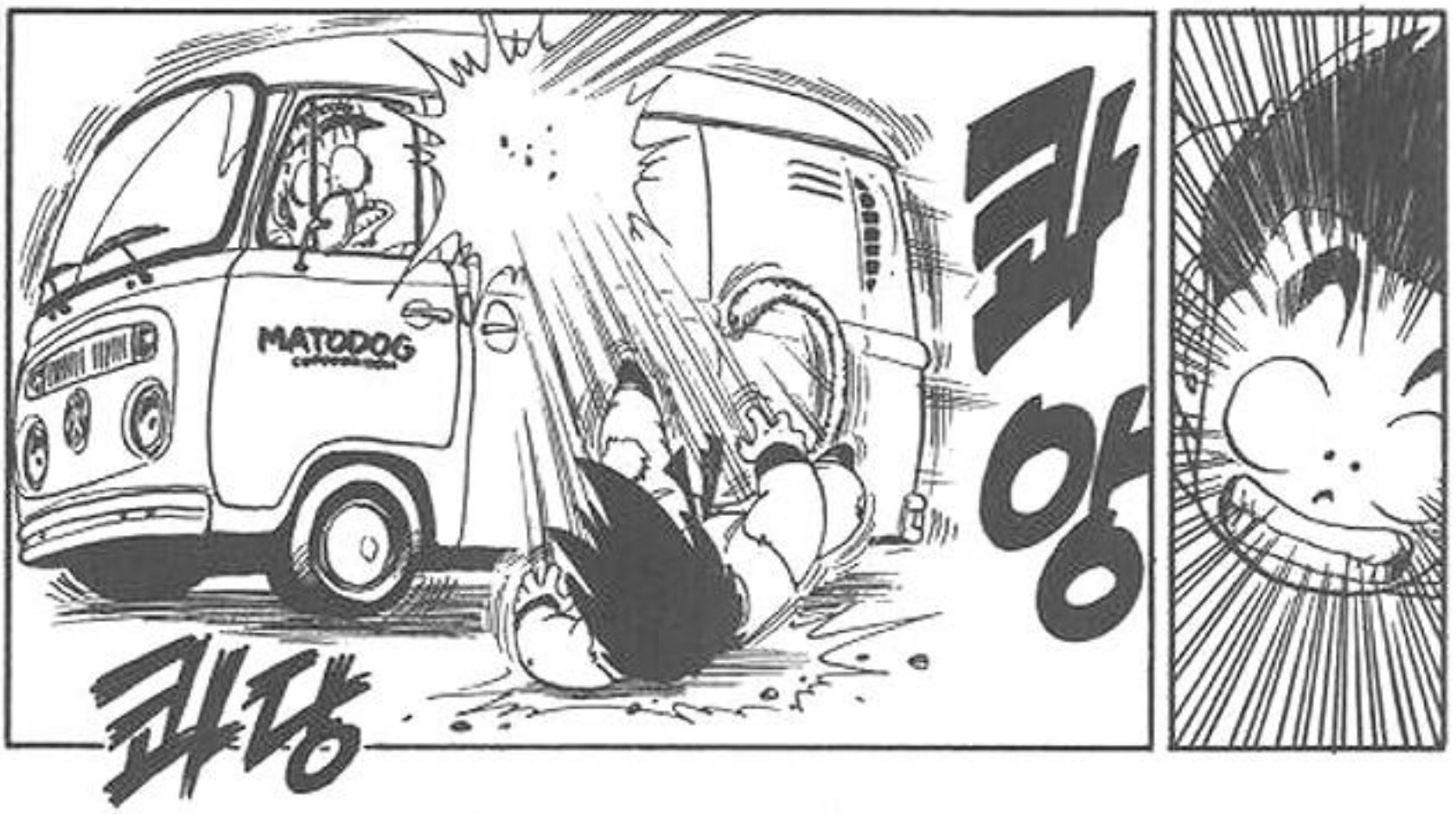

에… 에…
네….
르…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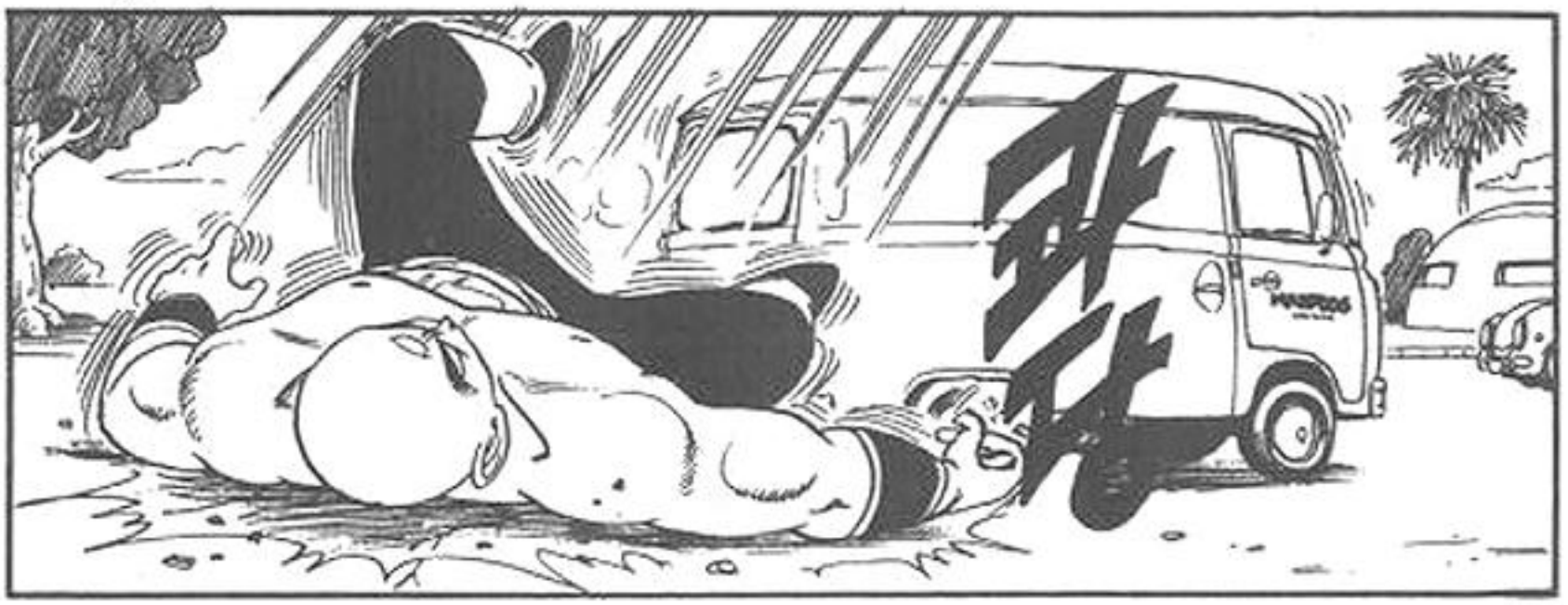

이제
손 선수가
유리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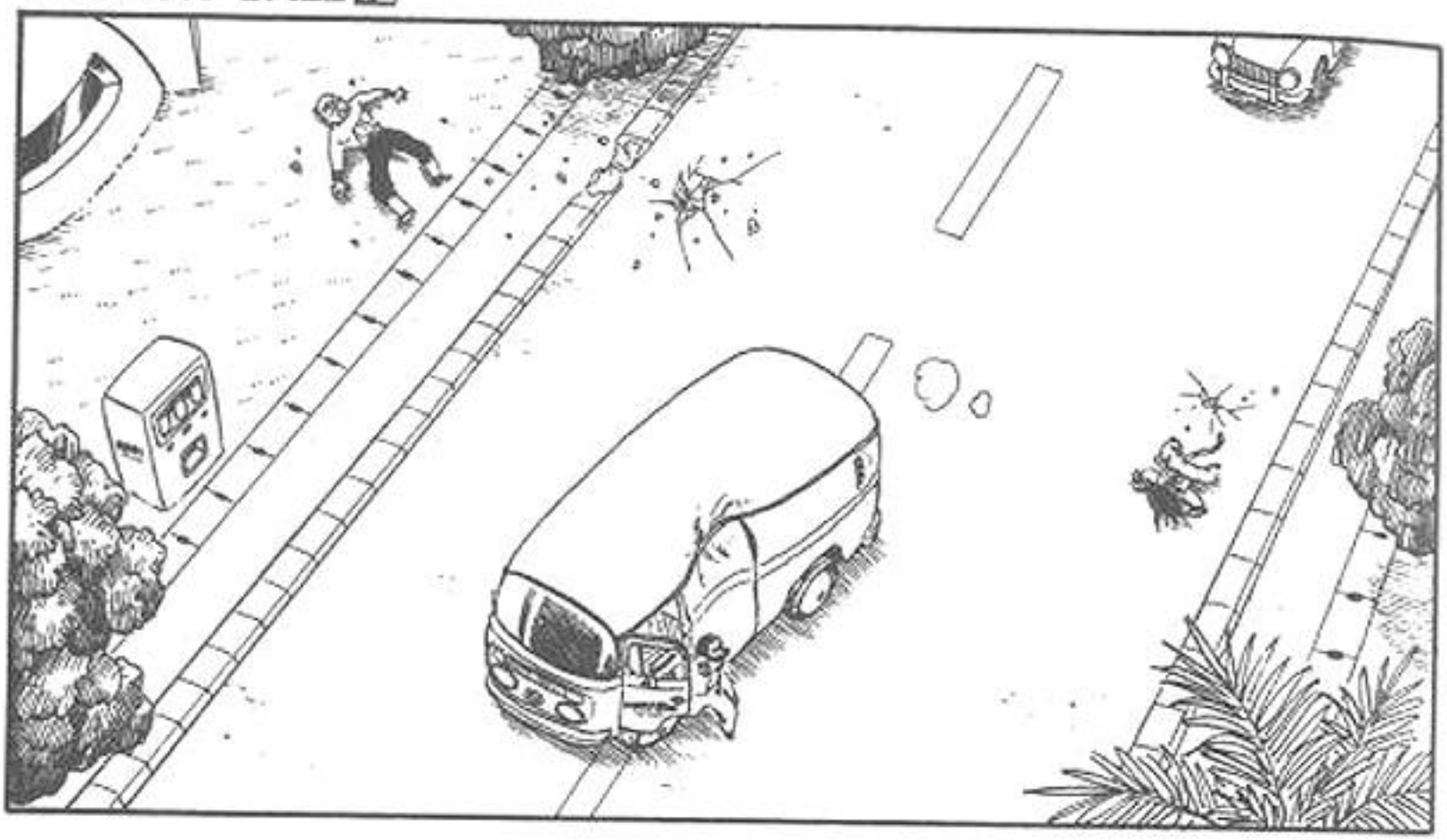

이겼다!!


아, 손 선수!
참새 눈물만큼 작은
에네르기파로
떨어지는 것을
늦췄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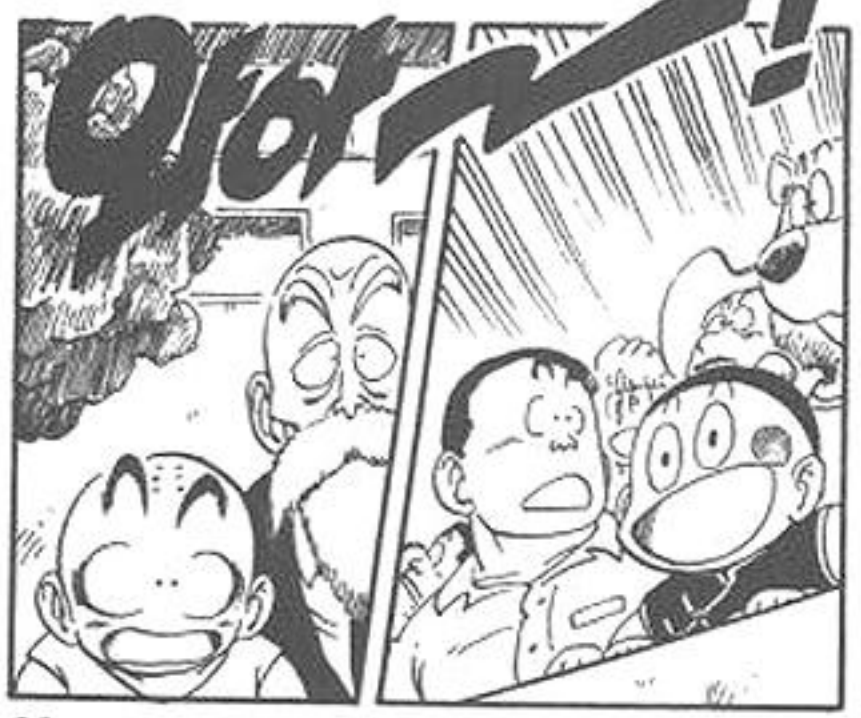

앗!!
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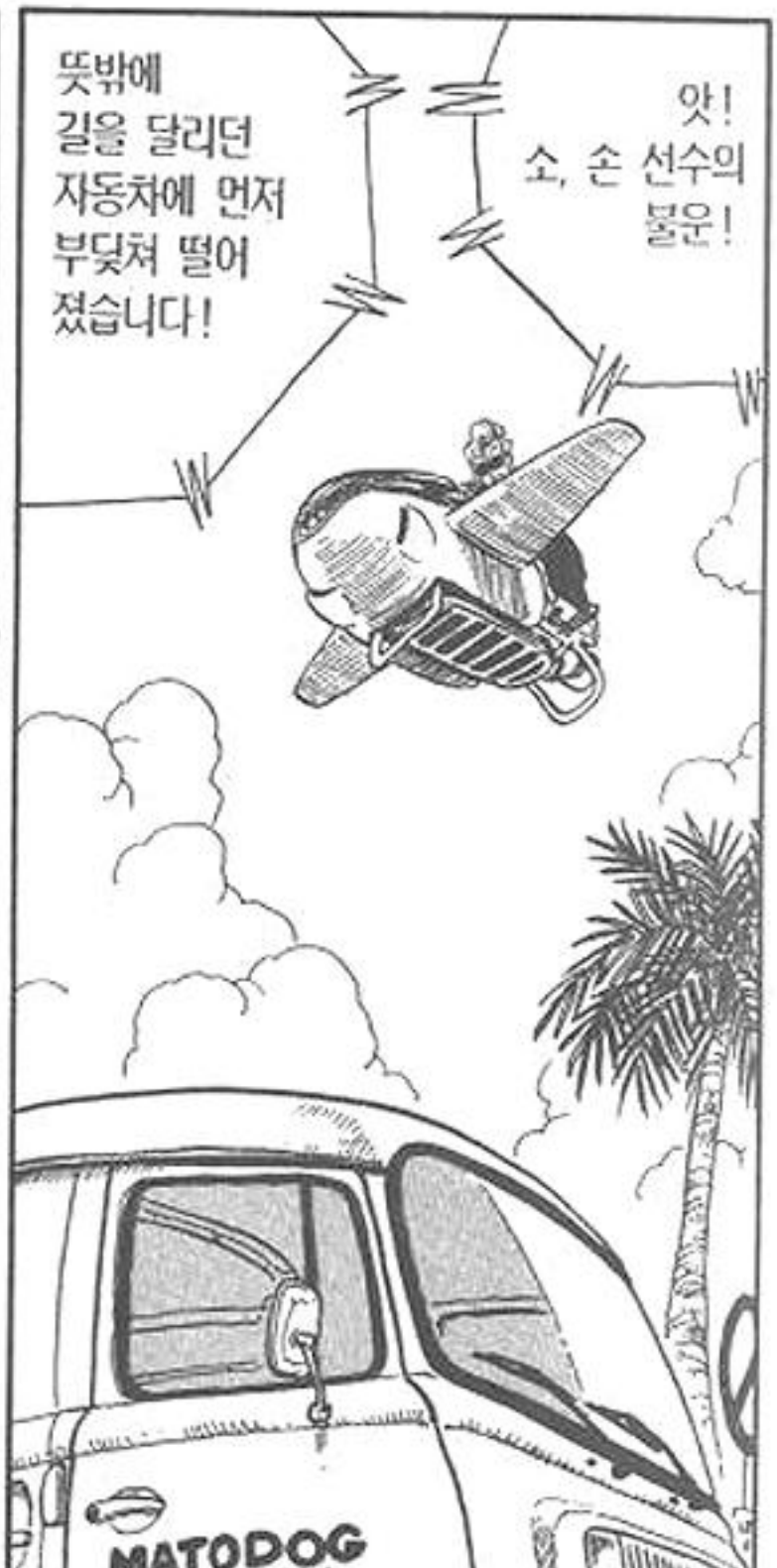

MATODOG
퍽
앙


MATODOG
퍽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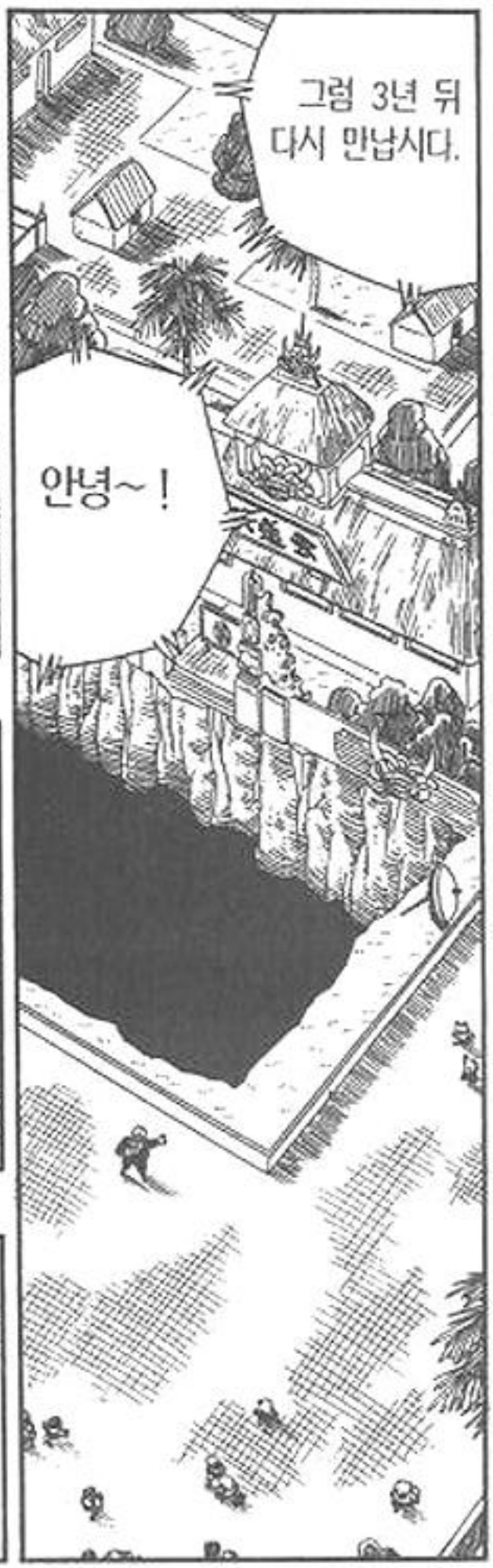

천하제일의
고수는 천진반
선수로
결정-!
天下一武道会
천진반 선수가
늦게 떨어졌으니까
천진반 선수의 승리!
우승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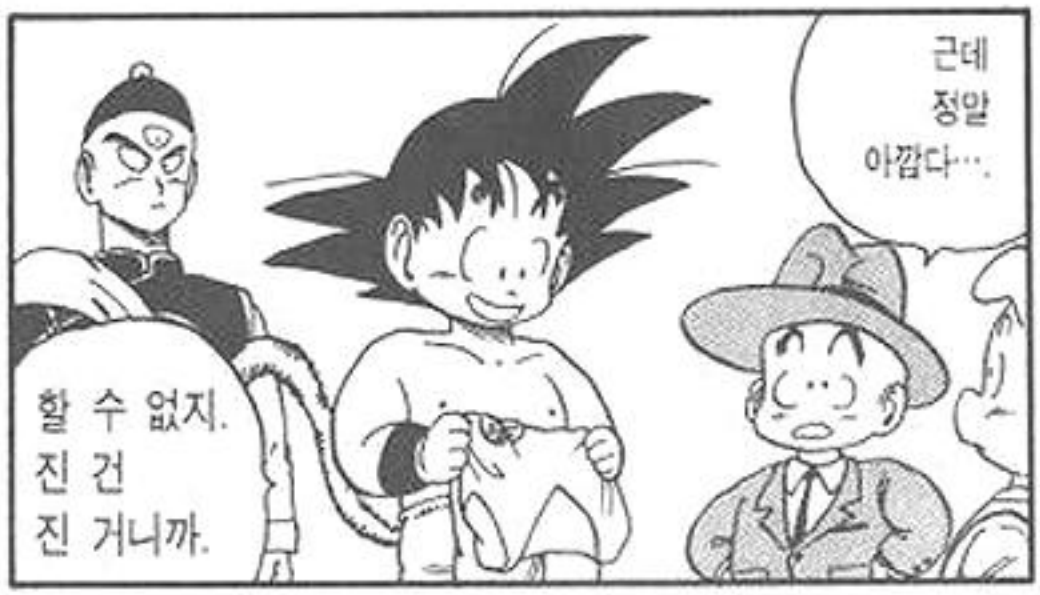

앗!


뜻밖에
길을 달리던
자동차에 먼저
부딪쳐 떨어
졌습니다!
앗!
소, 손 선수의
불운!
MATODOG
CORPORATION


武道会


오공,
내 옷을 줄 테니
그 걸레조각은
벗어라.
땡큐-.


그럼 3년 뒤
다시 만납시다.
안녕~!
武道会


근데
정말
아깝다….
할 수 없지.
진 건
진 거니까.


정말
상금의 반이
필요없어…?
필요
없다니까.
어차피 난
돈을 어떻게
쓰는지도
잘 몰라.


내가 이긴 건
운이야…,
아쉽지만 실력으론
내가 졌어….
그래도 넌
받을 권리가
있어.


오공과 천진반도
밥을 배불리 먹고
다시 힘을 내야지.
어때?
이제 다함께
식사하러
갈까?
찬성!


헤헤헤!
당연한
말씀.
하
운도 실
게다가 손
너같은 달인이
여러 가지로 많
배울 수


?
그 말은
취소하는 게 나을걸?
믿을 수 없을 만큼
엄청 먹어대는
놈이 있으니까.
히히히
….


그럼 내가
상금으로
한턱 쓰지.


할아버지의
드래곤 볼과
여의봉!
앗!
이런!

미안해…. 너한테는 너무 심한 짓을 해버렸구나….

신경쓰지 마. 죽지 않은 것도 다행인걸.

너, 친철치 못하게 건망증은! 내가 가져올게.

미안, 고마워!

그런데 너희들 이제 어쩔 거니? 갈 곳도 없을 텐데….

괜찮다면 우리 집으로 안 올래? 환영할게.

와, 찬성! 같이 가자!

터프한 게 맘에 들어!

에엥!? 에엥!?

차오즈와 함께 어딘가 살 곳을 찾아 보겠어요.

쳇! 그럼 챠팅이라도 하자!

그래….

….

말씀은 감사합니다 만….

아무리 배신했다곤 해도, 우린 학도사 님의 제자였어요….

뻔질거리며 그쪽에 붙을 순 없죠….

크리링
목소리다!!

뭐,
뭐야!?

으아
앗!!

왜 그래,
크리링!?

크,
크리링!!

앗
!!

무…
무술대회
명단을
빼앗아갔어….

괴… 괴물이야….
거… 거기 있던
주머니에서 이상한
구슬과….

이봐!

크,
크리링!
어떻게
된 거야!?

뭐,
뭐얏?

주…,
죽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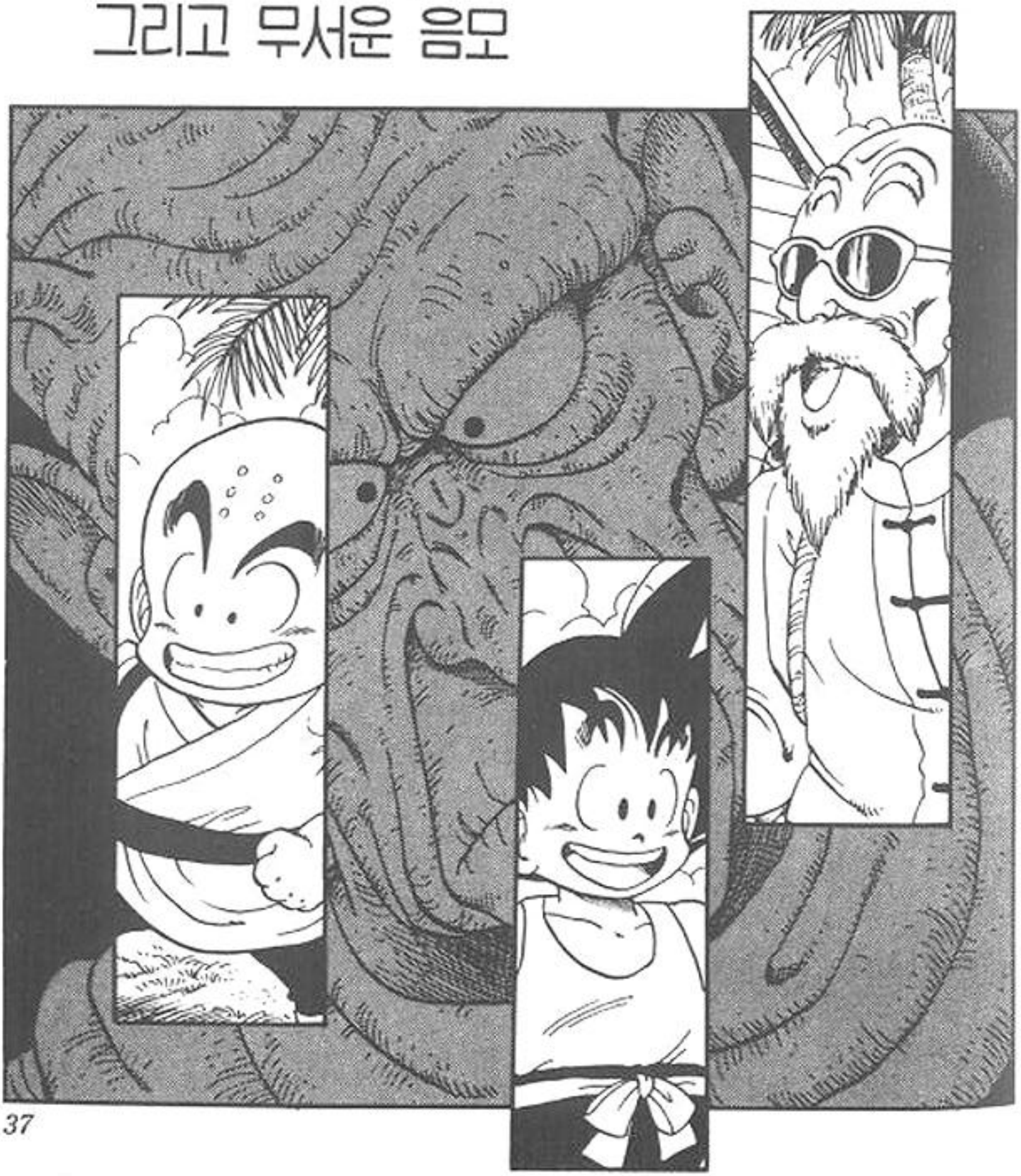
드…
드래곤 볼과
명단…?

죽었어…!!

크…
크리링이….

DRAGON BALL

제135화
크리링의 죽음!
그리고 무서운 음모



크…
크리링….
크리링이
죽다니…!

크리링이…!

세, 세상에
이럴 수가….

괴…
괴물
이라고…?

오공의 드래곤 볼과
무술대회 선수 명단을
빼앗아 갔단 말야…?

크… 크리링 씨는
필사적으로
막으려 했지만…,
정말 무서운
녀석이라서….

어느 놈이…!

이… 이런 제길!!

자, 잠깐! 오공!

부르마! 드래곤 볼 레이더 갖고 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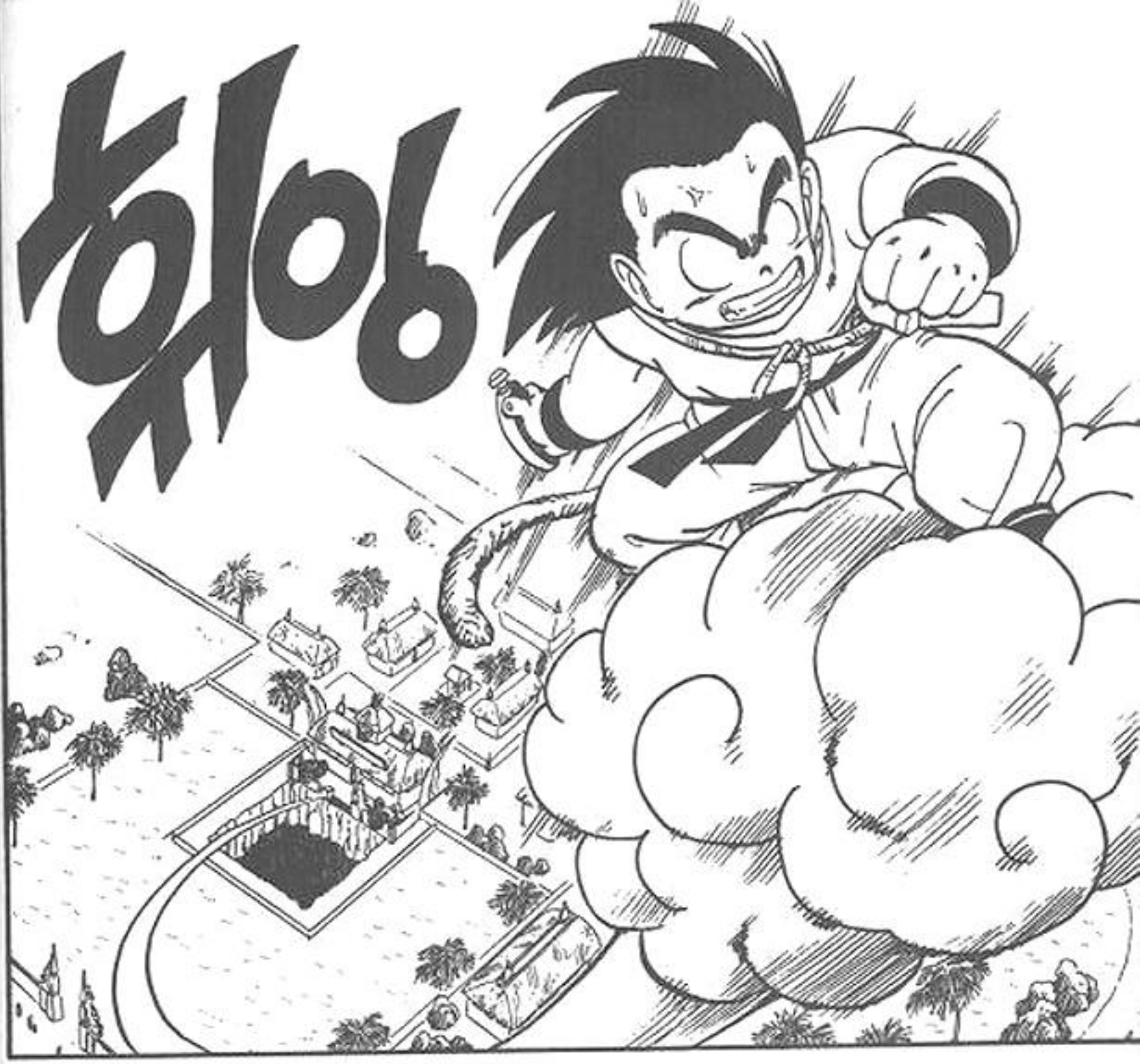
응!? 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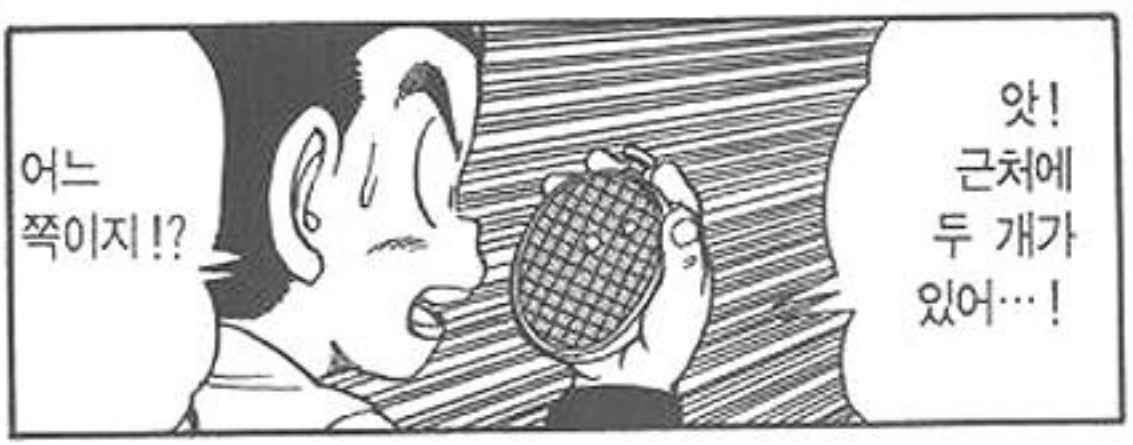
꽈야

멈춰! 명령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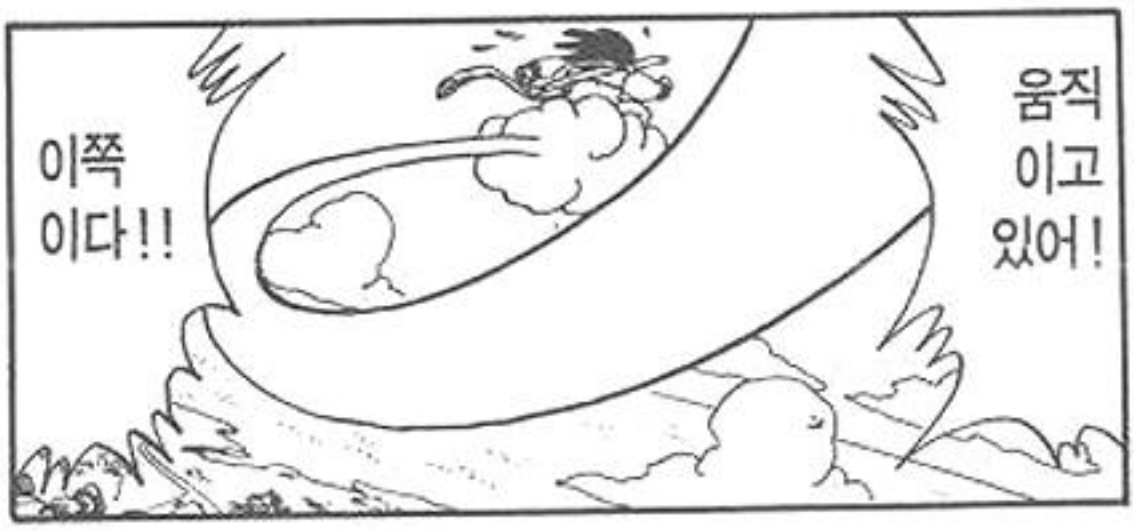
거기서!

그르운!!


샤아아


앗!
근처에
두 개가
있어…!
어느
쪽이지!?


찰칵
찰칵
찰칵


움직
이고
있어!
이쪽
이다!!

정말 어처구니 없게 됐군….

크리링을 이길 정도의 상대인데…. 무술대회에서 힘을 다 써버린 오공한테는 승산이 없을 거라구…!!

바… 바보 같은 놈…!!

동그라미 속에 '마'란 글자가 뭐지…?

'마'…, 원지 찝찝한 걸….

크리링을 죽인 놈이 떨어뜨린 건가…?

저… 저기. 이런 종이 쪽지가 떨어져 있어….

그럴 리가…!

서…, 설마…!

부들부들….

魔

뭐, 뭐라고!?


.....
그걸
본 적이
있으세요!?
뭐…, 뭔데
그래…?


피… 피콜로
대마왕의
문장이야….
이…
이건…
이건….


그래. 하지만
피콜로 대마왕은
두번 다시 세상에
모습을 나타낼 수
없을 텐데….


들은 적이
있어….
먼 옛날에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 속에
몰아넣었다는
대마왕
이야….
그…
그렇
지만….


그런 웃긴 이름
가진 놈이 대체
언 놈이야?
피… 피콜로
대마왕…!?

이름은 귀여워도
정말 무시무시한
놈이었지….
그 힘은 너무도
압도적이라서….

그가 만든
괴물들과 함께
눈 깜박할 사이에
평화로운 세상을
죽음의 세계로
바꿔 버렸지….

그러나
무태두 님은
세상을 그놈 손에서
구해내기 위해
어떤 비법을
만들어냈다….

젊었을 때의
나나 학도사는
물론이고,
스승이었던
무태두 님도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놈이었어….

「마봉파」
라고 하는
기술이지.

젊은 시절의 학도사

젊은 시절의 무천도사

자신의 목숨과 바꾸면서 말야.

마봉파를 써서 대마왕을 부적을 붙인 전기밥통 속에 멋지게 봉인하는데 성공했지!

대마왕을 봉인한 전기밥통은 내 손으로 깊은 바닷속에 던져 넣었거든.

그러나 피콜로 대마왕이 다시 부활할 수는 없을 텐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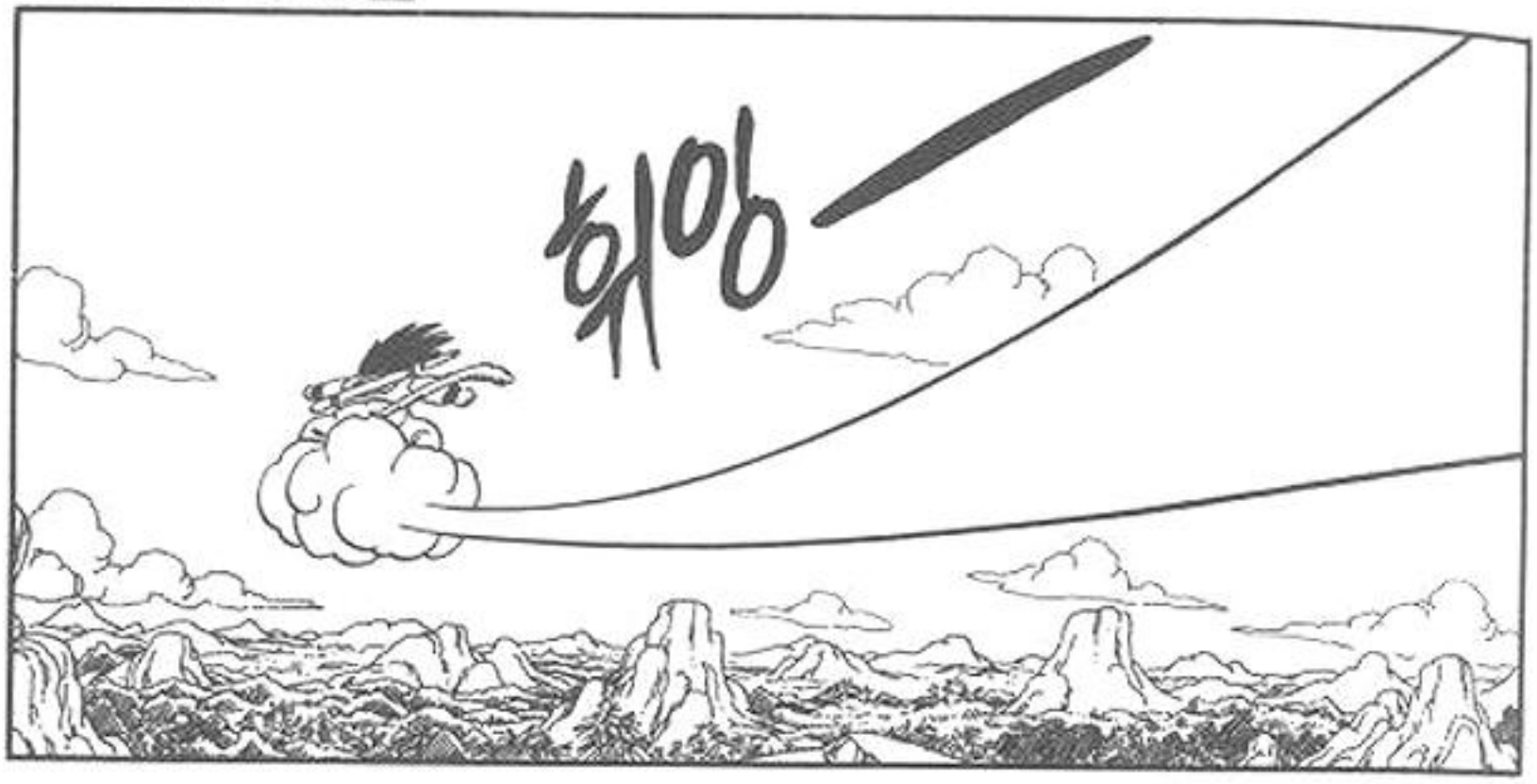
그, 그렇지만 크리링을 죽인 녀석이 정말 대마왕의 부하라면 오공 녀석이 걱정인데요…!

아니, 그럴 리 없어. 그 녀석도 대마왕이 얼마나 무서운지 잘 알고 있은걸.

학도사 님이….

혹시….

무사해야 할 텐데…, 오공….


휘이잉


레이더니,
무슨 볼이니
하는 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레이더를
가지고
갔으니까…
그렇지만
반드시
찾아낼
거야….
그… 그렇다면
우선 오공이
크리링을 죽인
괴물을 찾아내지
못하길 바라는
수밖에….


드래곤 볼과
천하제일
무술대회
명단이라….
그건 그렇고,
빼앗아간
물건이 마음에
걸리는걸….
무슨 짓을
꾸미는
걸까…?


4F
HOHO

魔

일곱 개를
모두 모으면
어떤 소원이든
들어준다고… ?
후후후….

물론 대마왕님의 소원은 세계정복 이시겠죠?

헤헤헤! 그렇습니다!

세계정복 따위는 그런 구슬의 힘을 빌릴 필요도 없이 끝낼 수 있어!

후후후…!

그것만 손에 넣으면 이 세상을 영원히 내가 지배할 수 있게 되는 거지.

내가 원하는 것은 영원한 젊음이다!

서론이 왜 그리 길어? 뭔데?

저, 저는 고생고생 애써서 대마왕님이 봉인돼있던 전기밥통을 찾아내, 이 공중기지에서 다시 부활하게 해드렸습니다. 또 드래곤 볼의 비밀도….

과, 과연 재밌겠는데요…. 그, 근데 저기….

세, 세계의 반을 제게 주셨으면 해서…. 헤헤헤….

아, 아니 뭐 별건 아닙니다만….

PILAF

세계의 3분의 1…. 아니, 4분의 1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아, 뭐 정 그러시다면….

천하제일 무술대회라는 세계의 무술가가 모이는 대회에 대한 것도 가르쳐 드렸고….

생각해 보지.

저, 정말요?

자, 잘 부탁 드립니다…!!

무술가라….

나를 이상한 기술로 저런 것에 봉인해 버리다니….

힘있는 무술가 놈들 전부에게 죽음의 세계를 보여주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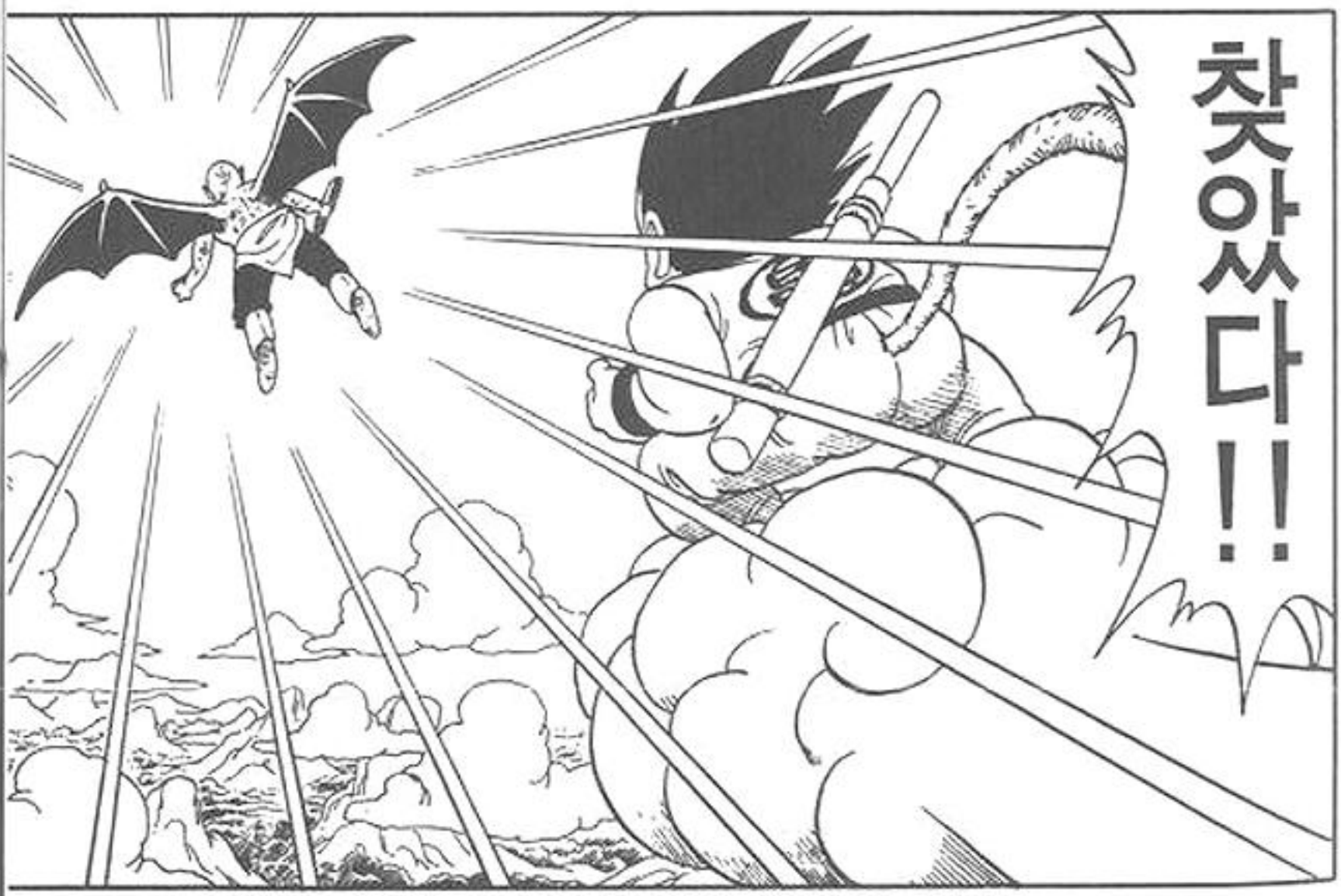
아…, 열심히 합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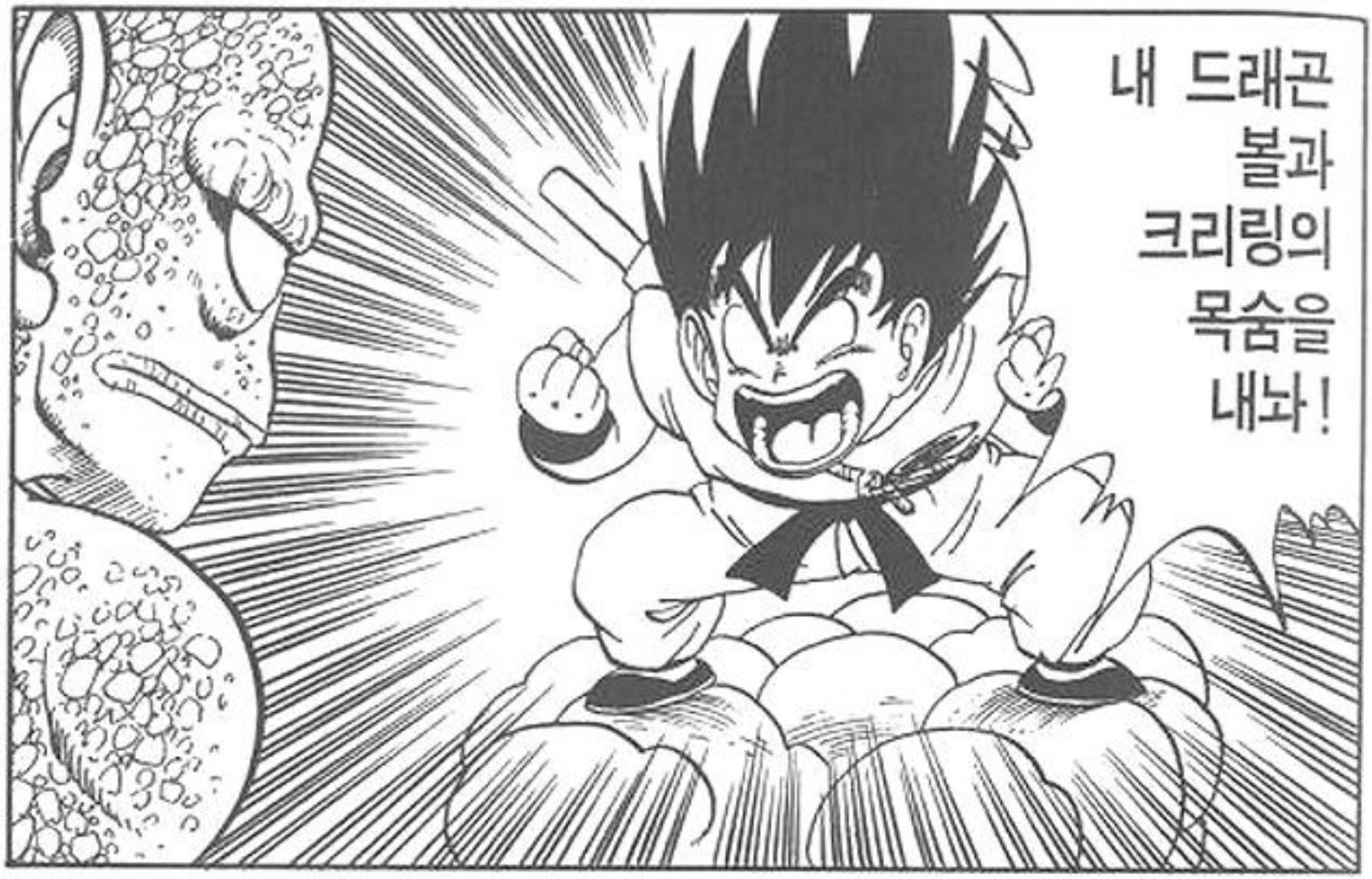
다음은, 제136화 피콜로 대마왕의 공포!

서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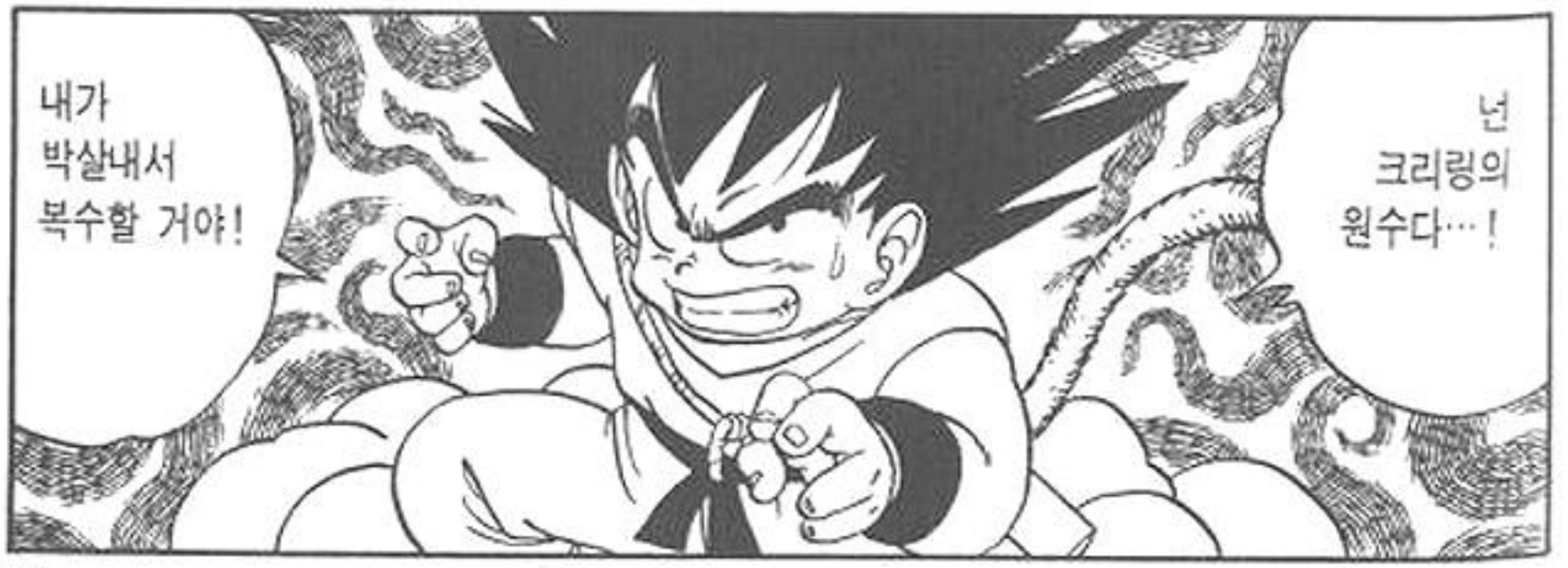







내 드래곤 볼과 크리링의 목숨을 내놔!


뭐라고!?
크흐흐! 죽었나? 그거 잘 됐군.
크리링? 아, 버릇없는 그 꼬마 말이구나.


내가 박살내서 복수할 거야!
넌 크리링의 원수다…!


크흐흐…! 그래서 뒤를 쫓아온 거니?
웃기는군. 어디 한 번 복수를 해보시지.
파파
크!!


제…
제길…!
쿨럭
무술대회에서
힘을 다
써버렸어….
털썩
헉
앙
영원히
입을 놀리지
못하게
해주지.
정말
조둥아리만
산 녀석
이구나.
하하핫!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는
속담이
생각나는걸.
닥쳐!
밥만 실컷 먹으면
너 정도는
한주먹거리도
안 돼…!

아 !!

잘 가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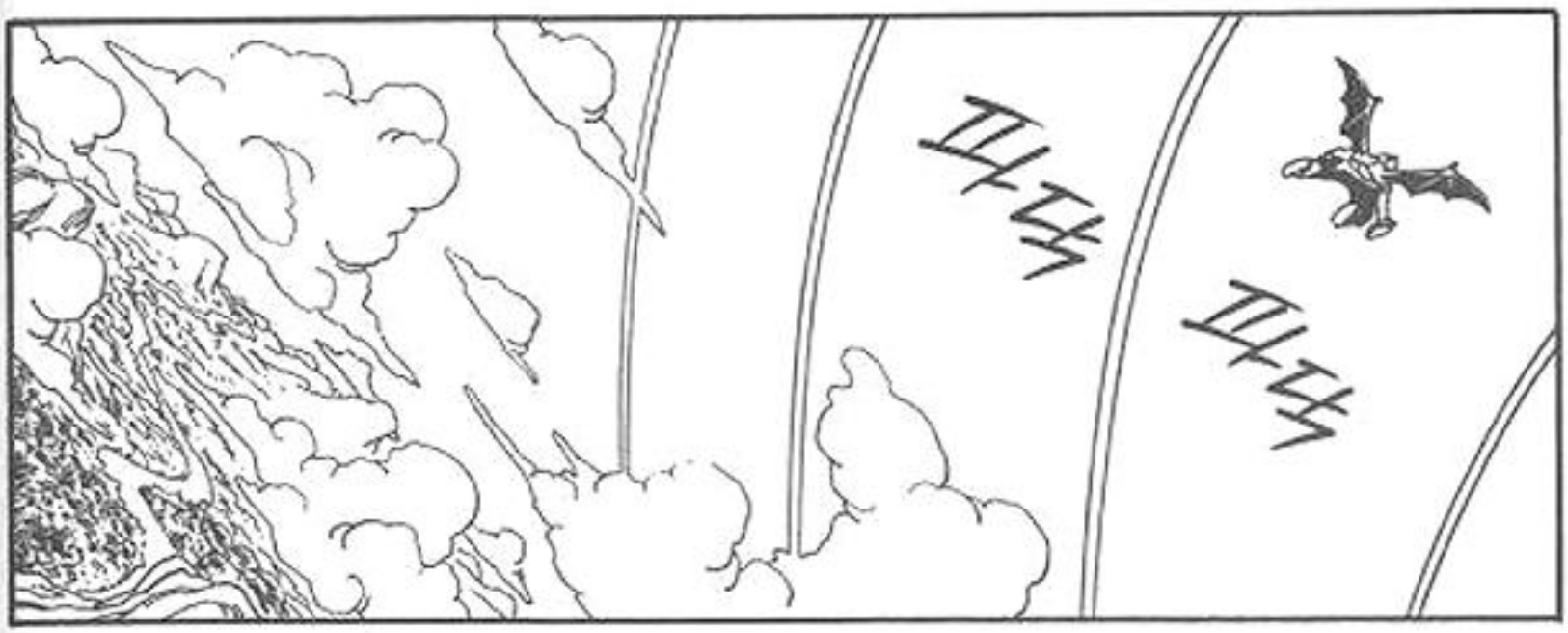
윽 !

근두운 이… !


휘이잉…


키키키…!
죽인다는 건 참 기분 좋은 일이야….




끼끼끼
끼끼끼


天下
道分




드래곤
레이더를 주지
않았어야
하는 건데…
돌아와~,
오공!


크리링을 묻어줘야지….
어쩌면 이미 죽었을 지도 몰라….
일단 집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기다렸는데도 오지 않다니….


잘못하면 너도 개죽음 당한다구!
무슨 소리야! 그런 놈에게 어떻게 이겨?


피콜로 대마왕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작전을 세워서 우리가 먼저 놈의 숨통을 끊어주러 가자…!!
으득…! 제길…!!


세계가 정복되면 너도 한가롭게 살 수 없어!
그래! 그러고 보니 난 상관이 없네! 죽지 않아도 된다구!


무술대회 명단을 갖고 갔으니…, 어차피 우리는 그놈의 표적이야.
……


예전에 무태두 님이 봉인했다는 마봉파란 게 어떤 기술인지, 그 방법을 아시나요?

그래요 … ?

아니, 전혀 몰라.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서….

그보다, 혹시 오공이 여기로 돌아오면 우린 집으로 돌아갔다고 전하시오….

우리가 어떻게 해보는 수밖에….

으음…. 도저히 경찰이 상대할 만한 적이 아니야…. 대혼란만 일으키게 될 뿐이라구….

저…, 역시 경찰에 연락하는 게 좋겠죠?

물론 너희들이 있으면 더 든든하지….

저어…, 역시 우리도 같이 가는 게 좋겠는데요….

알았습니다…. 당신들이라면 분명히 세상을 구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으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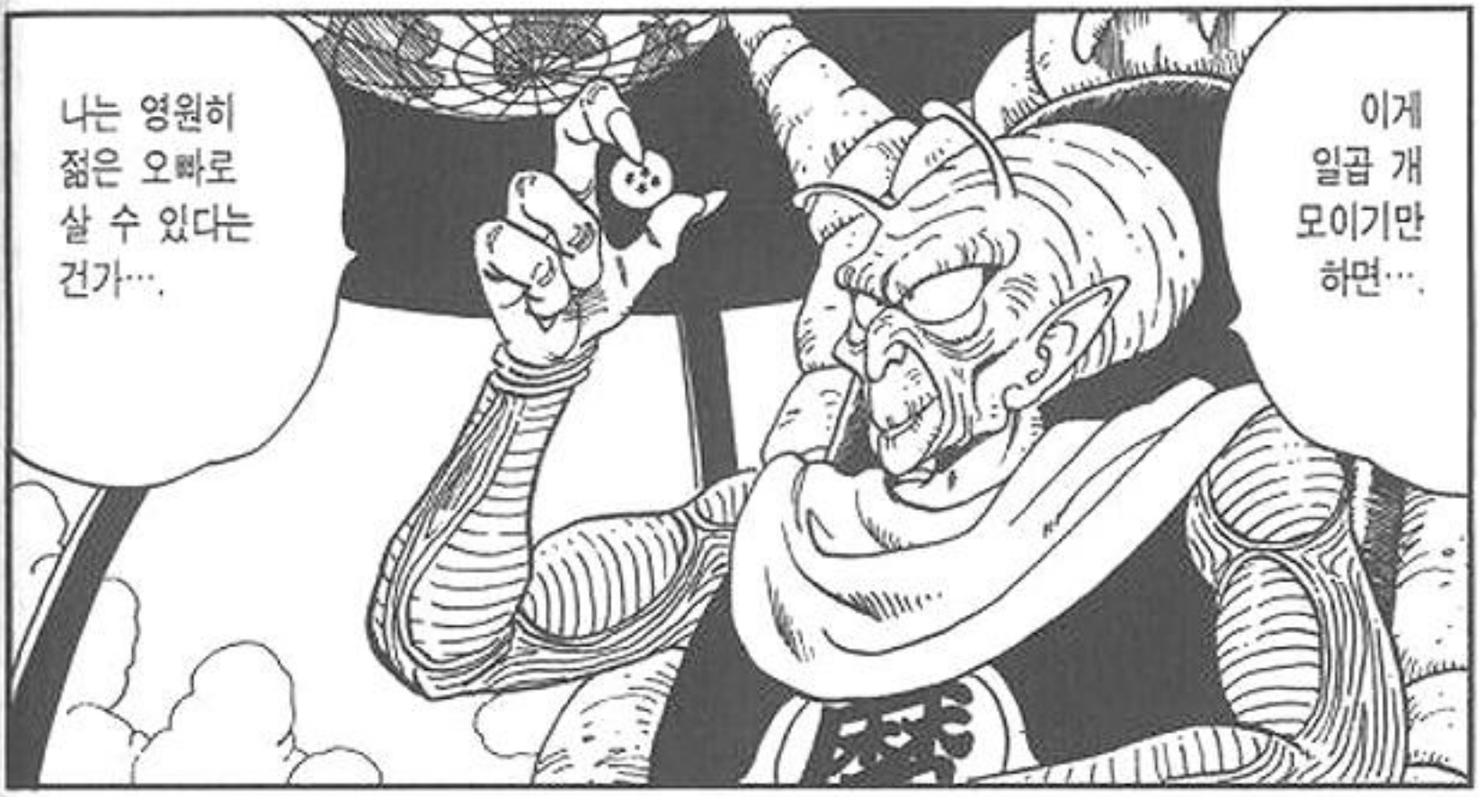
시꺼! 너만 그런 게 아니잖아!

내 미래가 캄캄하도다…!

아!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졌네….

부아아아…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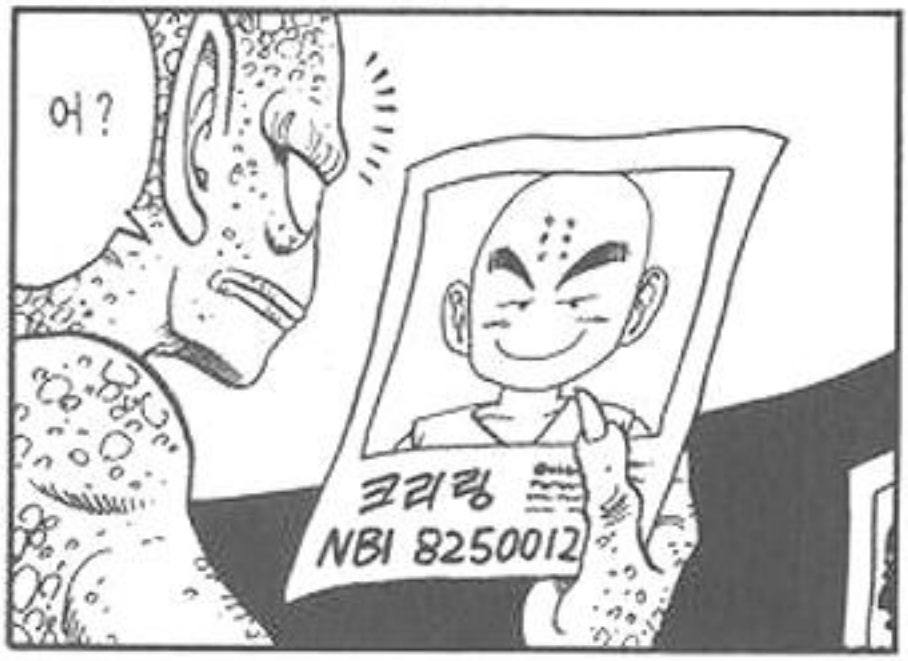

이게 일곱 개 모이기만 하면….
나는 영원히 젊은 오빠로 살 수 있다는 건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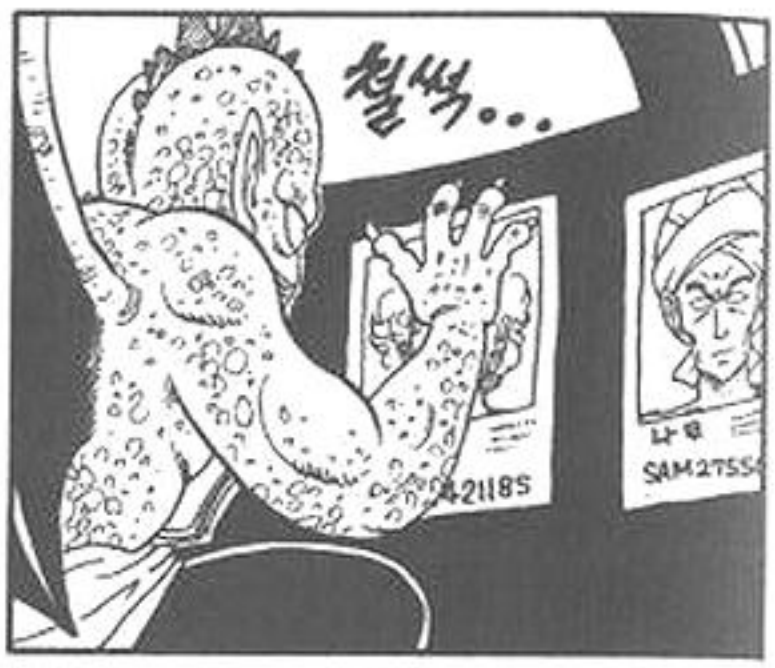

그리고 이게 최근 10년 동안 천하제일 무술대회에 출전한 선수 명단입니다.
우연히 그 볼도 같은 무술대회장에 있어서 일석이조였습니다.


헤헤헤! 물론입죠! 정말 멋지죠?


아, 저희가 도와드리죠!


좋아!
명단을 벽에 붙여라!


어?
크리링
NBI 8250012


철썩...
SAM2755


뭐?
피…
피라후 님!
이놈…!


만나서
죽였으니
이제 불일
필요 없지.
이 녀석,
그 정도
실력 갖고
달인이라니!
헤헹!
꾸깃..


천하제일 무술대회에
두 번이나 출전했구나!
게다가 두 번 다
준우승을 했어…!
이,
이 녀석이~!!
그래, 그래서
그렇게
강했구나…!


앗
!!
손오공


뭣!?
그놈도 붙일
필요 없어.
내가 죽였으니까.

이,
이놈을!?

그래, 틀림없다구.
순 허풍만 떠는
엄청 허약한
놈이었지.

그래,
그 꼬마가
준우승
이었다니….

크흐흐!
대마왕님!
지금 세상은
쓸 만한 무술가가
별로 없나
봅니다.

후후후!
그거
잘 됐군….

그러나
유비무환이야.

다시 마봉파에
당하면 나도
어쩔 수 없어.

그 명단에
실려있는
무술가는
모조리 죽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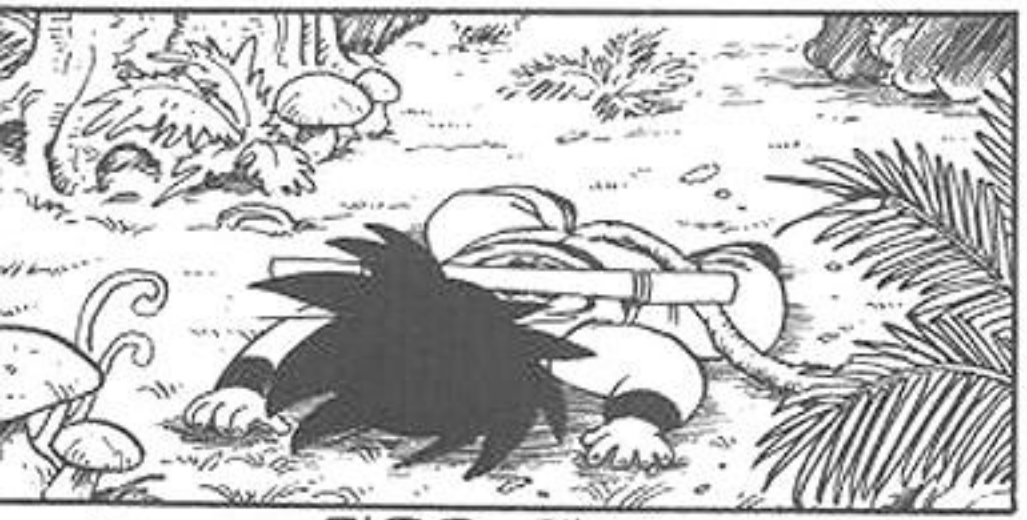
그리고,
나 피콜로
대마왕한테
거역하는 놈도
모두 죽여라!











다음은, 제137화 부활하라, 손오공!

부아아앙....


크흐흐! 드래곤 볼이라….
한시라도 빨리 7개 전부 손에 넣어 젊음을 되찾고 싶어….
그럼 내 몸도 그 놀라운 힘을 되찾을 수 있을 거야.
탬버린….
예!
넌 그 천하제일 무술대회의 명단에 있는 무술의 달인들을 차례로 말살해 버려라!
알겠습니다!


드래곤 볼은 전사 한 명을 더 늘려서 모으도록 시킬 거야.
대마왕님! 그럼 드래곤 볼은 누가 모으죠…?


알을 더 낳아서 이 이상의 체력을 소모하면 더더욱 노화가 진행되어 세계를 손에 넣기 전에 죽고말 겁니다!
안 됩니다, 대마왕님!


우욱~! 보고 싶지 않아. 속이 메슥거린다구….
느…, 늘리다니…. 또 그 짓을 하려나 봐요….


그럼 이름 그대로 드래곤 모양의 전사를 낳을까…?
드래곤 볼을 모을 전사라….


앞으로 몇 번 정도는 마력을 써도 죽지 않는다.
걱정 마. 어차피 드래곤 볼로 회춘할 때까지만 참으면 되니까.

포코펜
포코펜…
다레가….

츠츠이타
포코펜….

포코펜
포코펜….

다레가
츠츠이타….

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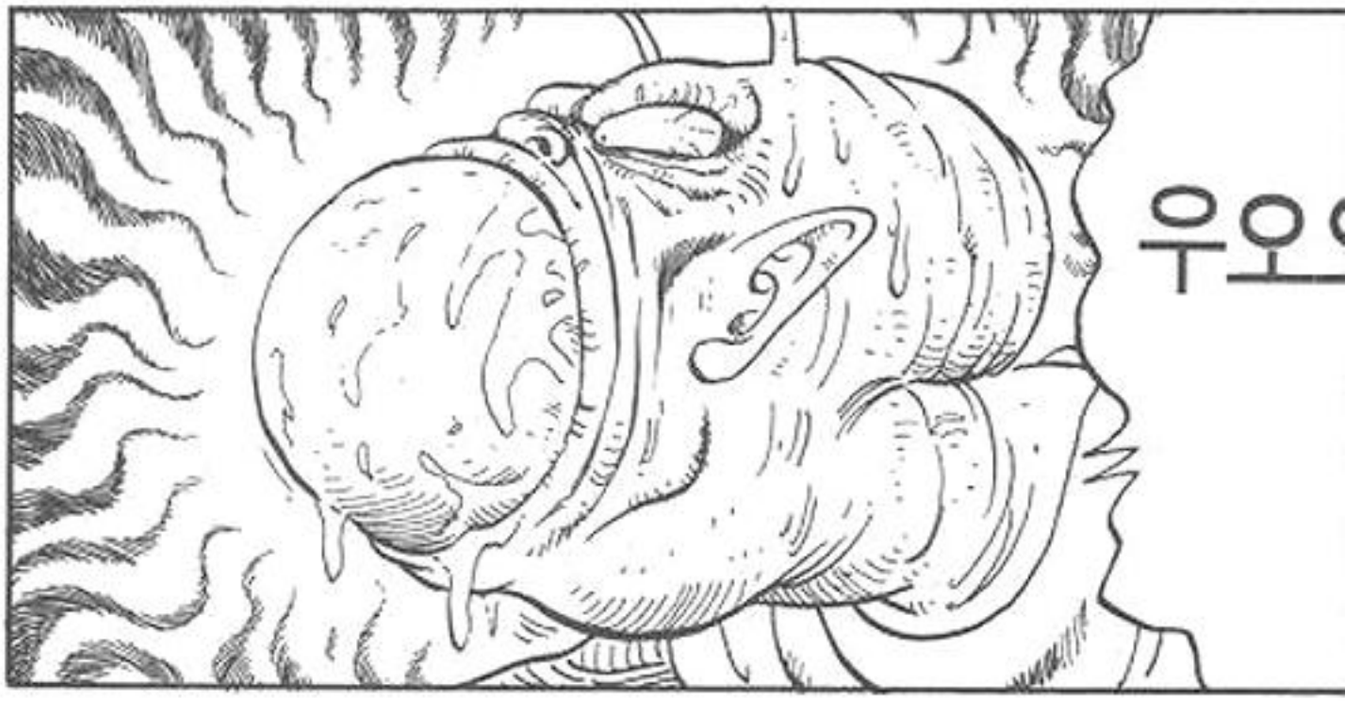
우우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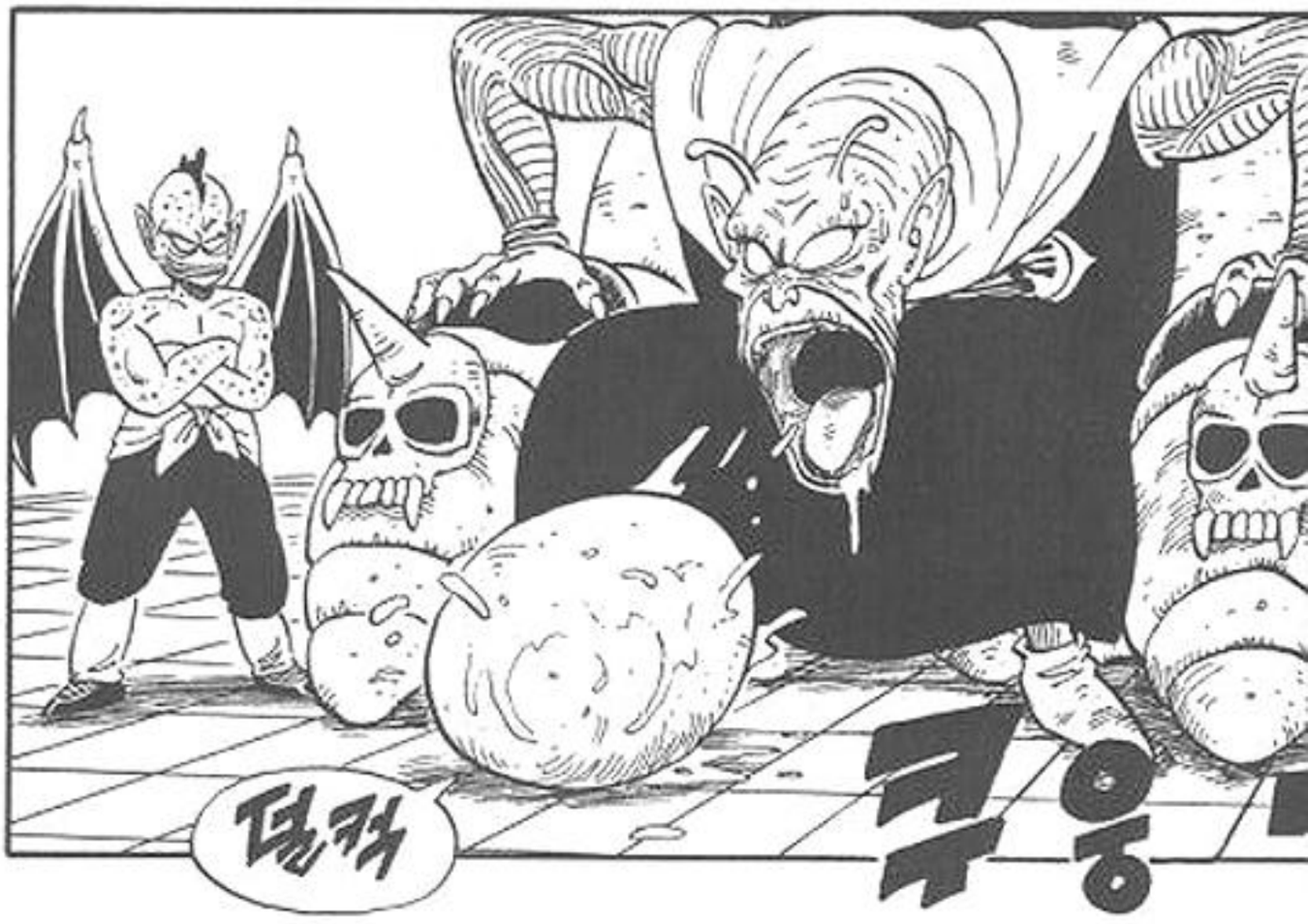
우욱…!

으…!

우억…!

으그그…!


우오


덜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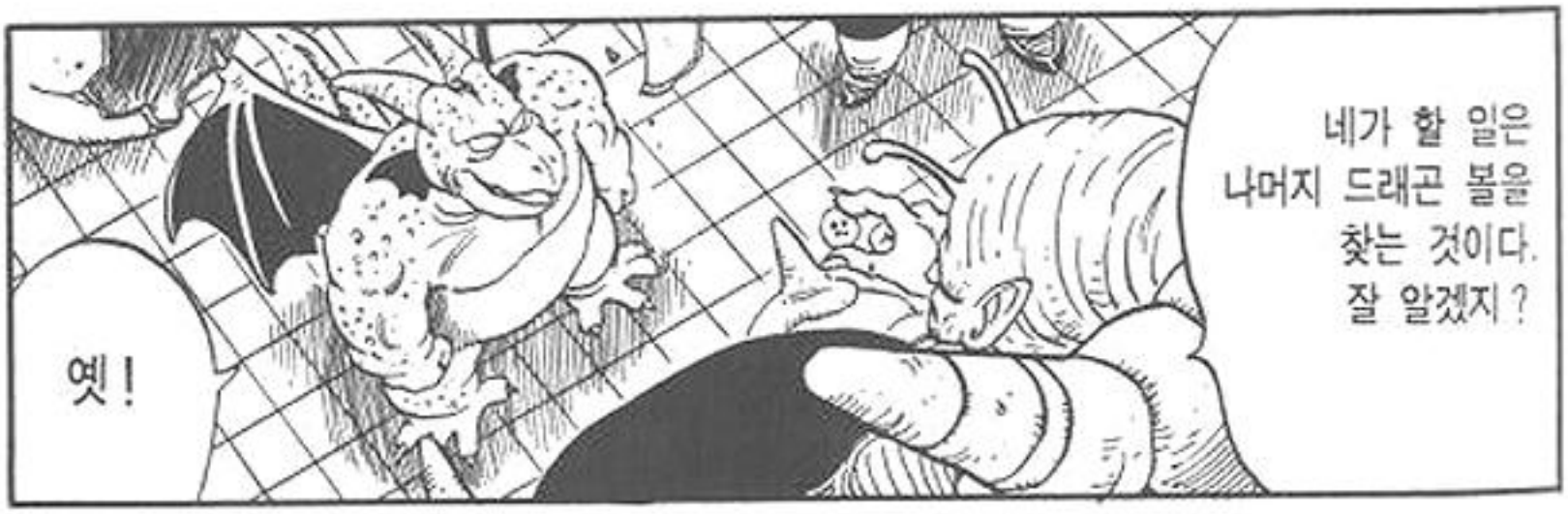

헥!
헥!
헥…!




괘…, 괜찮으세요, 대마왕님…?
자, 깨어나라!
네 이름은 심벌이다!
찍…. 찌직….
찌직….
툭.. 투둑…
ㅋㄹㄹ….
나, 나왔다….


심벌이여,
깨어
났는가?
예,
대마왕님!
魔


으으으 …


네가 할 일은
나머지 드래곤 볼을
찾는 것이다.
잘 알겠지?
옛!


야, 다음
드래곤 볼
위치는
어디 있지?
예!?
魔


아!
예, 예!
우, 우선
이 별이
제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이, 이게
웬일이군요….

요놈부터 할까?

나무
SAM 27550B

주소는 SAM의….

그럼 난….

어느 놈부터 청소해 버릴까…?

좋아~!

예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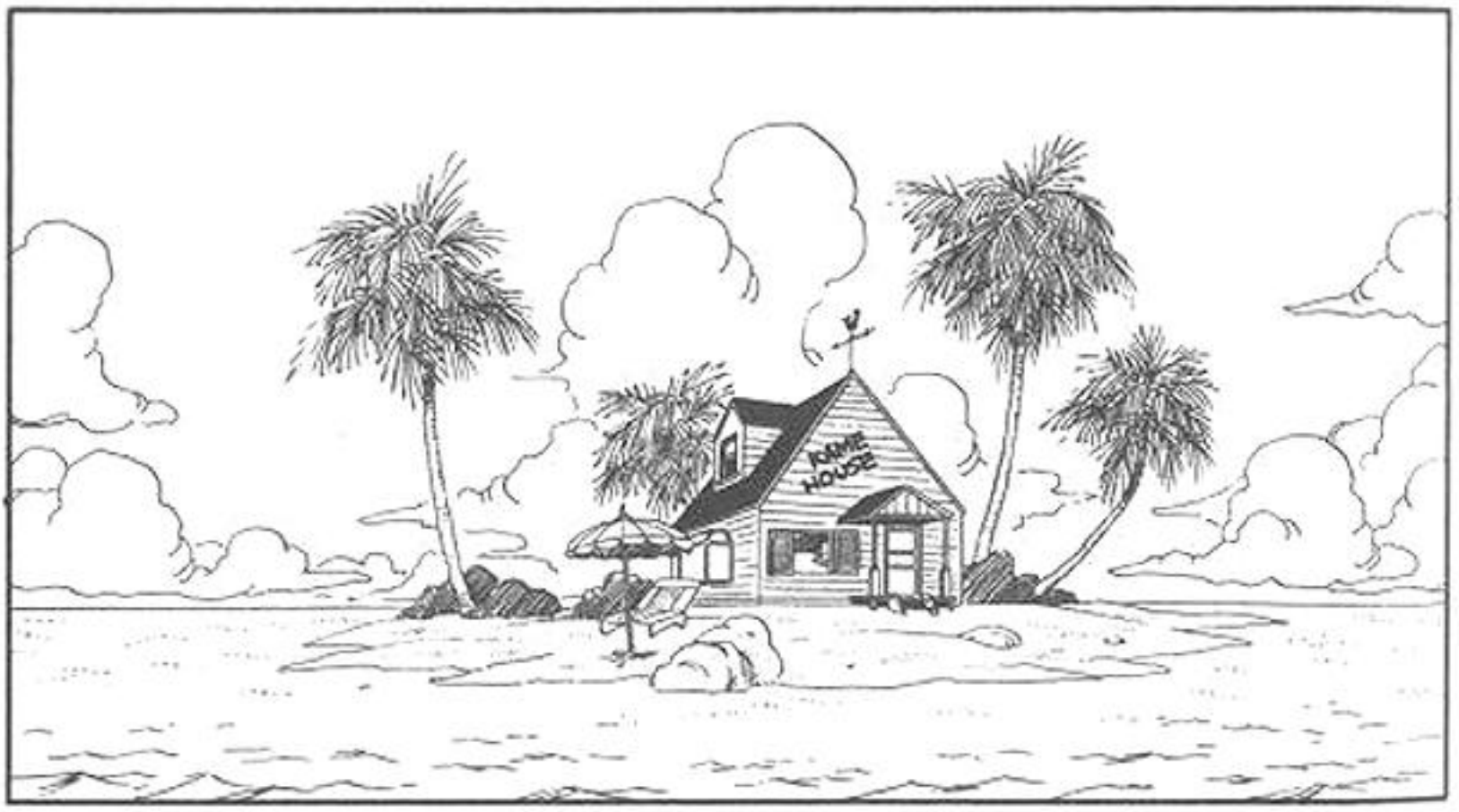
가라!!

파닥

파닥


걱정 마.
분명히
우리에게
세계의 반을
줄 거야….
염려
놓으셔….
무… 무슨
소리~!


피, 피라후 님….
우리가 살려준
피콜로 대마왕 녀석은
부활시켜준 걸 조금도 고맙게
생각하지 않나봐요….
쉿-!
쉿-!
들린다.


KAME HOUSE


죽은
크리링을
살리는 것도
가능해.
그래,
하나만은
들어주지!
그렇다면
그 드래곤 볼을
다 모으면
어떤
소원이든…?

그렇지만 이번에 빌 소원은….

피콜로 대마왕이란 놈의 파멸이야….

얘기를 들어보니 우리가 실력으로는 도저히 대적할 수 없는 상대 같으니까….

드래곤 볼은 소원을 들어주면 1년 동안은 쓸모없는 돌멩이잖아요?

그럼 크리링을 살리는 게 너무 늦어 버리는 거 아닌가….

맞다, 맞아! 그래, 시체가 다 썩어 버리잖아.

겨우 살려놨는데 해골만 남으면 인생이 걱정된다.

정말 고마워요

그런 걱정 마. 내가 보존용 냉동 캡슐을 만들 테니까.

오룡도 들어가 볼래?

난 살아 있어….

으음~.

엷은 그레이라….

예!? 뭐가요!?

그, 그게 어떤 작전이죠!?

아, 아니. 부르마 팬티 색이….

깜짝

엥?

나…, 난 그냥 분위기 좀 띄워 보려고….

지금 웬 분위기!? 정말 못말리는 영감태기야!

뭘 보고 있는 거야! 이 세계가 지배 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 중요한 시기에!

위험하지만 할 수밖에 없지.

아… 아무튼 우리가 먼저 7개의 드래곤 볼을 모으는 방법밖엔 없겠어….

현장에는 이런 「마」라고 적혀진 종이 쪽지를 남기고 사라졌다고 합니다….

魔

대체 이 괴인은 어떤 목적으로…

목격한 가족과 마을 사람들 말에 따르면 범인은 엄청나게 강한 괴물로….

…이게 살해 당한 나무 씨 입니다만….

나 무

텔레비전….

저… 저봐!

응?

나…
나무 씨가?

벌써
시작됐군….

아…!

명단에
올라 있는
다른 출전
선수들도
위험해!

연락해
줘야겠다!

아….

그 명단은
도둑 맞았잖아….
연락하려 해도
사는 곳을
모른다구….

그렇다고
보도기관에
연락해서
주의를 끌면
온 세계가 공포에
휩싸일 텐데….

여기 있으면
우리도 위험하니
우선 다른 곳으로
집을 옮기자.

부르마!
새 레이더를
만드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지?

적어도
반나절은
걸려….

그래…?
좋아,
서둘러줘!

레이더가
완성되면
싸울 수 있는
사람은 모두
볼을 찾으러
간다!

자,
서둘러!

…앙

오공~.

살아있으면
좋겠는데….

너희들이
있으니
든든
하구나.

그래도
손오공마저
당하는
상대라면….

냉동캡슐이
많이 필요
하겠어….

짹짹짹…

삐삐…

…?

으으…

…으!

으으…

에구구…!

내가 얼마나 정신을 잃고 있었지…?

나, 그 녀석에게…

그… 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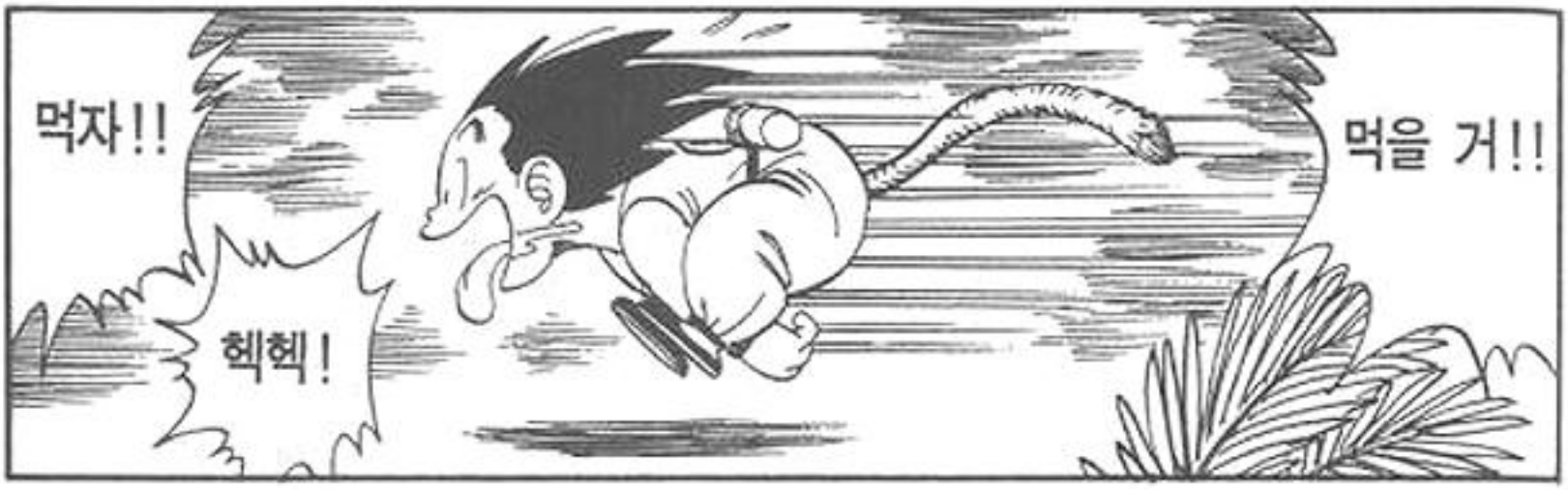
생선 냄새야!

음식이다!

쿵쿵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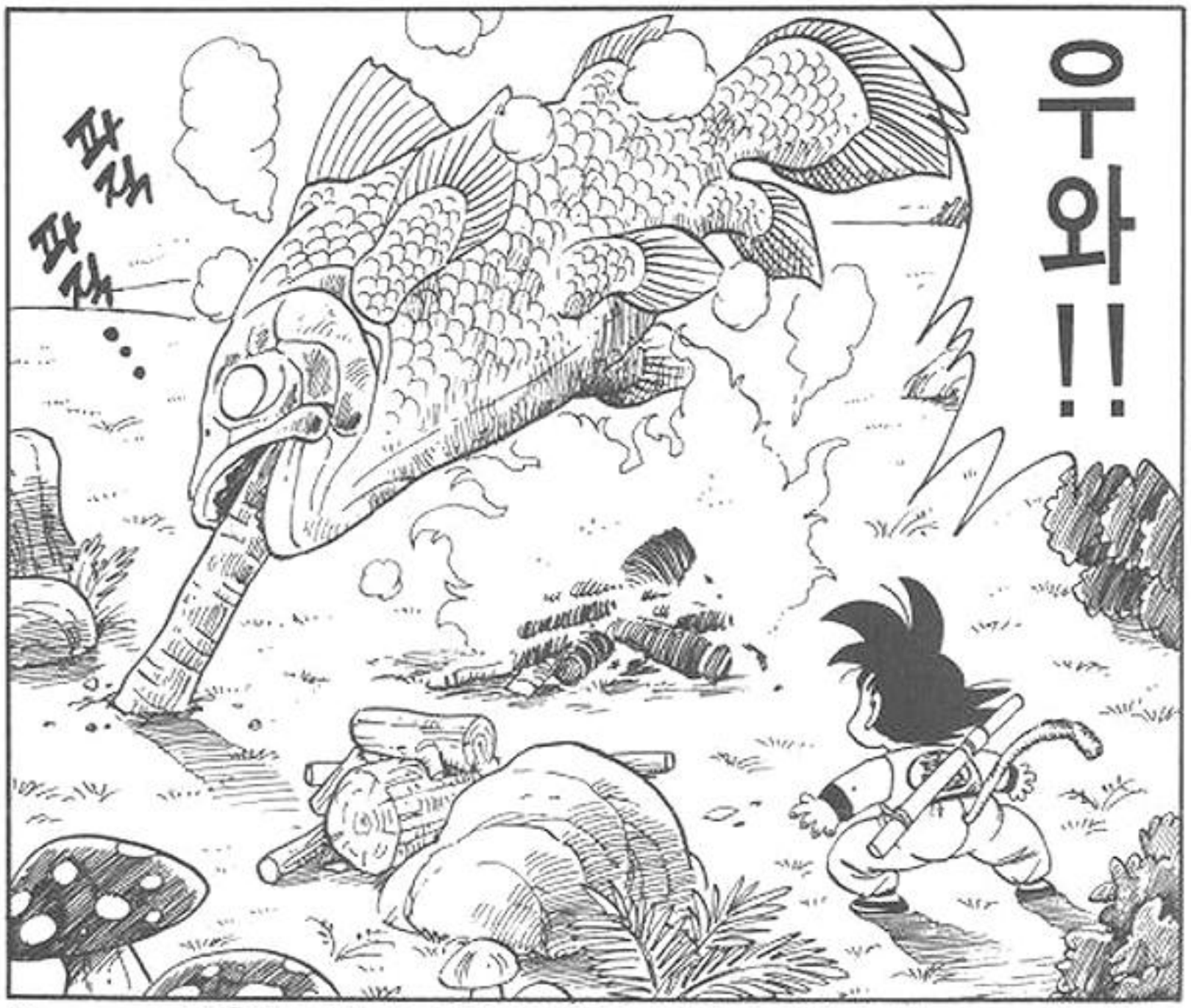
쿵…!

어…?









다음은, 제138화 구슬을 가진 묘한 녀석

이게 꿈이냐, 생시냐!? 정말 캡이다!!

파직 파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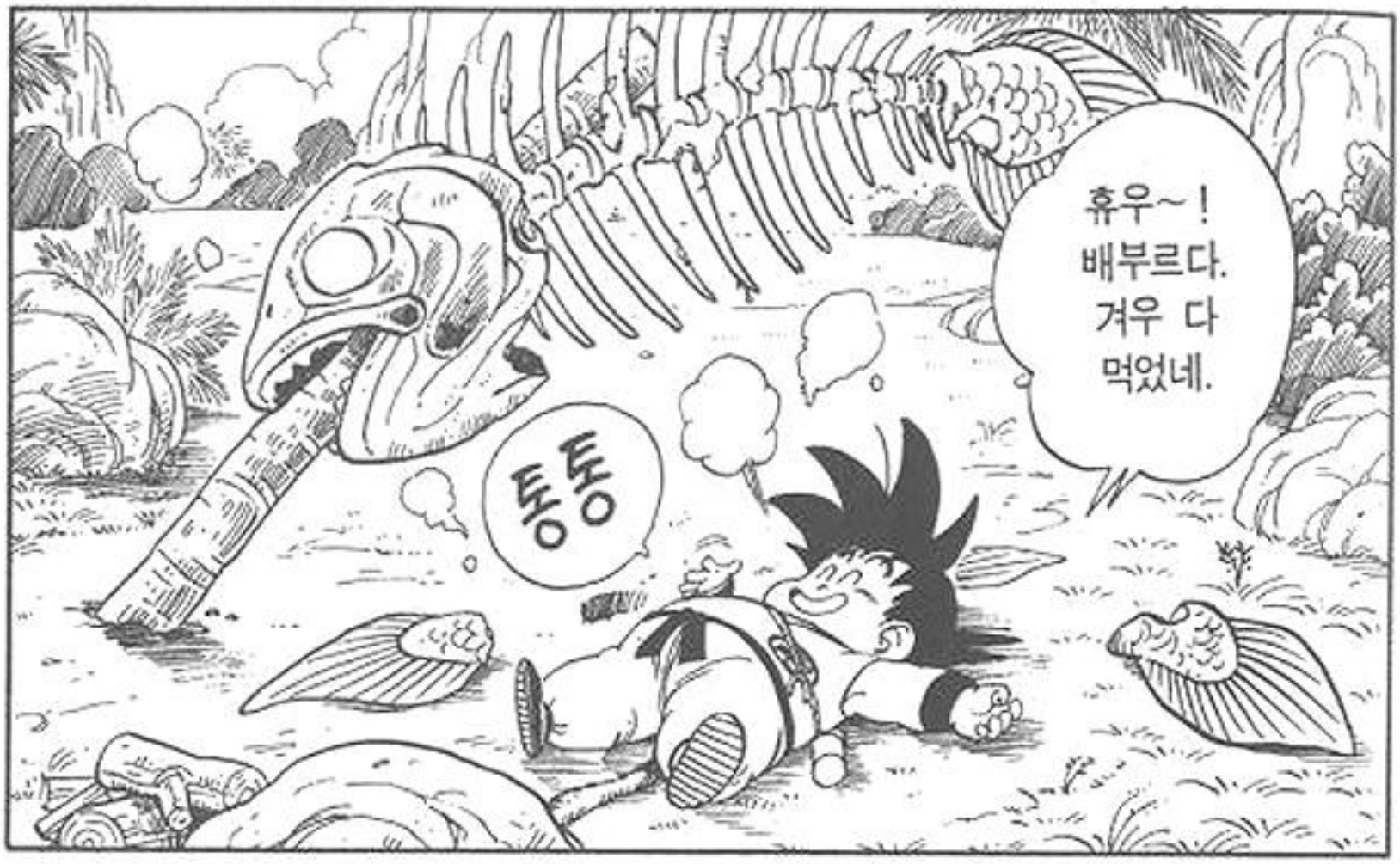
잘 먹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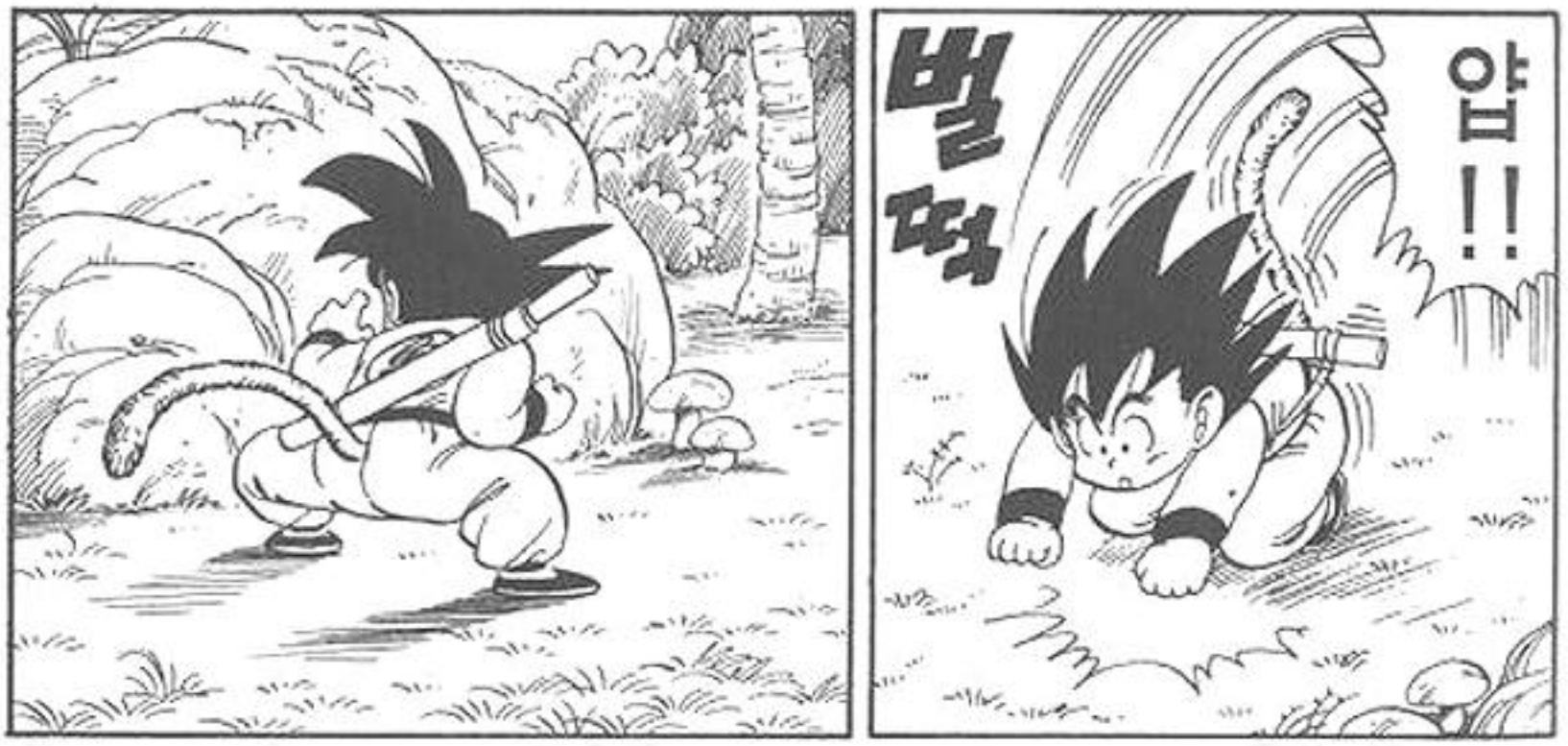
파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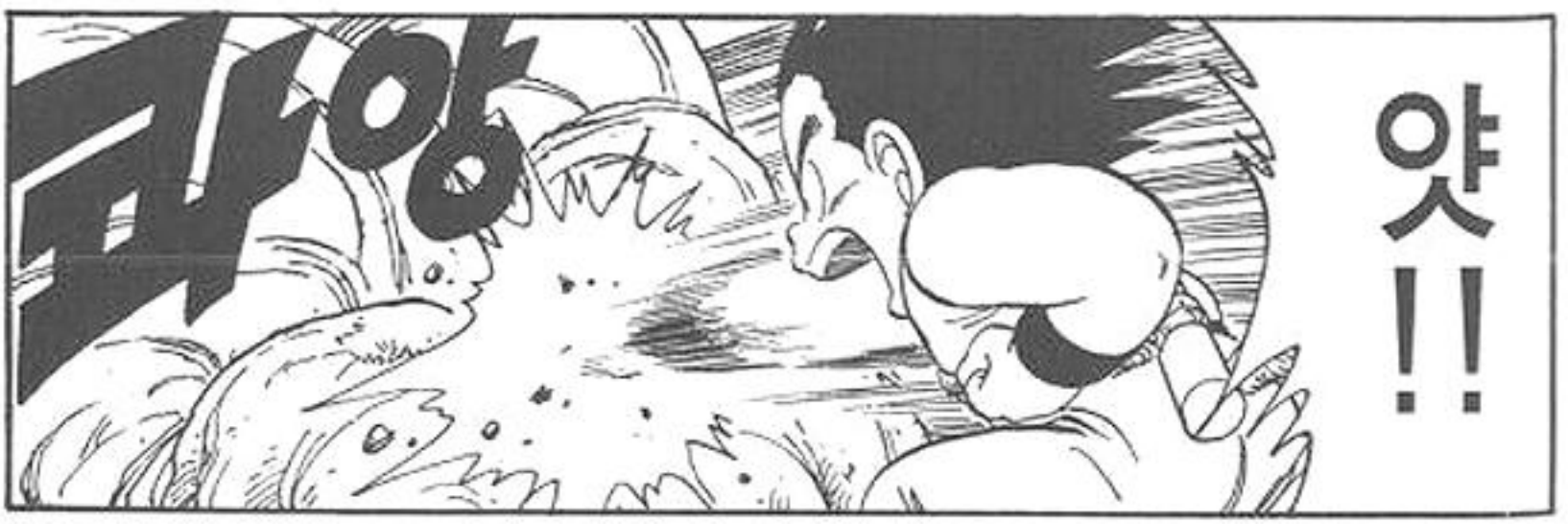
덥

쩍

냠 냠 쩝 쩝 냠 냠


휴우~!
배부르다.
겨우 다
먹었네.
통통


벌떡
앱!!


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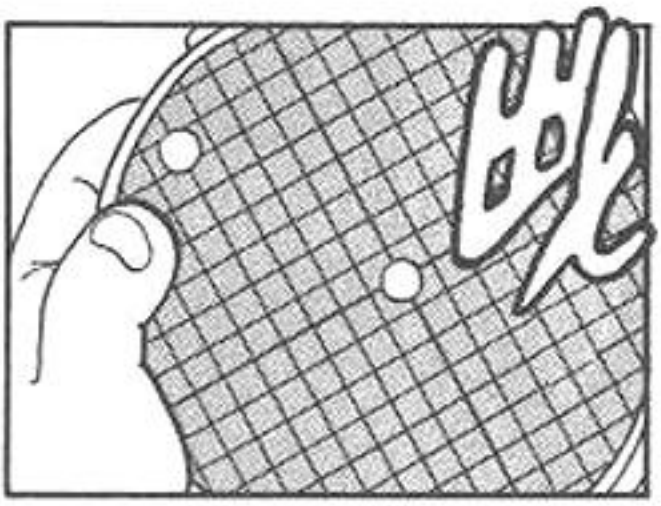

투두둑...
아자!!
파워가 다 찼어!!
이노옴~! 이번엔 요절을 내고 말 테다!
근두운!!
.....


근두운까지
죽이다니…!
우씨!
나쁜 놈!


그 괴물한테
완전히
박살났지….
아…,
그렇구나.
근두운은….


나, 맨발로
지옥까지
쫓아가서라도
해치울 테다!!
크리링과
근두운의 원수!
게다가 내 드래곤
볼까지 훔쳐갔어!!


찰칵
찰칵
어?


뻐


헹!
얼빵한
놈!
드래곤 볼을
훔쳐가다니,
죽고 싶은
모양이지!
찰칵


여기에
드래곤 볼이
있네…!
역시
여기에….


이놈이!!
이 근처에 있었구나!
!!
앗!?
콰앙

어디야!? 빨리 나와!

이, 이노옴!

탁

어라?

이 자식, 뭐라고!?

너, 내 물고기 훔쳐 먹었지!?

그건 내가 할 소리다!!

멍청한 놈! 생선구이를 버리는 사람이 어딨냐!?

난 버린 건 줄 알았어!

니 물고기!?

탁

맞아!
너도 역시
그 괴물이랑
한패구나~!!

앗!
내 드래곤 볼!

닥쳐,
무슨 헛소리야!
이 생선 도둑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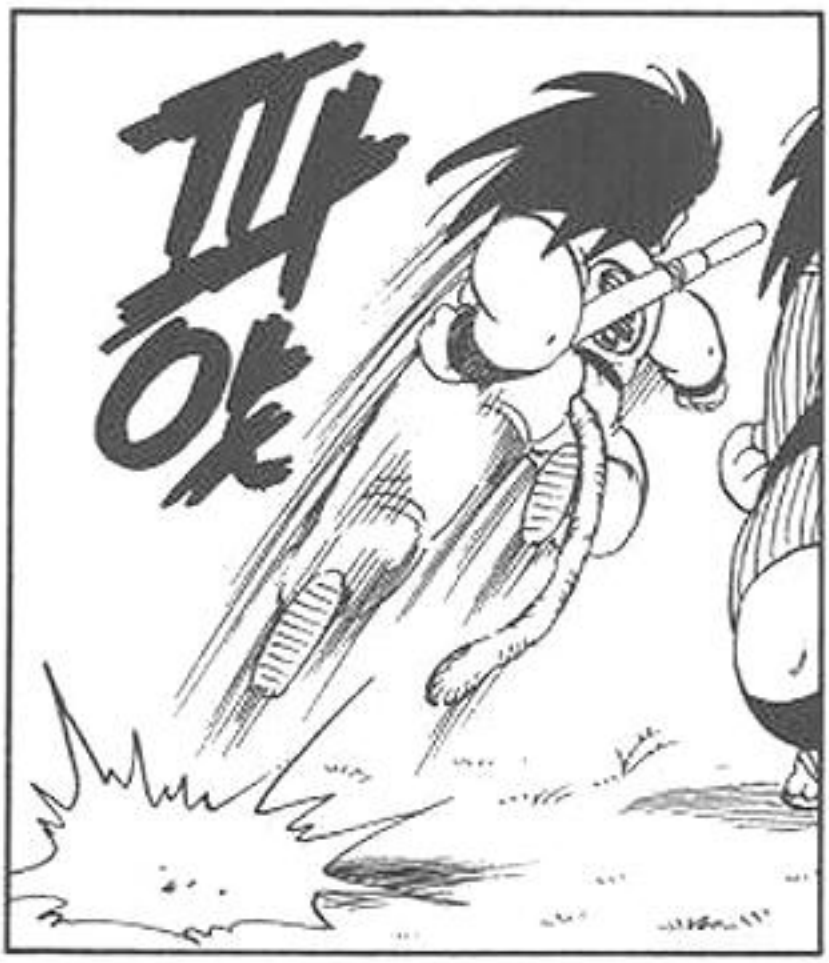
이놈!
날개 달린
그 녀석은
어디 갔냐-!?


혼쭐나고서 울지 마, 꼬맹아!
너야말로 맛 좀 봐라, 뚱땡아!
뭐라고!?
그래, 붙자—!!
파앗
파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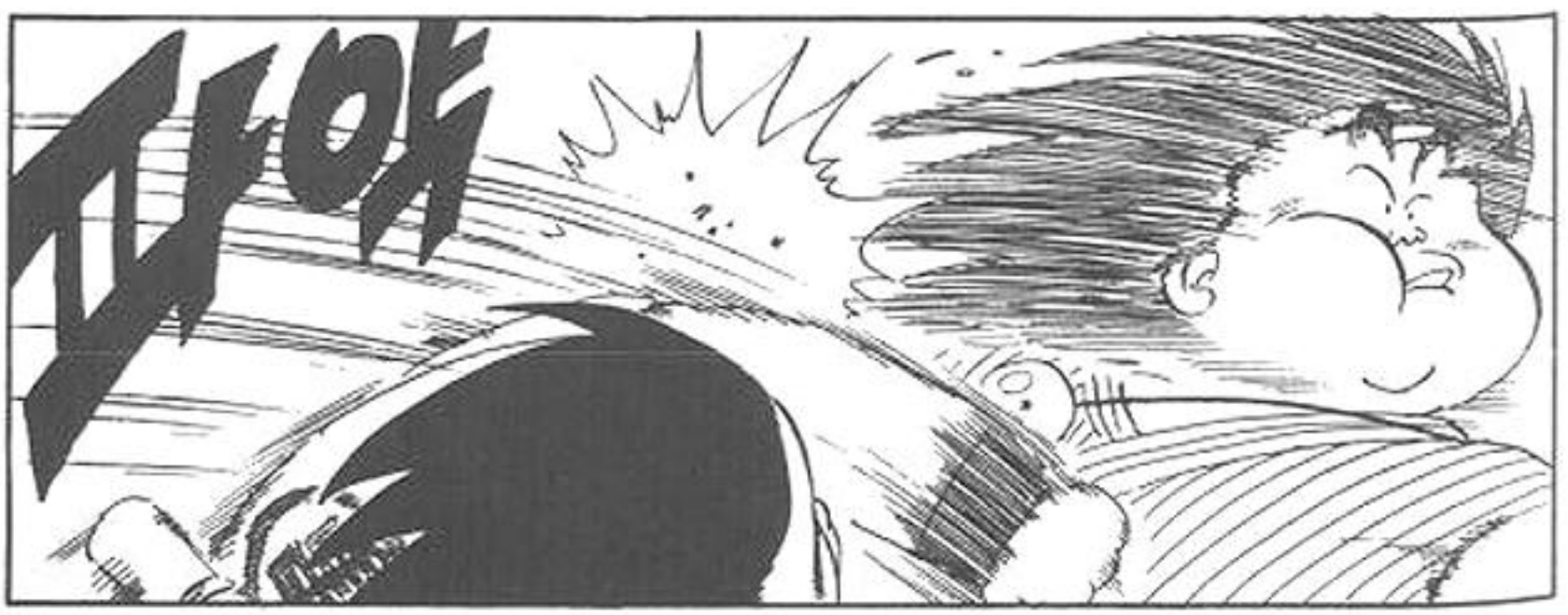

파파파
퍼억
아얏!!
키키키키!
벌떡
복수다!!
퍼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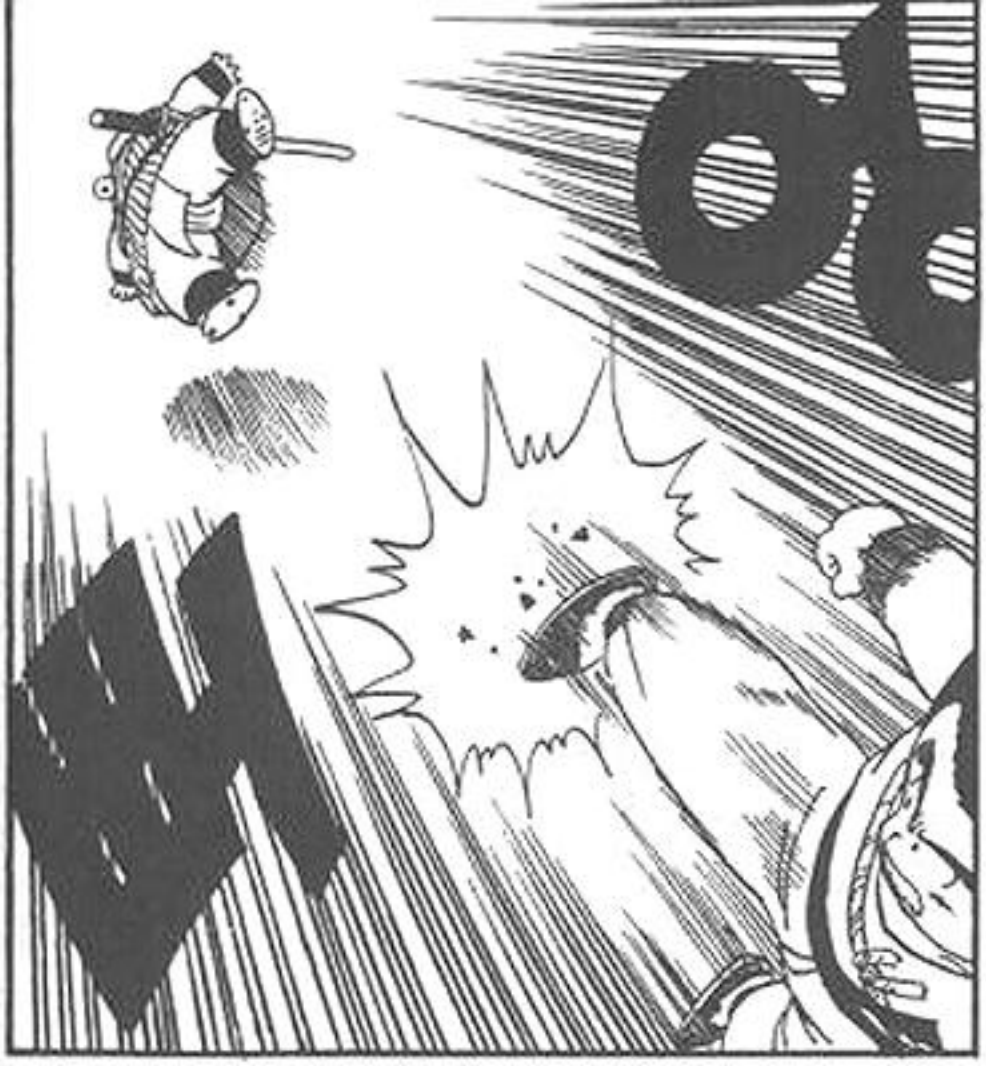

파
이게
정말!


이익!!


파앙


헉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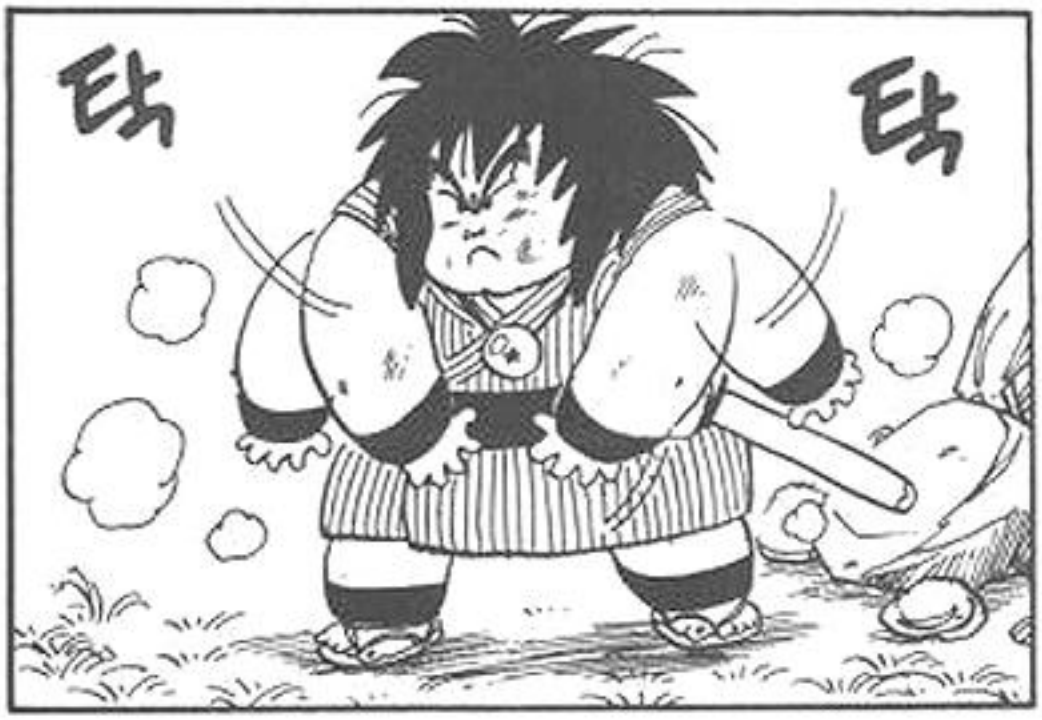

아아


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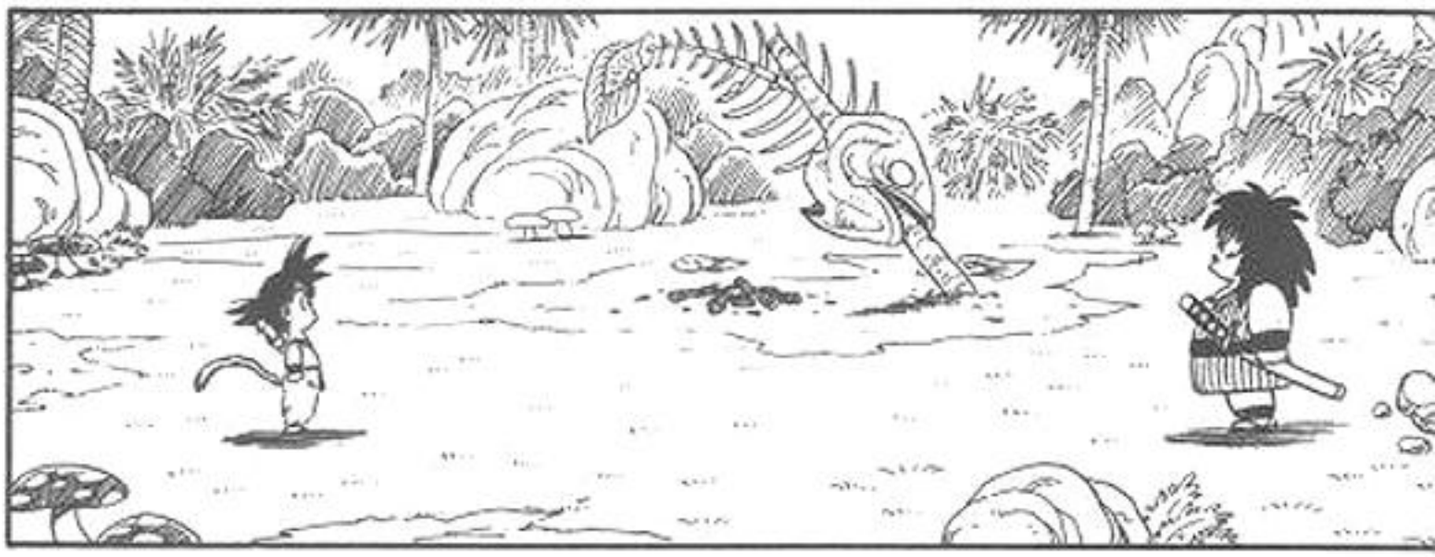

비틀 비틀
탁


툭


아


탁
탁


후드득 후드득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이렇게
끄떡없는 놈은
처음이다….


이렇게
세 놈은
처음이다….


내가
빼앗긴 건
사성구였는데!
일성구다!




저…
저건…!?
어!

저기, 너!
목에 있는
그 구슬
어디서 났니?

3년 전에
길에서 주웠다!
왜, 떫나?

아하, 미안!
나의 실수!
내가 엄청
착각했구나.
헤헤….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만,
웃음으로
때울 생각 마!

내 물고기
내놔!

어?

뭐가
어야?

그 물고기는
내 아침 식사란
말이야!
빨리 토해내!!

그게
아니라….
저건?

파닥파닥……

뭐가…?













다음은, 제139화 야지로베의 사냥감

이 근처에서 별이 들어 있는 작은 구슬을 본 적이 없니?

알겠지? 솔직하게 대답하지 않으면 죽어….

엥!?

넌 뭐야?

어디서 건방진 말투로 지껄이냐.

이리 줘. 내가 가져가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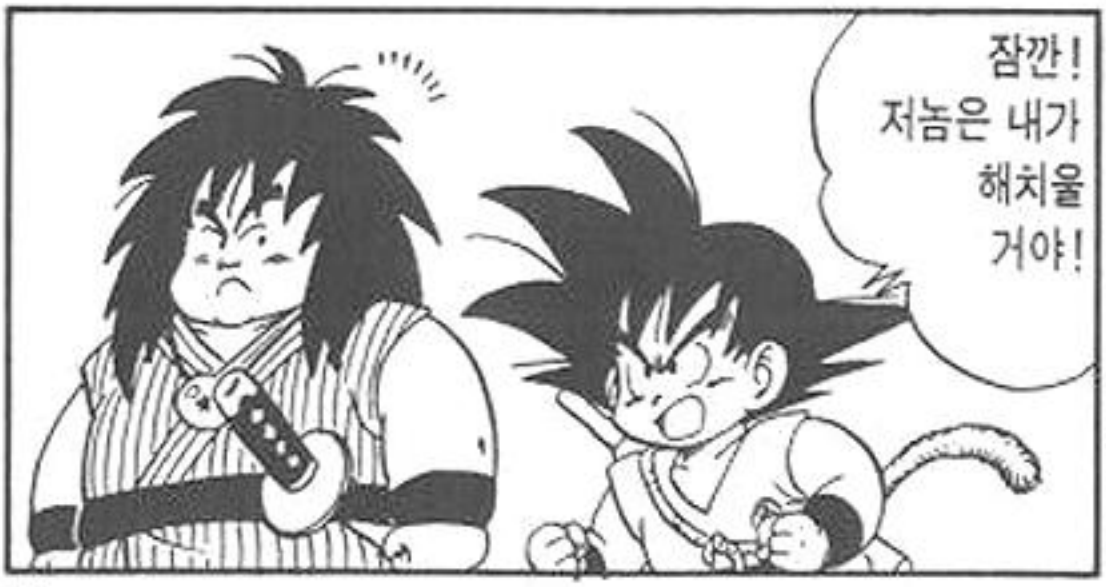
헤헤헤! 그거야, 그거! 눈앞에 있었다니!


역시 크리링을 죽이고 내 구슬을 훔쳐간 녀석과 한패로구나!
드래곤 볼을 찾고 있다면….


뭐시라! 나한테 지금 반항이냐?
내가 왜 이겁 너 같은 놈한테 주냐?
멍청아!


흥! 가져갈 테면 해보셔….


그럼 널 시체로 만든 다음 편안하게 가져갈까?
흐흐흐… 죽고 싶어 기를 쓰는 구나.
뚜둑 뚜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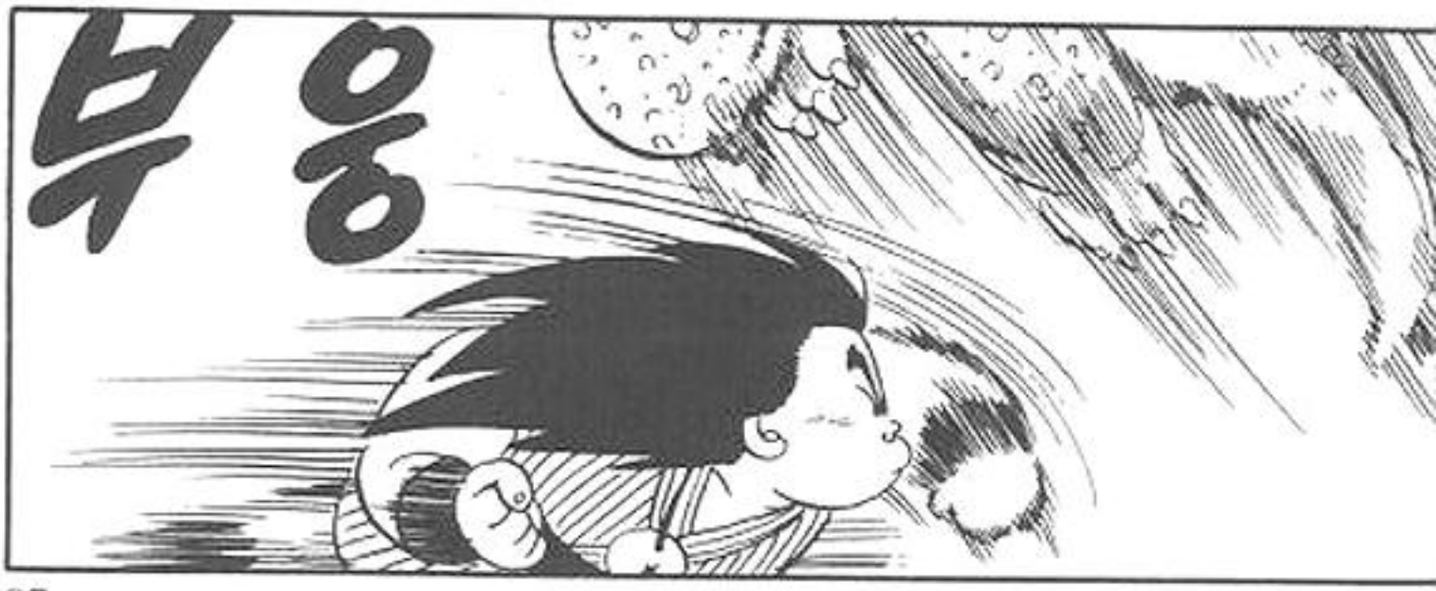

잠깐! 저놈은 내가 해치울 거야!

그건 내 알 바 아냐.
저건 내 사냥감이라구.
아냐, 내가 할래!
참견 말고 저리 꺼져.
저놈이랑 한패가 내 친구를 죽였다구!
너도 참 귀찮은 놈이네!
그럼 가위바위보로 정하자!
헤헤헤! 늬들 날 우습게 보는 모양인데….
내가 누군지 모르지? 난 그 유명한 피콜로 대마왕 님의 부하이시다.
가위 바위 보!
가위 바위 보!!
……
그딴 거 몰러!
에잉! 제기랄….
헤헤헤! 내가 이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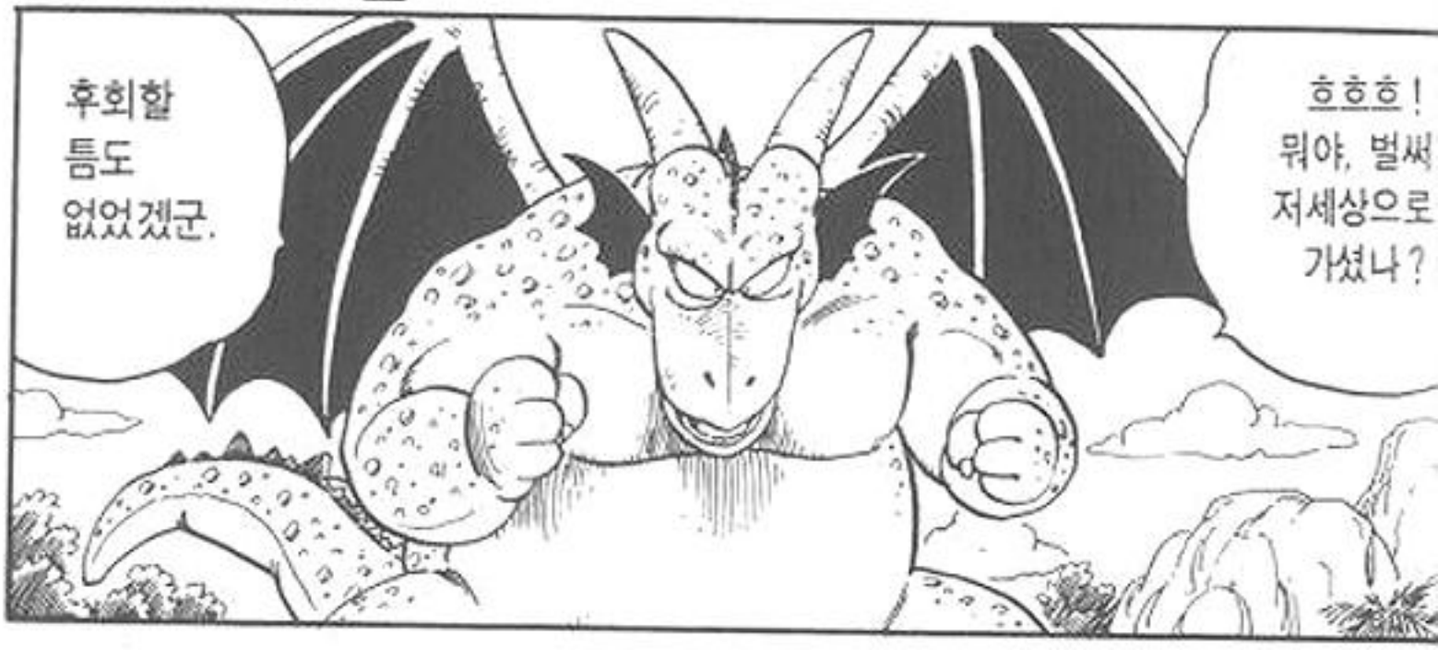

별로
맛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
자,
붙어보자!


타닷
후회
하는 건
너야!


흐흐
얌전히 내
않은 걸
하게 됨


부웅


퍼억
파악
쌔엉
투웅


후회할
틈도
없었겠군.
흐흐흐!
뭐야, 벌써
저세상으로
가셨나?


무척 센
놈들만
만나는걸….
오늘은
좀 이상한
날이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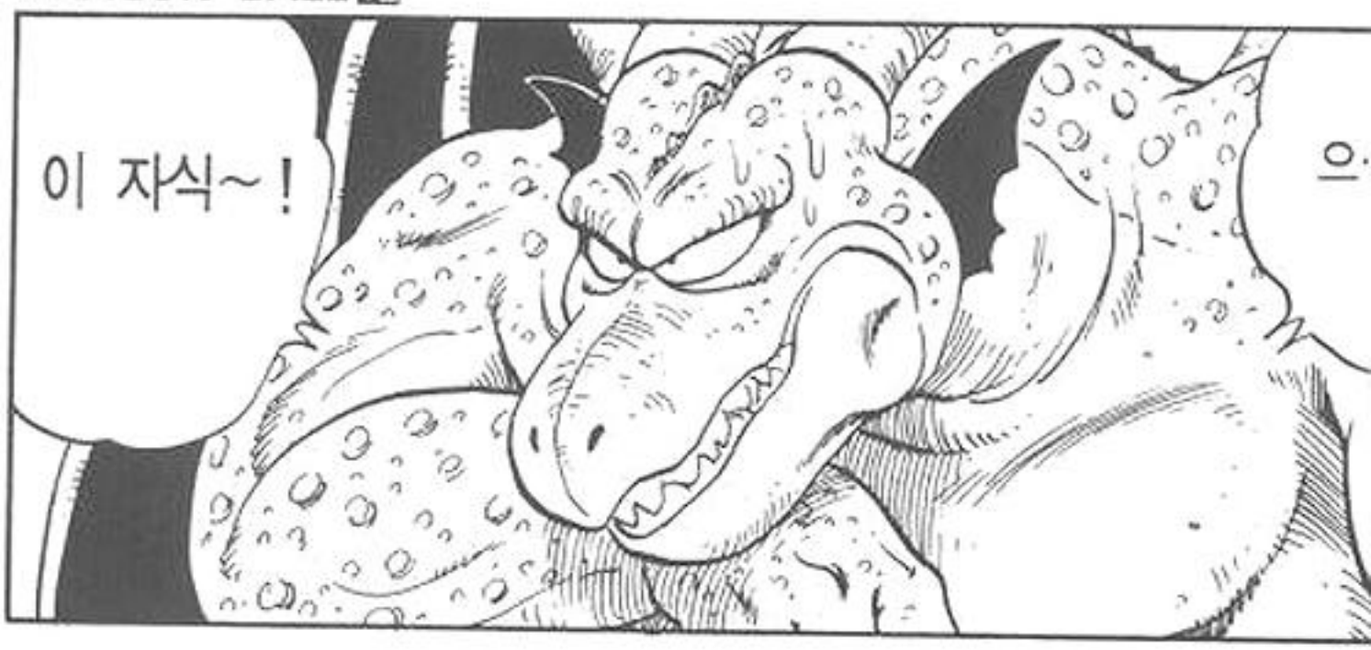

벌
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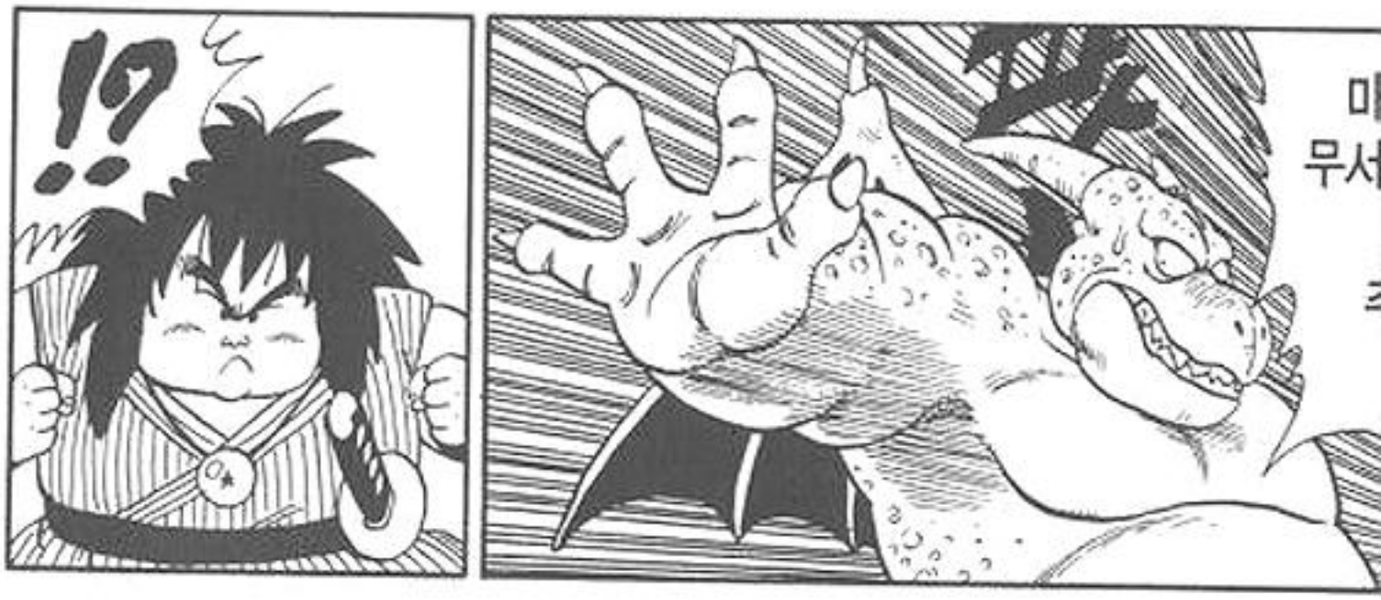

히히
….


헹!
멧집이
좋은
꼬마로군….
호호…
살
있었구나…


날로는
못먹을
거 같고.
구워
먹을까…?


뭐야,
또 덤빌래?
퍼억!!
얍!!
비틀
큭!


이 자식~!


!?


우왓!

파파

빠지지

으라차차!!

제길~! 뭐야, 저놈! 이상한 번개를 발사하다니…!

내가 도와줄까?

탁

하하하! 맛이 어떠냐!? 겁나지?

좋아! 운동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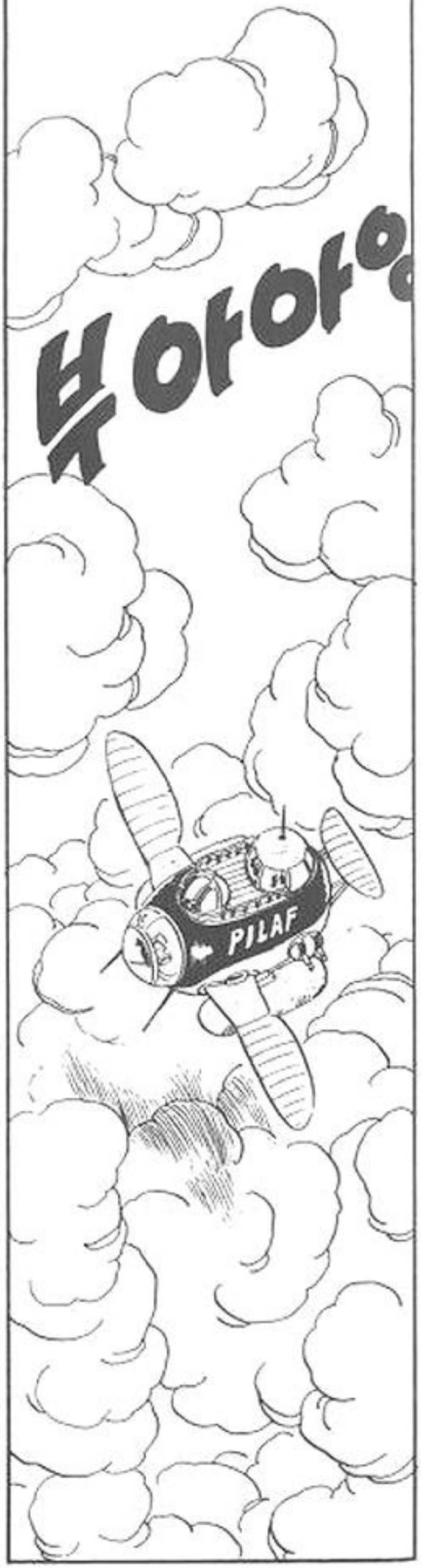
시꺼! 식사 전에 운동한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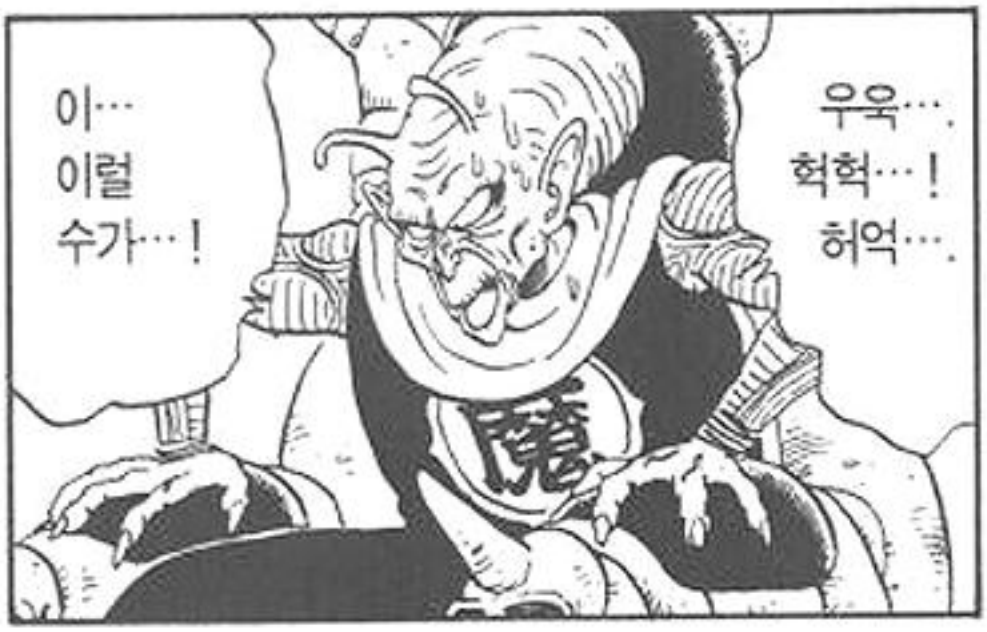

타닥
아직도
까불래 ?



…어어?
…?
탁
씨익
와~!
주…,
죽여준다.




PILAF


이…
이럴
수가…!
우욱….
헉헉…!
허억….


왜, 왜
그러십니까?
대마왕님….

어…
어떻게
이럴 수가…!
말도 안 돼….

심…
심벌이
죽었다….

마…, 말도
안 되죠….

서…, 설마
이 세상에 우리
마족의 전사를
쓰러뜨릴 정도의
실력을 가진
녀석이 있다니….

지글 지글

이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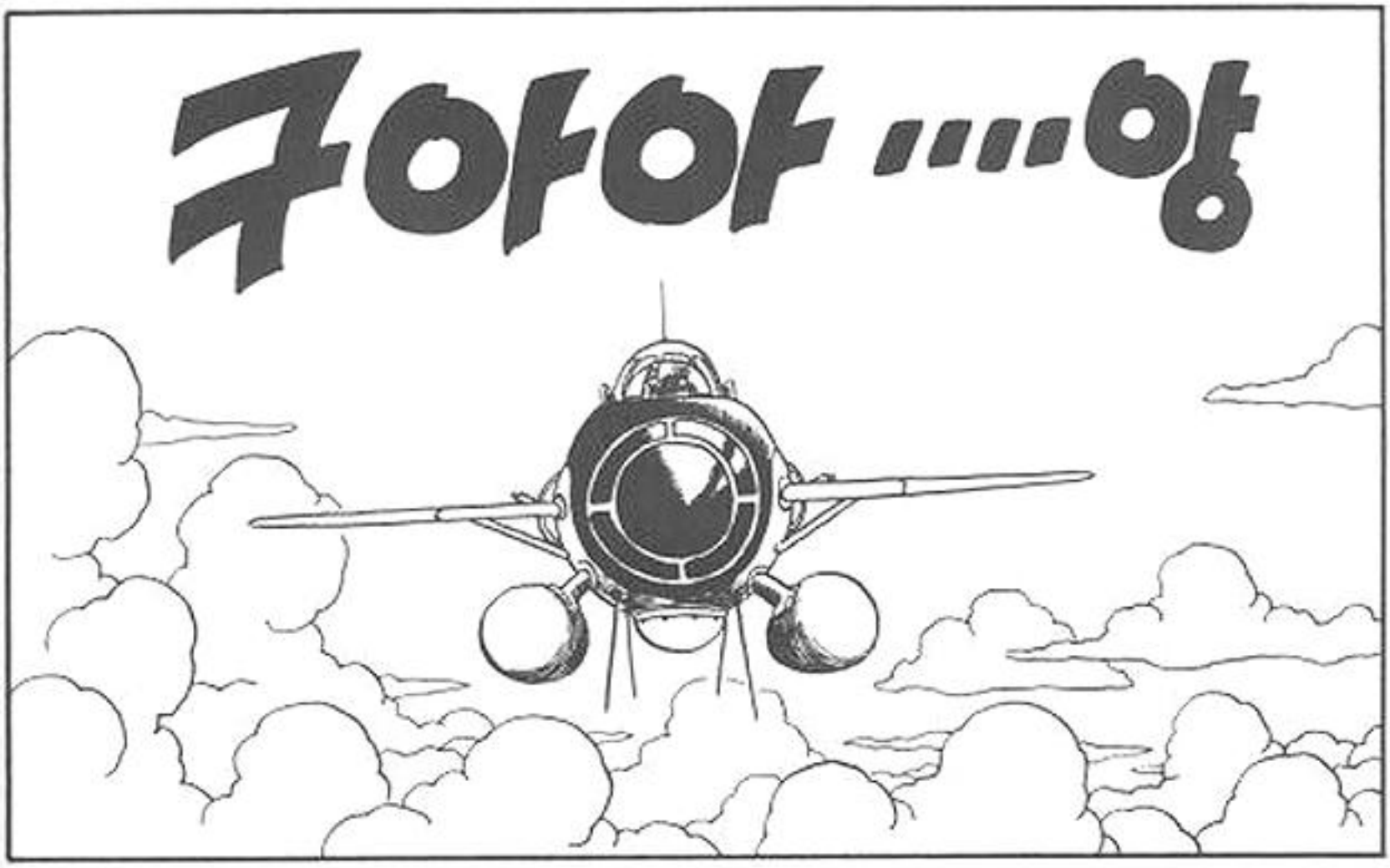








다음은, 제140화 탬버린의 습격!


구아아 …….앙


그렇다면 결국
이 드래곤 볼을
갖고 있는
어떤 놈에게
죽었단 얘긴데….
내 부하
심벌은
이 드래곤 볼을
찾으러 갔다가
죽었다….
魔

그… 그렇게 대단한 놈은 없을 거예요! 분명히 뭔가 착오가….

그… 그래요.

예, 맞아요….

이 세상에 우리 마족의 전사를 쓰러뜨릴 수 있을 만한 놈은 절대 없습니다….

그… 그렇지만 대마왕님….

히이이익!

그럼 도대체 왜 죽었다는 거야!? 설명해봐!

어디 두고 보자! 매운 맛을 보여주마…!

어떤 놈인지 모르지만, 나 피콜로 대마왕한테 까불다니….

탬버린을
불러와!
그를 해결사로
보내야겠다….






파앙
쎄익…
제, 제길~! 이놈이…!
크흐흐! 왜 그래? 너도 겨우 그 정도냐…?
으아아….
저럴 수가…! 조폭 기란이 완전 떡이 됐어….
저… 저놈은 도대체 누구지…?

박살을 내주마! 각오해라, 이놈!

어… 어떤 놈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짓을 하고도 무사히 돌아갈 줄 알면 큰 착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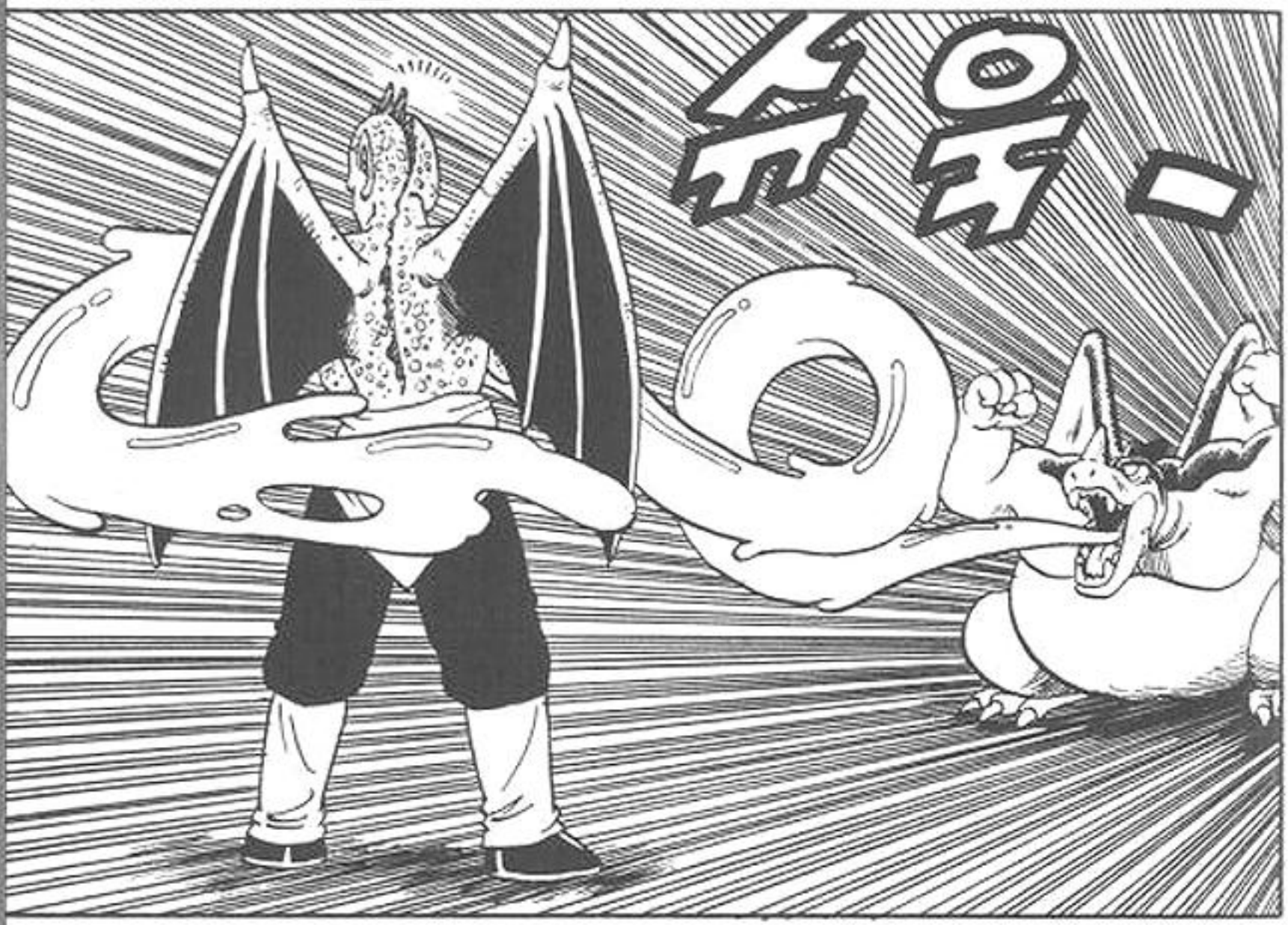
나 기란을 우습게 보지 마셔.

히히히…

빙글빙글 칭칭껌을 받아라!

개그 한 번 재미있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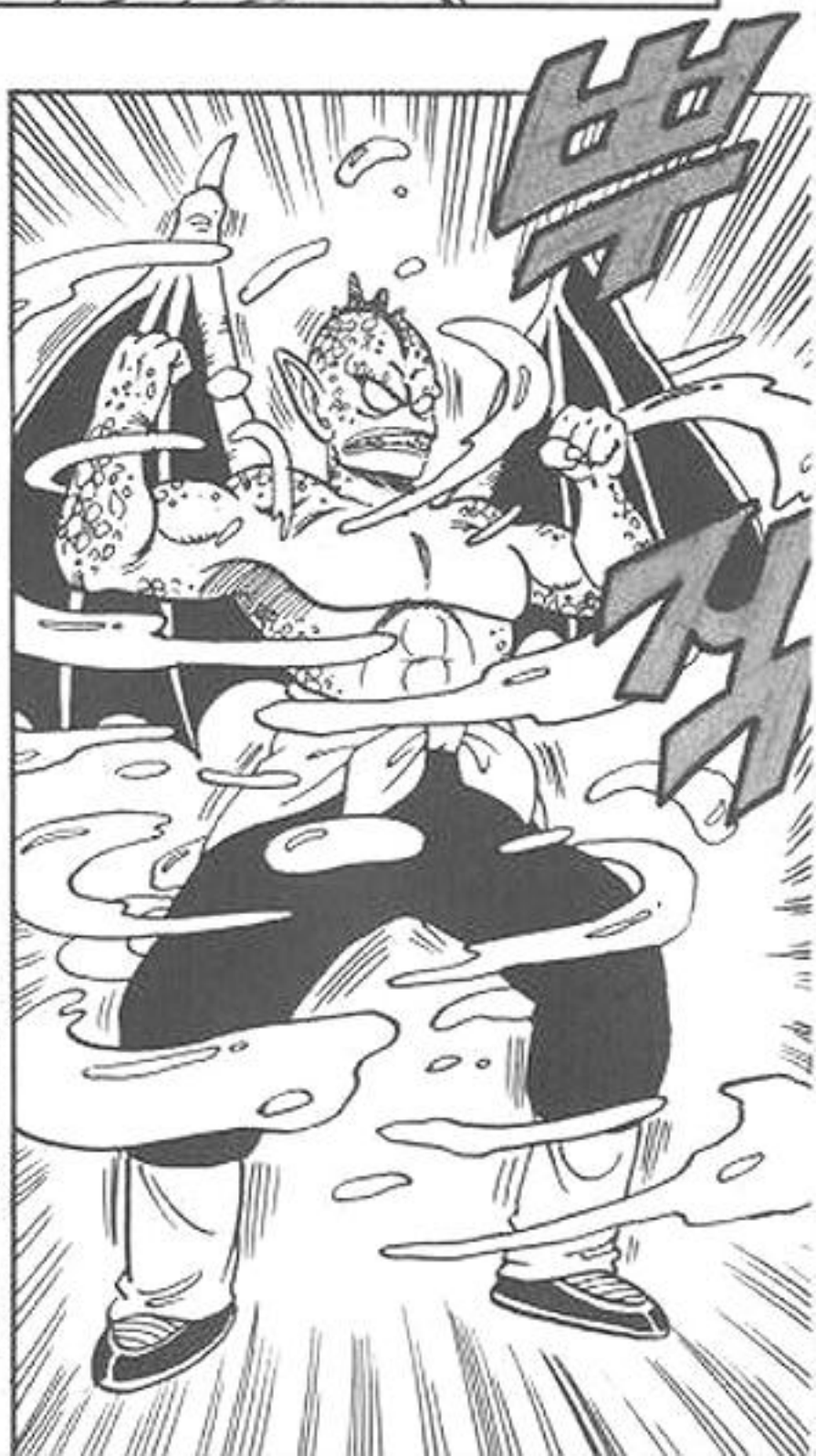
이 세상에 나를 죽일 수 있는 놈은 없어.


이게 뭐
어쨌다는
거지?
흥…!
어떠냐?
움직일 수
없지!?
으하하하!
허풍
떨지 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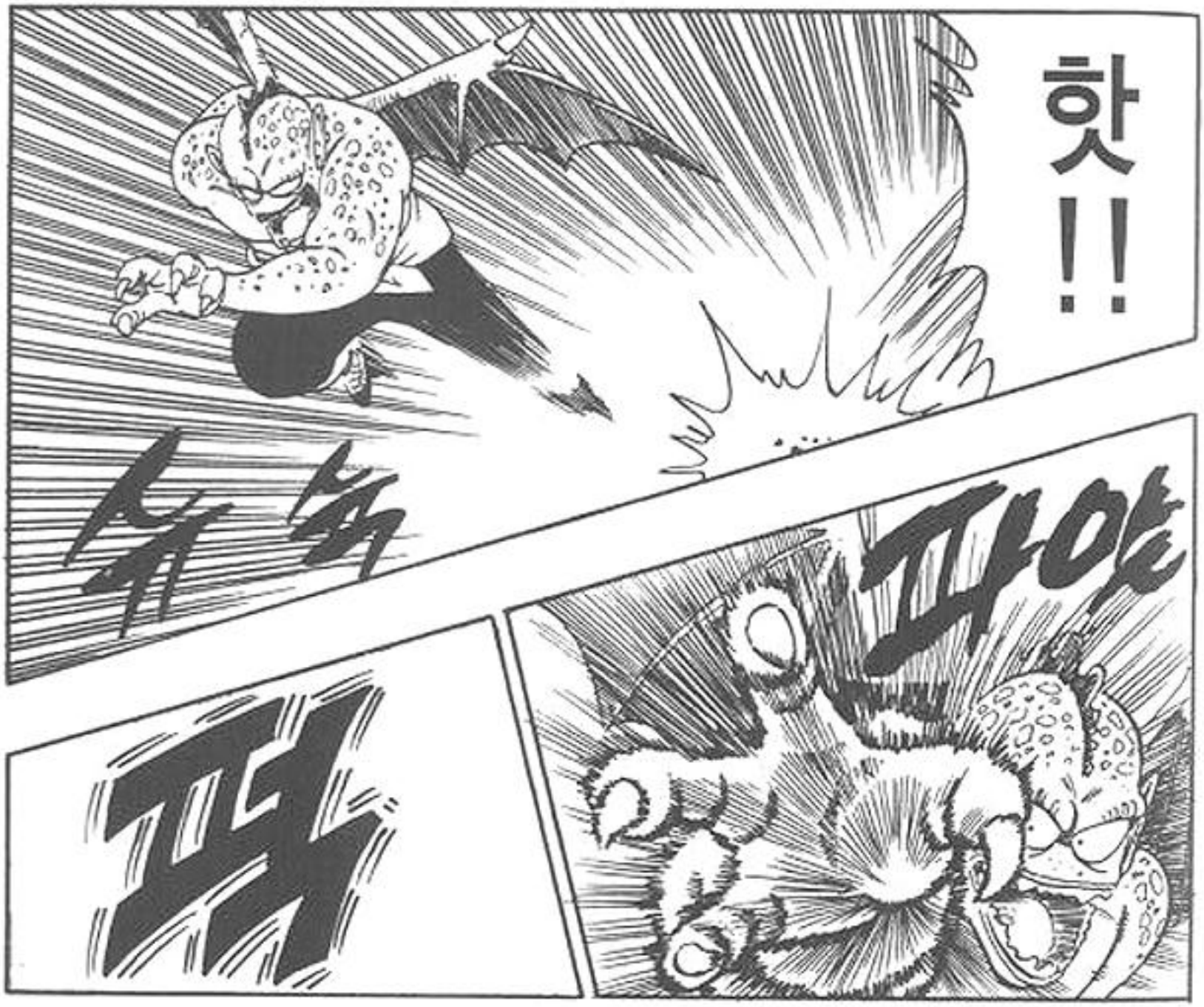

글쎄~?
오호…!


끙!!




뱌


그렇다면
난 예상대로
널 사라지게
해줄까…?
하하하…!
예상이
빗나간
모양인데.


핫!!
쉬쉬
파앗
퍽


엄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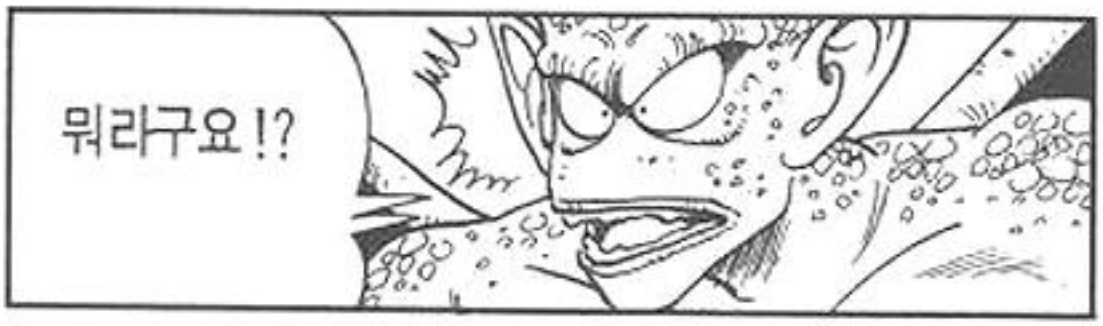


슥....
털썩
낼름
여섯 마리째 끝냈군!
찌익
기란
일곱 마리째 목표는….
오~! 이 녀석으로 할까…?
야무치
NBI 8250012
팟
하하핫!


아, 예!
대마왕님!
탬버린!
탬버린!


그러나
이쪽은
좋지 않은
소식이
있다….
좋아,
좋아!
잘 하고
있어.


이미
여섯 마리째
처치하고,
이제
일곱 번
째를….
이쪽은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라구요!?


드래곤 볼을
찾으러 갔던
심벌이 당한
것 같아.


너는 심벌보다도
몇 배나 강하지만,
절대 방심하지
말아라.
상대의 실력을
파악하지
못했으니까….
즉시 가서
심벌을
죽인 놈을
처치하고
와라!
장소를
가르쳐
주마….

장소는 WSC의 2933….

야, 야! 저 녀석 이상한데…. 혼자 중얼중얼 거리고….

텔레파시예요, 텔레파시.

알았습니다, 즉시!

휘이

원인을 찾아내 해결하겠습니다!

우와~! 이거 정말 맛있었다~.

더 먹고 싶은걸. 배가 아직 다 안 찼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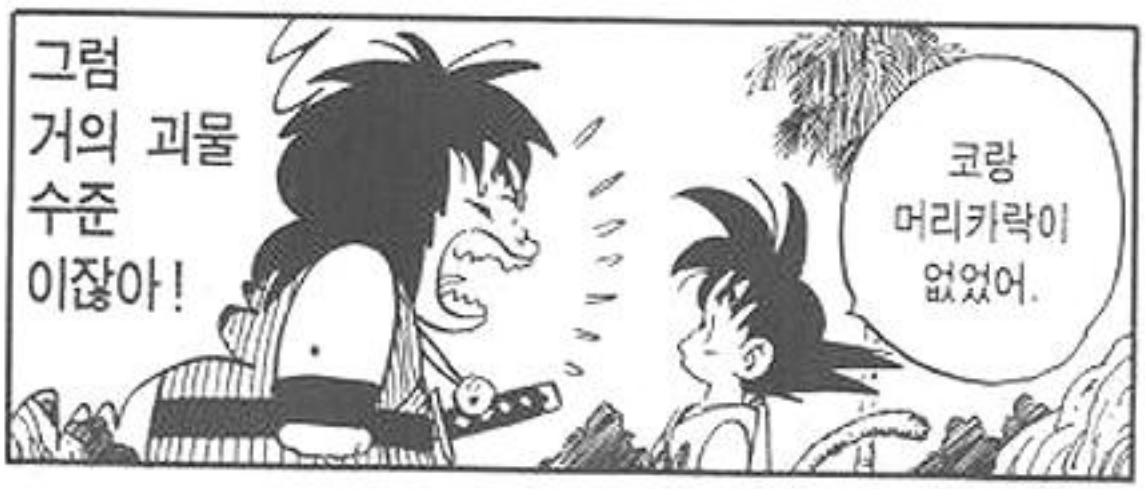
아마 또 먹을 수 있을 거야.


야지로베가
그 드래곤 볼을
갖고 있으면
상대 쪽에서
찾아올 거야.


또 먹을 수
있다고?
그걸 네가
어떻게 아니?
지금까지
이런 놈은
본 적도
없는데!


방금
반말하지
말라고
했지!?
야지로베,
네 목소리는
꼭 죽은
내 친구 크리링
목소리 같다.


야지로베
님이라고 해!
알았어?
얌마,
아무래도
좋지만
함부로 반말
하지 마.


그럼
거의 괴물
수준
이잖아!
코랑
머리카락이
없었어.


…그런데, 그 크리링
뭔가하는 놈도
나처럼 엄청
멋있었나 보지?
목소리가 닮으면
얼굴도 닮는다던데.


그럼
또 만나자!
얼른
꺼져!
이젠 됐어.
난 너 같은 애를
상대할 만큼
한가한 몸이
아니라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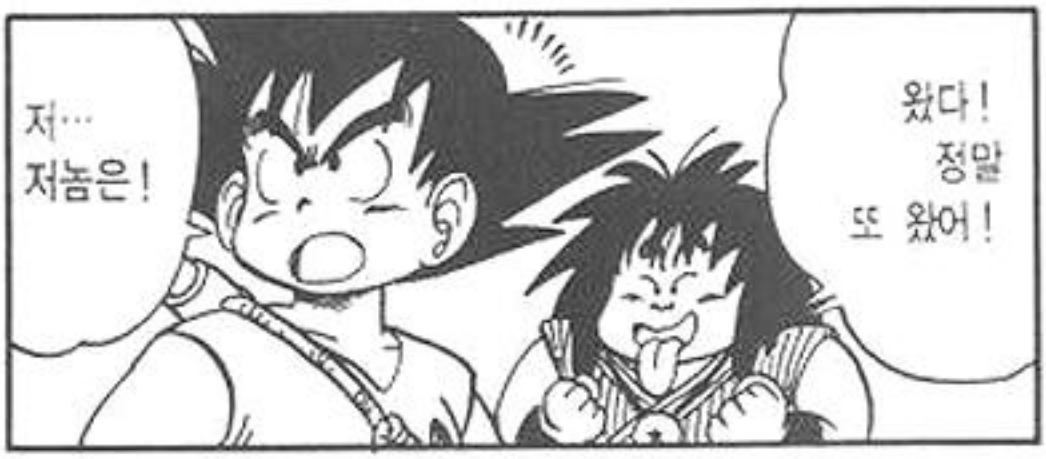

크리링을
살려내려면
그 드래곤 볼을
모아야 해.
그 볼도 그때
좀 빌려줘.
난 다신
널 만나고
싶지 않아.
흥!
헛소리 마!


드래곤 볼
이란 건데,
일곱 개를
모두 모으면….


대체
이 구슬이
원데 그러지?
난 전혀
이해를
못하겠어…!
아니,
잠깐!


이 근처
인데….
파
파
닥
닥


어?
어?
엇?


저…
저놈은!
왔다!
정말
또 왔어!













다음은, 제141화 손오공의 분노 폭발!!

살아
있었냐?

너….

절대
용서
못한다!

크리링의 원수!
그리고 내 드래곤 볼을
훔쳐간 도둑놈!

알았지?
놓치면
안 돼!

내 말 기억해,
손오공!
처치한 뒤에
내가 먹을게!

너-!
누가 젖먹이
꼬마라고…!

한심한 녀석이군!
이런 젖먹이
어린 꼬마들에게
당하다니!

으하하하!
그래, 심벌을
해치운 놈들이
너희들이구나!

어제의 내가 아니야, 좀 다르다구!

배 터지게 밥을 먹었걸랑.

어제는 형편없이 당했던 녀석이 죽으려고 기를 쓰는군.

크흐흐! 내게 또 덤빌 거냐?

각오하셔!

말 안 해도 실컷 보여줄 거야!

호오~! 어떻게 다른지 좀 보여 주실까?

왜 그래? 말로만 열심히 허풍떨 거냐?

자, 와라!

잘 봐라, 크리링…!


PAK
OK
얏!!
!!


이게 뭐야!?
앗!!

휘익

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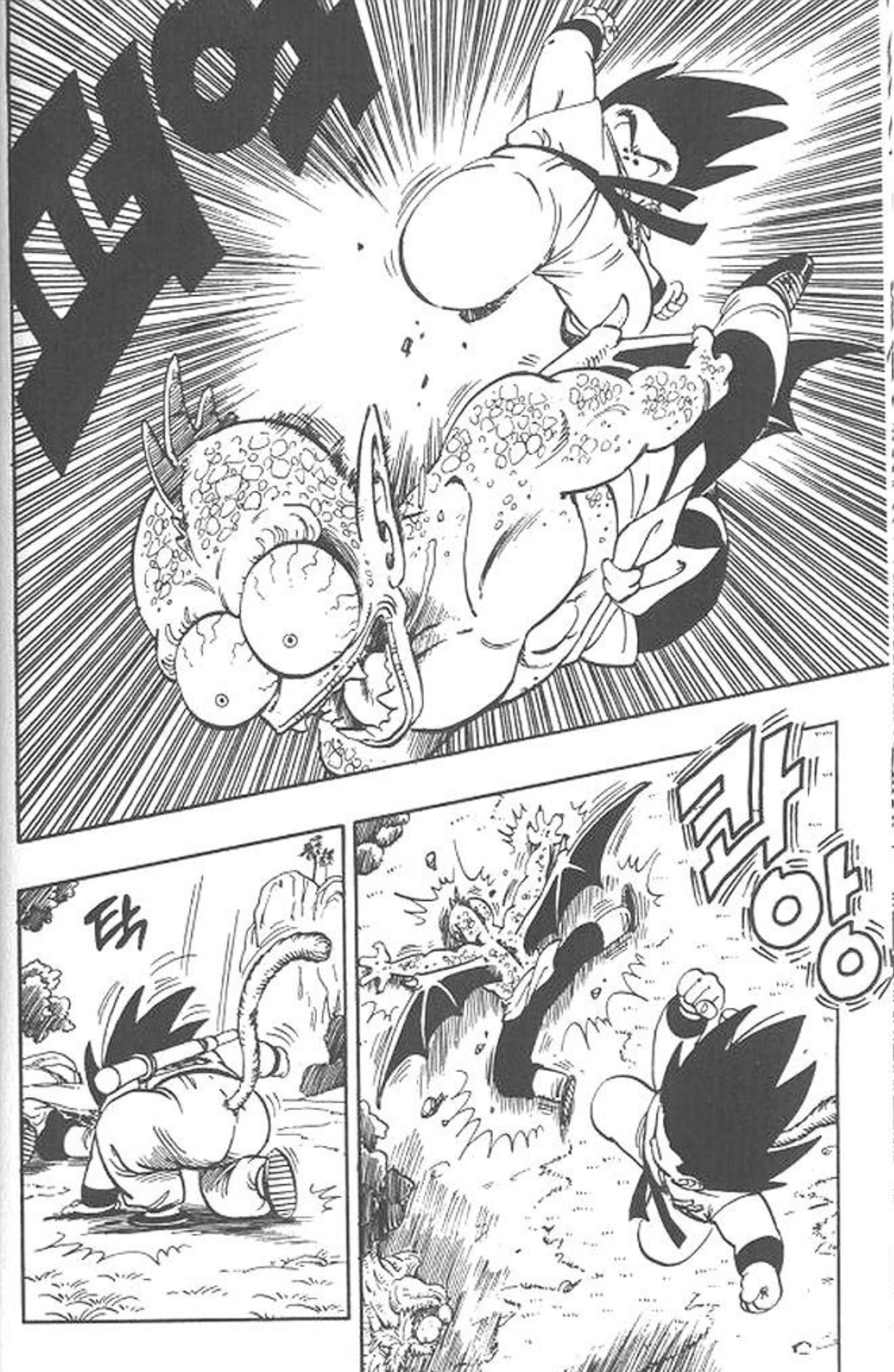
이야아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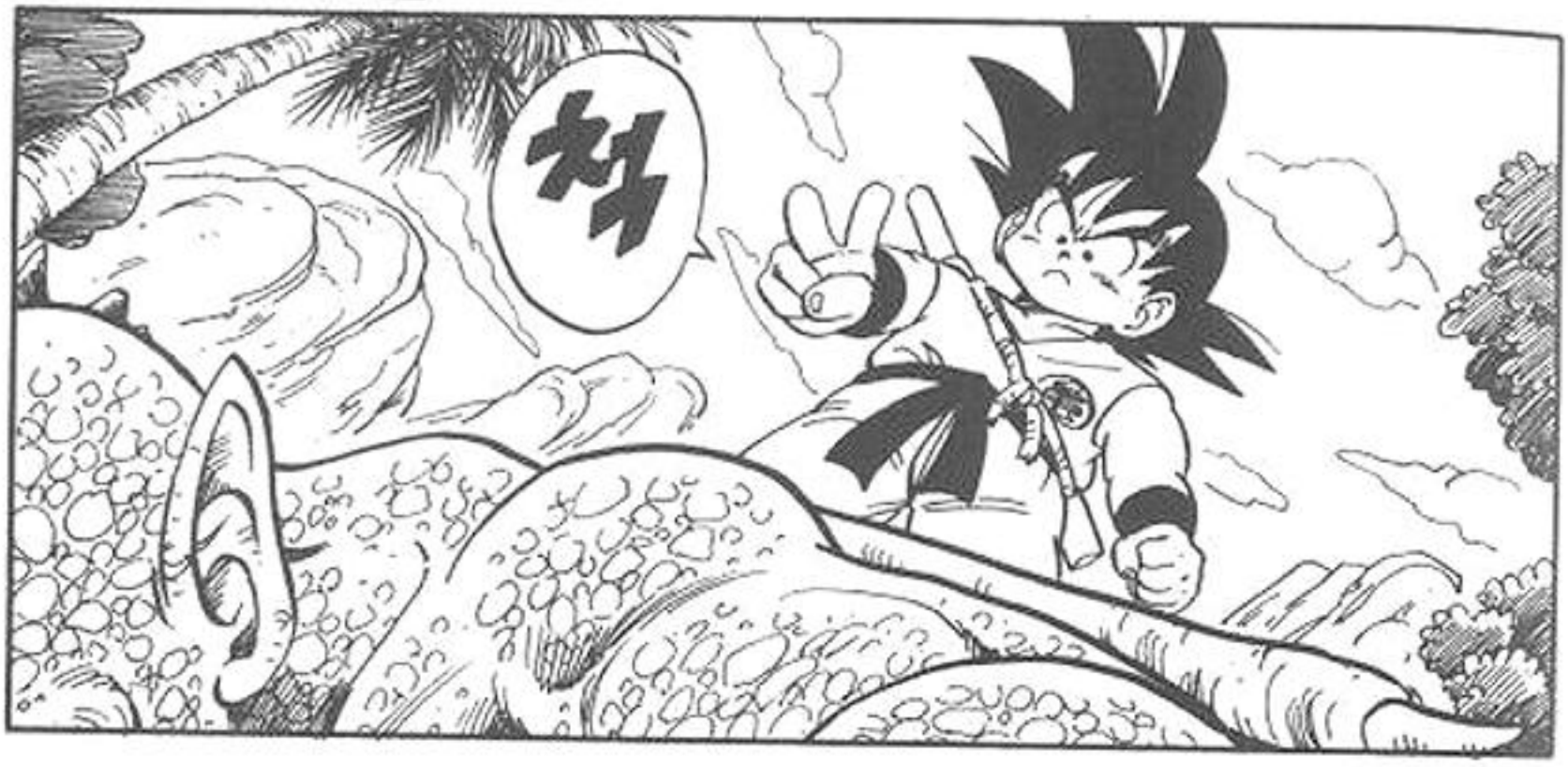





핫!!



콰아아
탁


척


저 녀석…,
성질
안 건드리는 게
좋겠다….
……


어?
끈질긴
놈이네.


으…,
이놈…!
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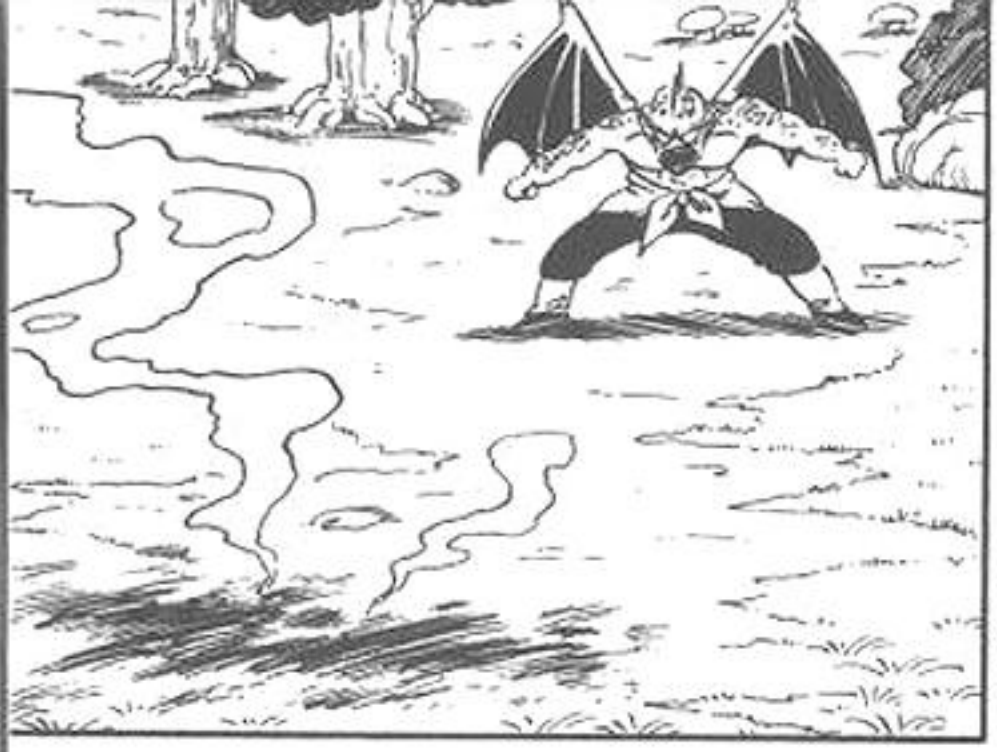

인간 따위에게
질 리가
없어…!
이, 이럴 수가!
나 같은 마족의
전사가…!




와드




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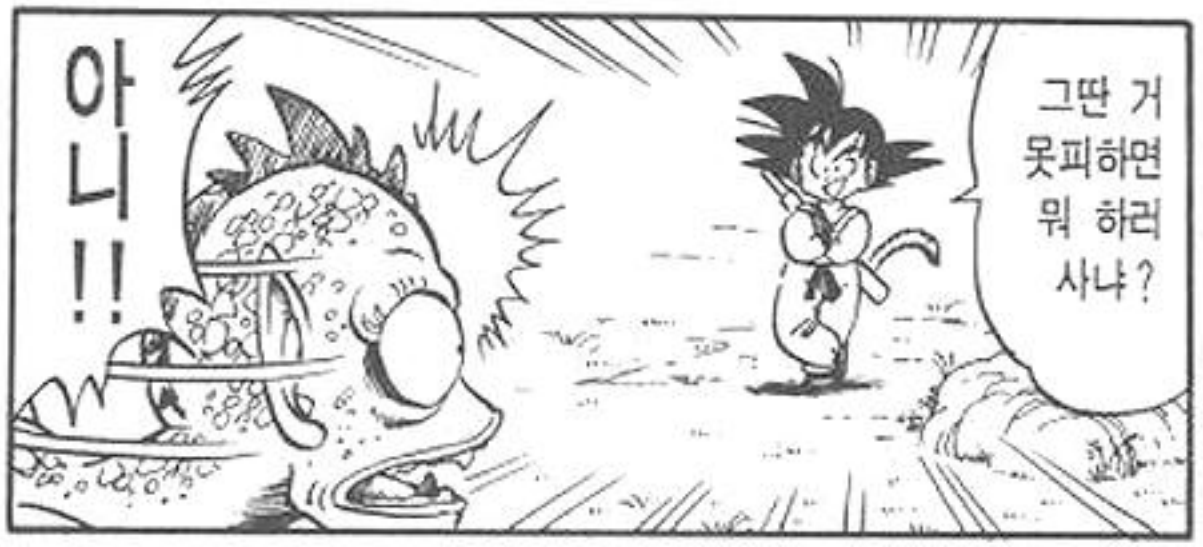




말했지?
우리 마족이
질 리가
없다고!



으하하하!
바보 같은 놈!
흔적도 없이
사라졌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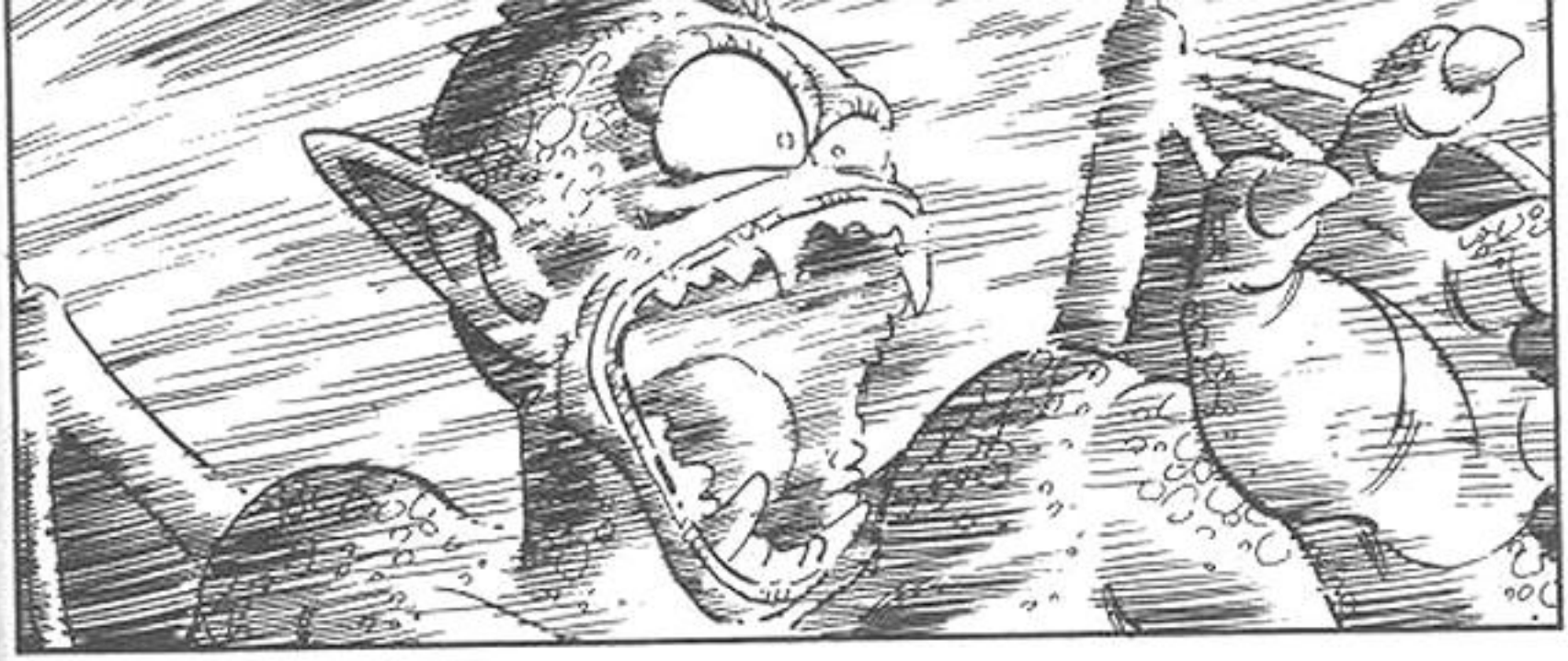







파박
야!
놓치지 마!!
사삭
늘어나라, 여의봉!
앗!!
KOM


에….
네….
르….
기….
타악
쑥
엑!?
파!!




아아아!!!


PILAF




크으으
으으…!
대,
대마왕님!
뭐야?
왜 저래?


서…,
설마…!

도… 도대체
저 땅에는
어떤 놈이
있는 거냐…!?

주…,
죽었다…!
탬버린까지…!

고… 고질라
같은 거
아닐까….

세… 세상엔
엄청난 놈들이
많구나….

태…,
탬버린이
…!?

처치할
테다!!

이
대마왕이
직접….

이 비행선을
탬버린과 심벌이
당한 장소로
옮겨라.

예!?

미…
미안….
깜박
잊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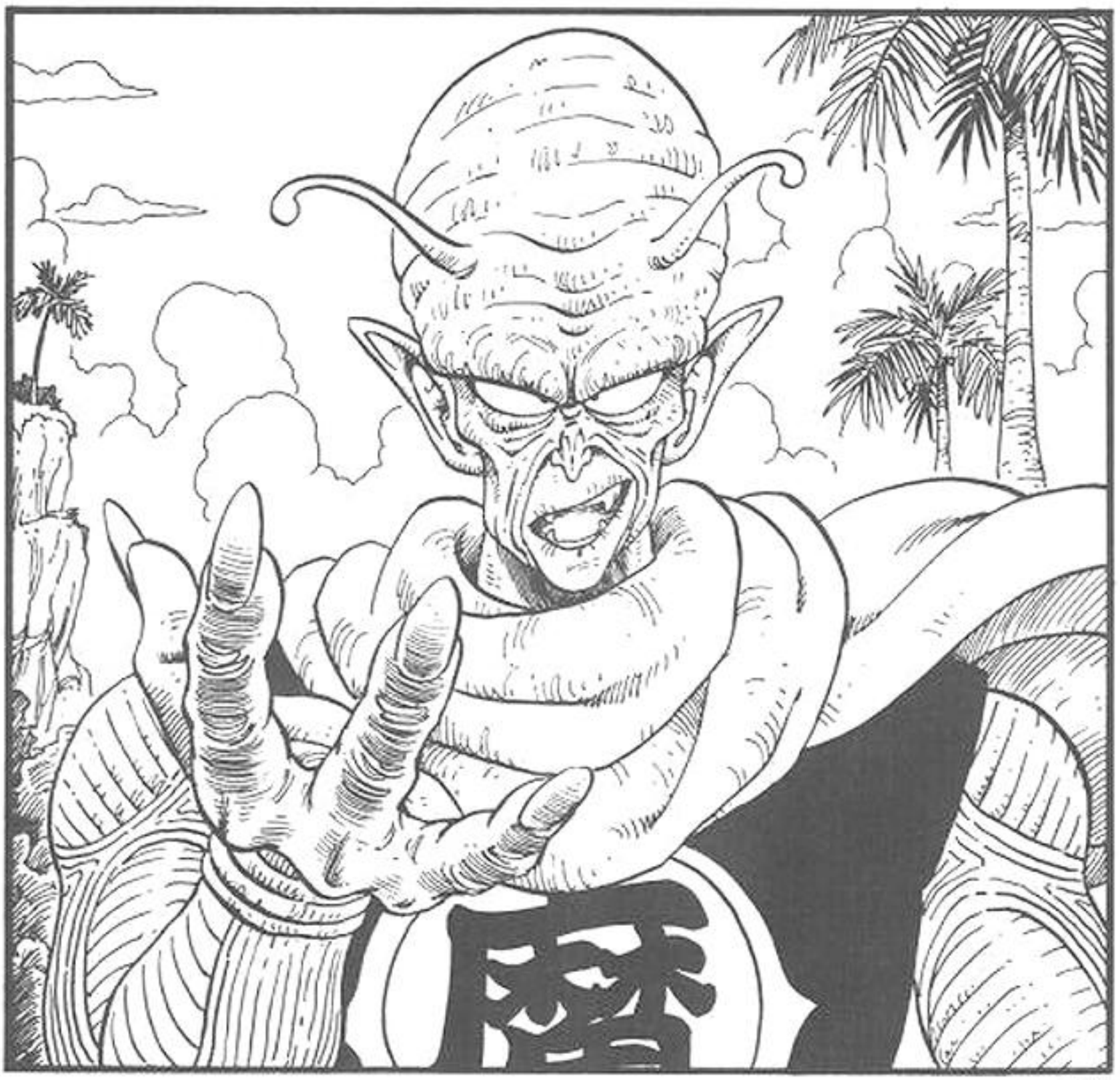
약속해
놓고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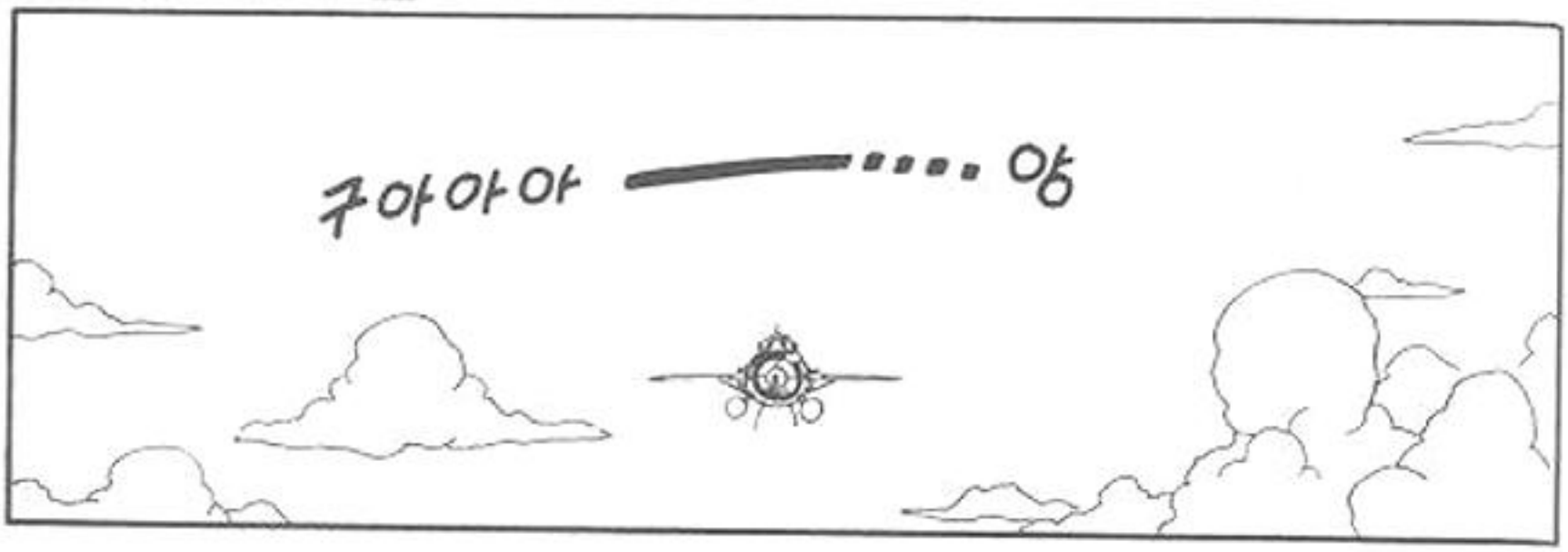
저렇게 먼지로
만들어 버리면
먹을 수가
없잖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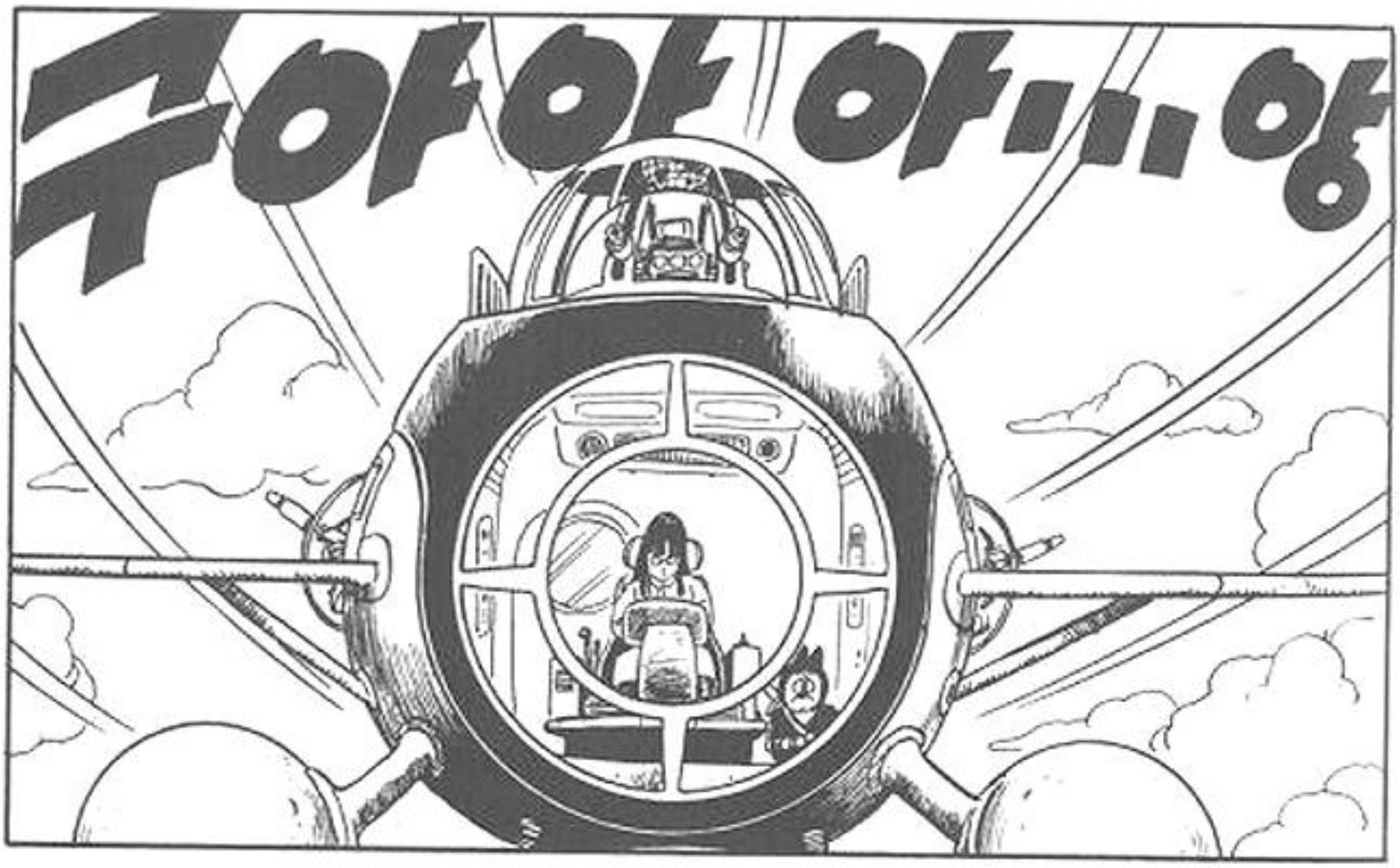
너 빨리
물어내!

DRAGON BALL

제142화 피콜로 대마왕 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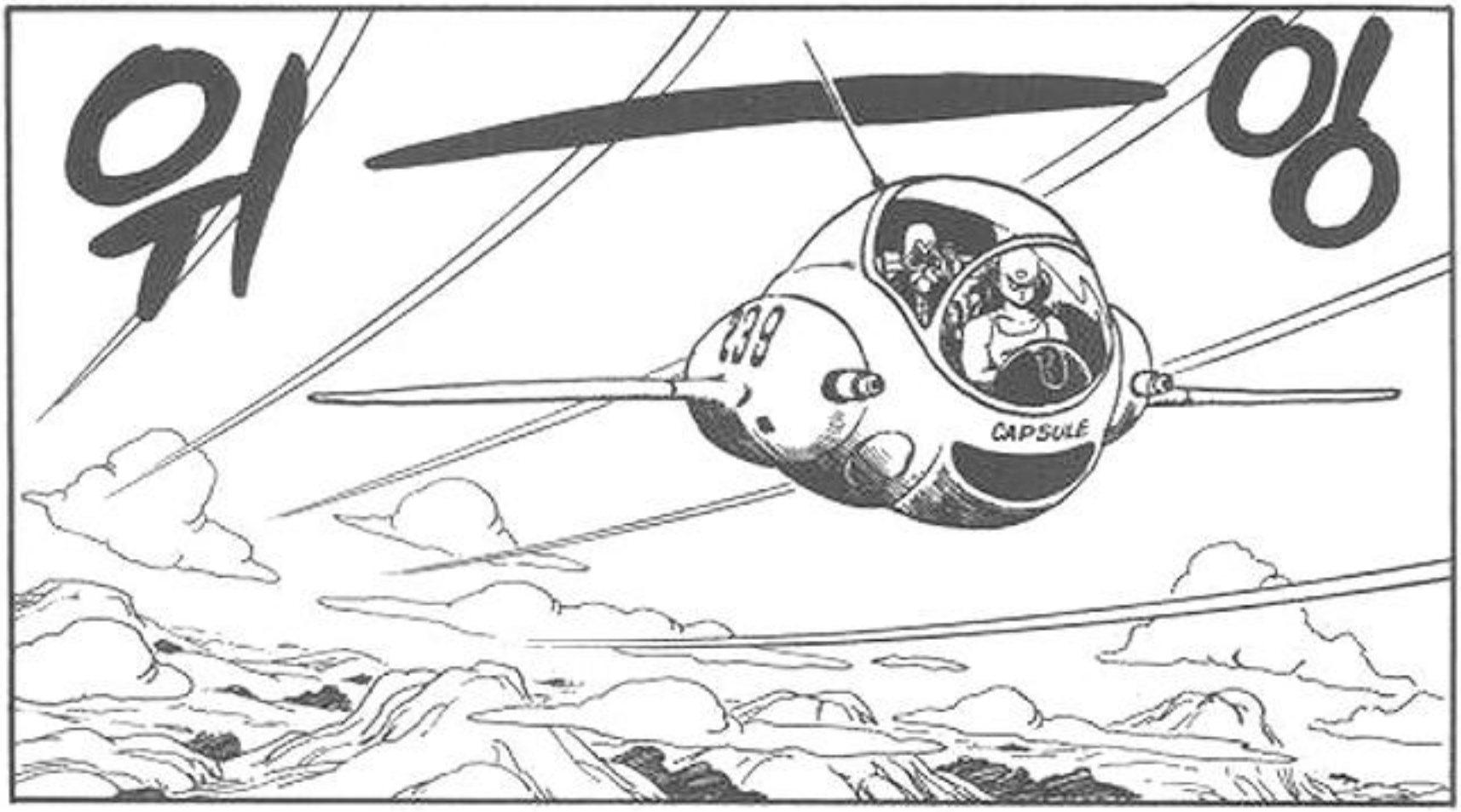



구아아아 ——…양


구아아아…양


어떤 놈인지
모르겠다만
두고 보자…!
이 피콜로가 직접
마왕의 공포를
듬뿍 맛보게
해줄 테다!
고통을
무릅쓰고 만든
내 전사를
둘씩이나
죽이다니…!


어라…?
무슨 일이지?
아… 아뇨. 아까 저쪽에서 비치던 구슬이….
이상해….
삐빡
위잉잉
위잉…
앗!!
네 개의 드래곤 볼 반응이 모여 있다!
게다가 이쪽을 향해 곧장 움직이고 있잖아!!
…그렇다면 우리 말고도 드래곤 볼을 모으는 놈이 있다는 얘긴가?
그, 그렇습니다! 어떡하죠!?


워
잉
239
CAPSULE


무술가를 없애는데 더 힘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기란도 당했잖아….
아무래도 녀석들은 드래곤 볼을 모으는 쪽은 크게 신경쓰지 않나 봐….


으음….
지금까진 힘들이지 않고 쉽게 드래곤 볼 네 개를 모을 수 있었군요….


어떻게든 빈틈을 찔러 구슬을 빼앗은 다음 용신에게 부탁할 수밖에 없겠지….
그러나 정면대결로는 절대 승산이 없어!
대마왕을 없애 달라고….


그렇다면 드디어 녀석과 대결하게 되는군….
어차피 그건 피할 수 없는 일이지만….


혹시 지금 향하고 있는 다섯 개째의 볼은 피콜로 대마왕의 부하가 크리링을 죽이고 빼앗아간 것일지도….

우리들이 한 타스로 덤벼도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거야….

네 마음은 이해해! 그러나 상대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너무 강해….

난 싸워서 이기고 싶은데…!

그런 소극적인 방법밖에 없나요?

드래곤 볼은 1년 지나면 또 모을 수 있다고 했어. 크리링과 다른 사람들은 그때 다시 살리면 되고….

용신이 대마왕을 처치해 주면 이제 세계의 위기는 사라진다.

마, 만약 실패해서 우리가 당하게 되면 이 세상은 끝장이라구! 야무치 혼자서 싸우란 소리야…?

바… 바보 같은 생각하지 마!

…마봉파만 쓸 수 있다면….


이 반응은…, 역시 무천도사 님은 마봉파의 정체를 알고 있어….
알았습니다….


한 개는 바로 내가 갖고 있으니까.
괜한 걱정 마라. 그걸 모은다는 건 불가능해.


이놈들이 먼저 드래곤 볼을 모으면 …!
어, 어떡하죠!?


오히려 우리는 더 편하지. 앉아서 기다리다 나중에 다 모았을 때 빼앗으면 되니까.
누군지 모르지만, 그 녀석들한테 모으게 놔두면 돼!
그… 그런가?


심벌과 탬버린을 죽인 녀석들한테 복수를 하는 게 먼저다!
그보다도 ….

야, 그럼 다음에 또 그런 괴물을 해치우면 나한테 가져와서 먹게 해줘. 대신 구슬을 줄 테니까.

찰찰찰

어라…?

알았지? 듣고 있냐, 손오공?

바로 이 근처야!

바로 여기에 드래곤 볼이 와 있어!!

뭐~?

왔다!!

뭐야? 뭐가 왔다고?

아무 것도 없는데?

앗!!


위다!!
에엑! 저게 뭐야!

피콜로 대마왕님!
목적지 상공에
도착했습니다.

PLAF

아!

아니, 아니야!
그건 외부
스피커 스위치다.

엥!?

피콜로
대마왕님!
목적지 상공에
도착했습니다!


그놈이
드래곤 볼을
모으고 있는
괴물들의
두목이구나!
알았다~!




아주
옛날에….
들은 적이
있는 이름
인데….


생각
났다!!


뭐?
아, 아!
손오공!
이, 이 구슬
너 줄게!


MOM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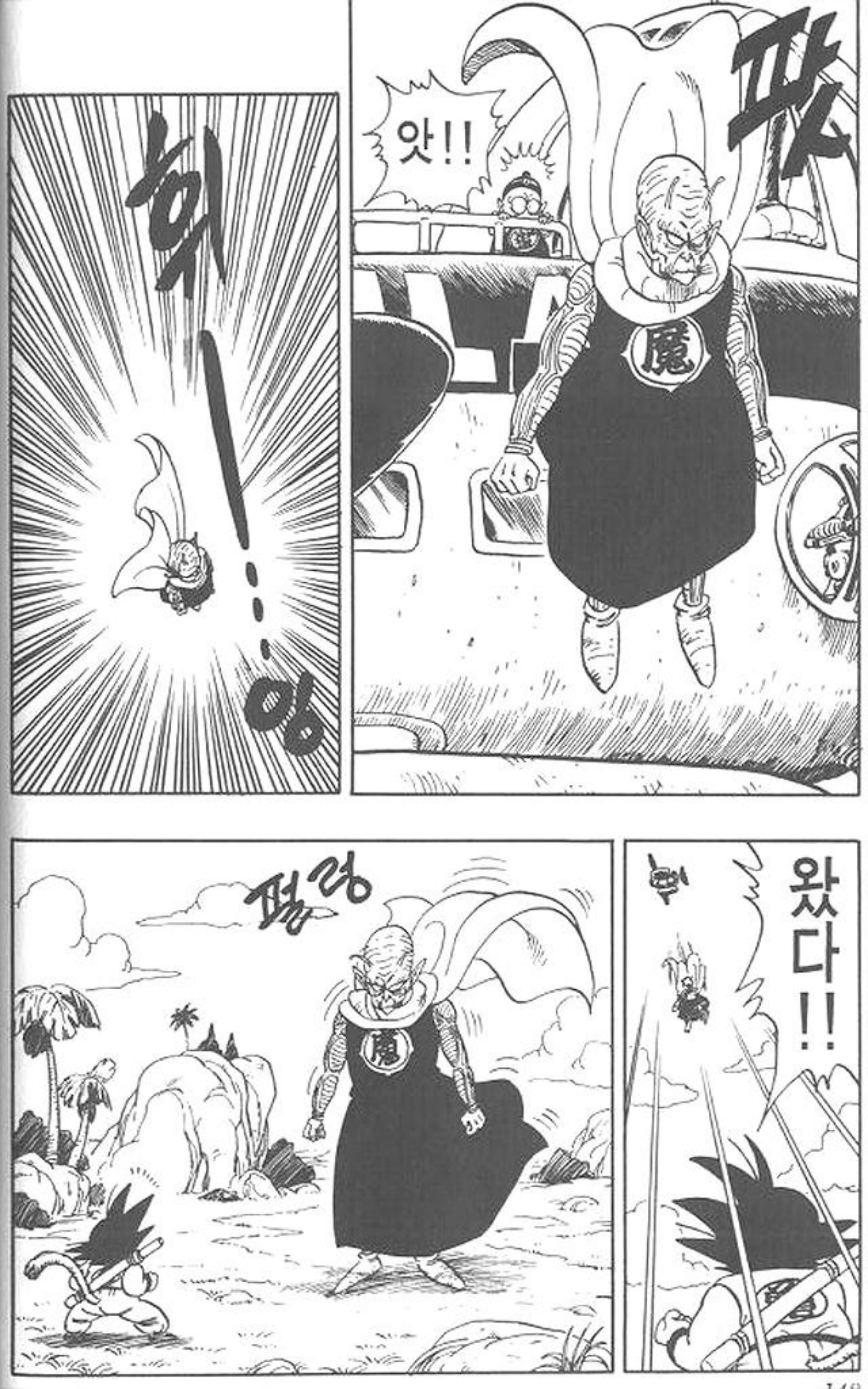

나,
나 지금
배터져!
갑자기 왜 그래?
괜찮겠어?
두목도 맛있을지
모르는데.


아깐 부족하다고 해놓고?
안녕~!
후다~~~닥
……
정말 이상한 애야….
어쨌든 좋아!
척
앗, 저기 뭔가 있는데요!
저, 저놈한테 당했나봐요! 잠시 기다리세요! 곧 착륙할 테니…!
일부러 착륙할 필요까진 없다….


처… 처치
했다고
했는데…!
아… 아니…!
저놈이잖아…!


꼬, 꼬마지만
엄청 대단한
놈이에요…!
하, 항상 우리
드래곤 볼 수집을
방해하던
놈입니다!
누군데?


이 멍청한
놈들!
아님
내 마력이
그 정도까지
떨어졌단
말이냐…!!
저런
땅콩만한
꼬마놈에게
당하다니,
마족의 수치다!
크흐흐…
그럼 심벌과
탬버린을 죽인 게
저놈이란 말이지…?



앗!!
쨔
휘
왔다!!
펄렁

야! 네가 크리링을 죽이고 내 드래곤 볼을 훔쳐간 놈의 두목이냐!?

과연….

거기 또 하나의 드래곤 볼도 갖고 있군…

魔

저, 정말 피콜로 대마왕 같아…!

되살아 났네!?

패 무술이 뛰어난 것 같은데….

내가 보낸 전사를 둘이나 처치하다니….

너도 없애주마!

우선 드래곤 볼이나 내놔!

너 같은 거
내가 어떻게
알아!!

하긴 무리도
아니지.
많은 세월이
흘렀으니까….

하하하! 그래,
이 피콜로 대마왕님의
무서움을 잘
모르는구나!

너 같이
개미 똥만한
꼬마라도 말야…,
흐흐흐….

난 무술가만
보면 무조건
죽이고 싶어지지….

손오공 녀석,
이제 죽었다….

닥쳐!
이
밥맛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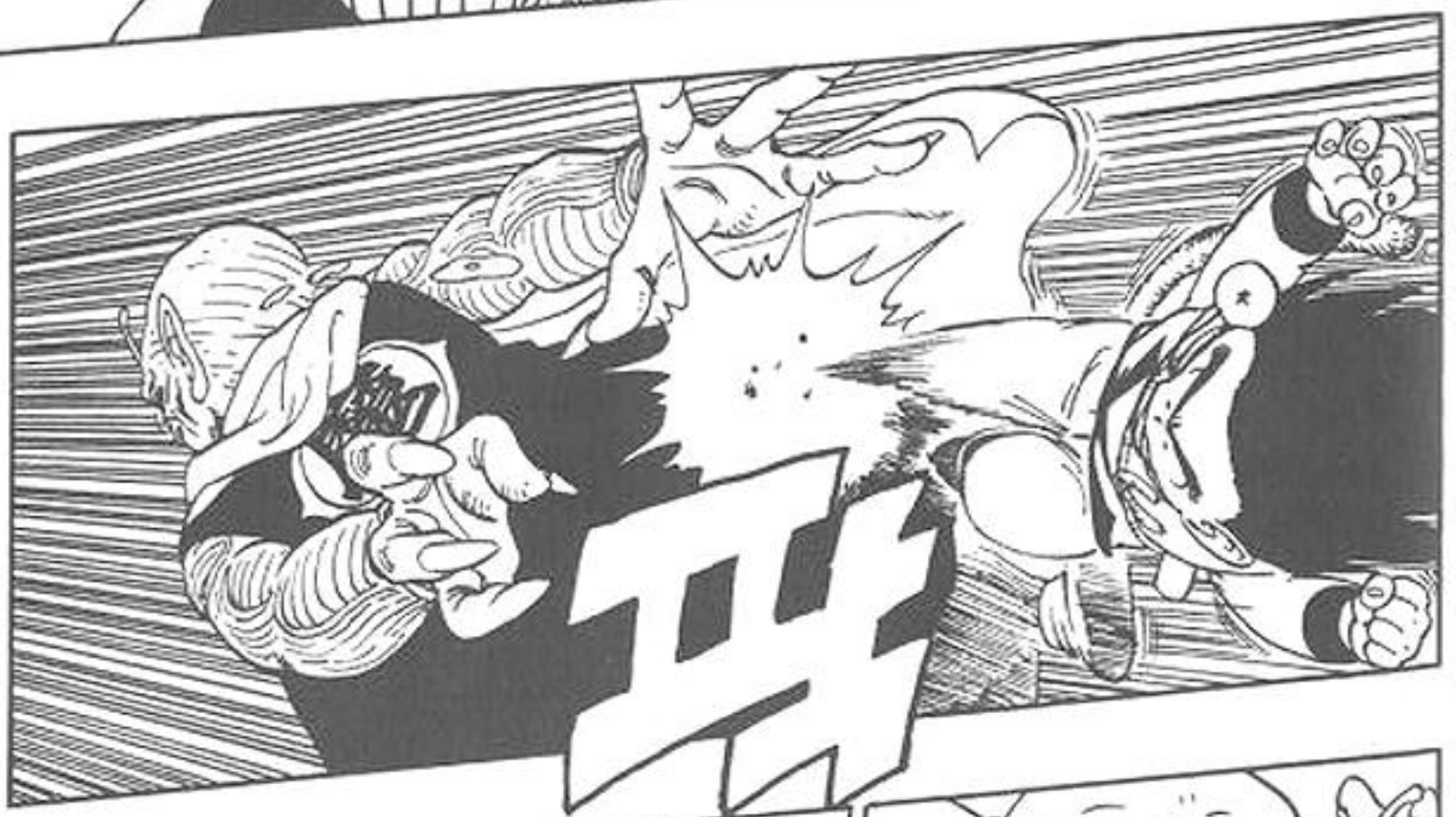
DRAGON BALL

제143화 손오공 대 피콜로 대마왕




이야아압!!
!!
빠르다!!
파아
헤아


퍽


퍽


퍽





뉘이익
파팟


!!
파아
!!
아








도, 도망치자!
저, 저 꼬마가
더 괴물이잖아!


피콜로
대마왕과
정면대결
하다니…!
무… 무서운
놈이네…!
대단해…!!


흥!
대마왕님이
저 정도에
당할 줄
아냐?


당황
하지 마!


과연….
그 정도 솜씨면
내 부하가 쪽도
못썼겠어….
내… 내 등을
땅에 닿게 하는
놈이 이 세상에
있을 줄이야….


당연히….
너 같은
놈은….




파ㅊ
사라져
줘야 해!

흥이다!!

그런 옷 입었다고 뭐가 달라지냐!?

잘 봐라! 이 피콜로 대마왕님의 위력을!

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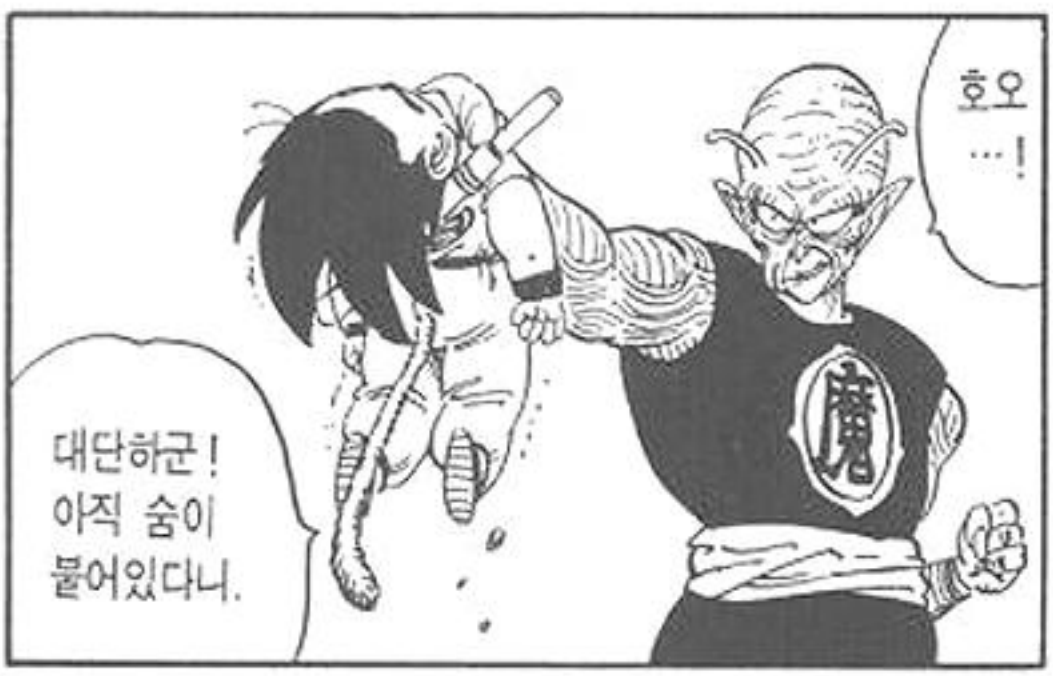
씨익


파팟
으아아아…!
히야아앗!!



쾌앙
퍼억
탁


으… !!


호오 … !
대단하군! 아직 숨이 붙어있다니.




퍽


다…, 당근이지….


아…
아….
꽈악
큭!
덜썩
사사삭
헉
헉헉
크흐흐…!
아직
도망갈 힘이
남아 있다니….

지…, 질렸다….
저놈…,
보통 강한 게
아니야….
스피드도 파워도
나랑은 상대가
안 돼….

비틀
비틀

OO….

난 아직
내 힘의 절반도
쓰지 않았거든.
이거 심심한걸….
자, 어떡할래?

호호호. 그렇다고
도망갈 수도 없다.
죽는 길밖엔 안 남았다구.
아무리 발버둥쳐도
네겐 승산이 없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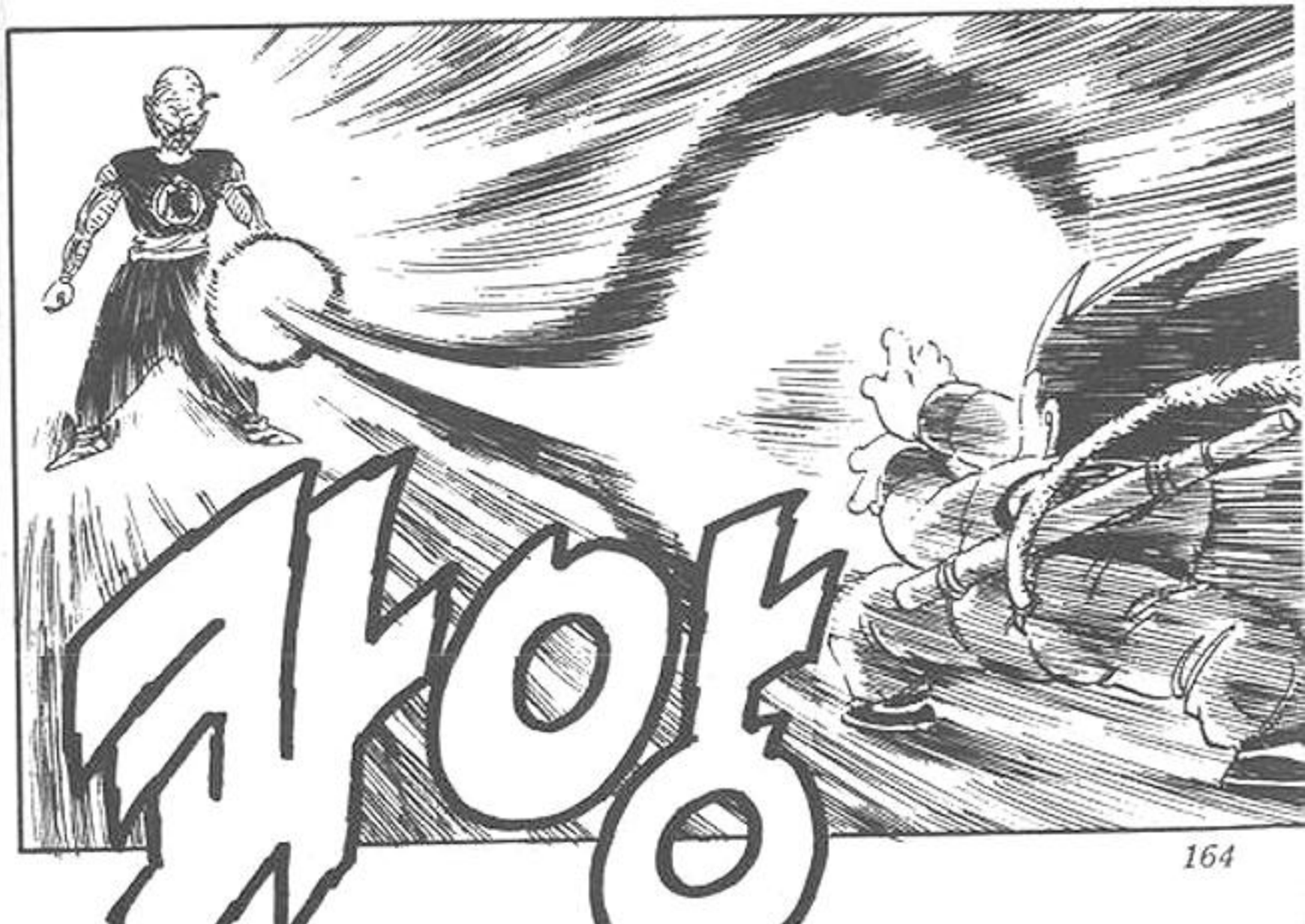
!!

에잇!!

어떻게
해줄까!?
앙!?

헤헤헷!


르….
에….
기….
네….
파!!
마봉파가 아니라구! 사람 간 떨어지게 하다니!
아냐!


HOH









다음은, 제144화 손오공 완패!!


슬슬 저승구경이나 하실까?
그럼….
魔


도… 도저히 난 이길 수 없는 걸까…!?
믿을 수가 없을 정도로 강해…!
헉
헉


난 일찍 숨길 잘 했어…!
주… 죽었다…!


네가 이걸 피할 수 있을까나?


각오는 돼있지?
제… 제길…!


엇…!
뭐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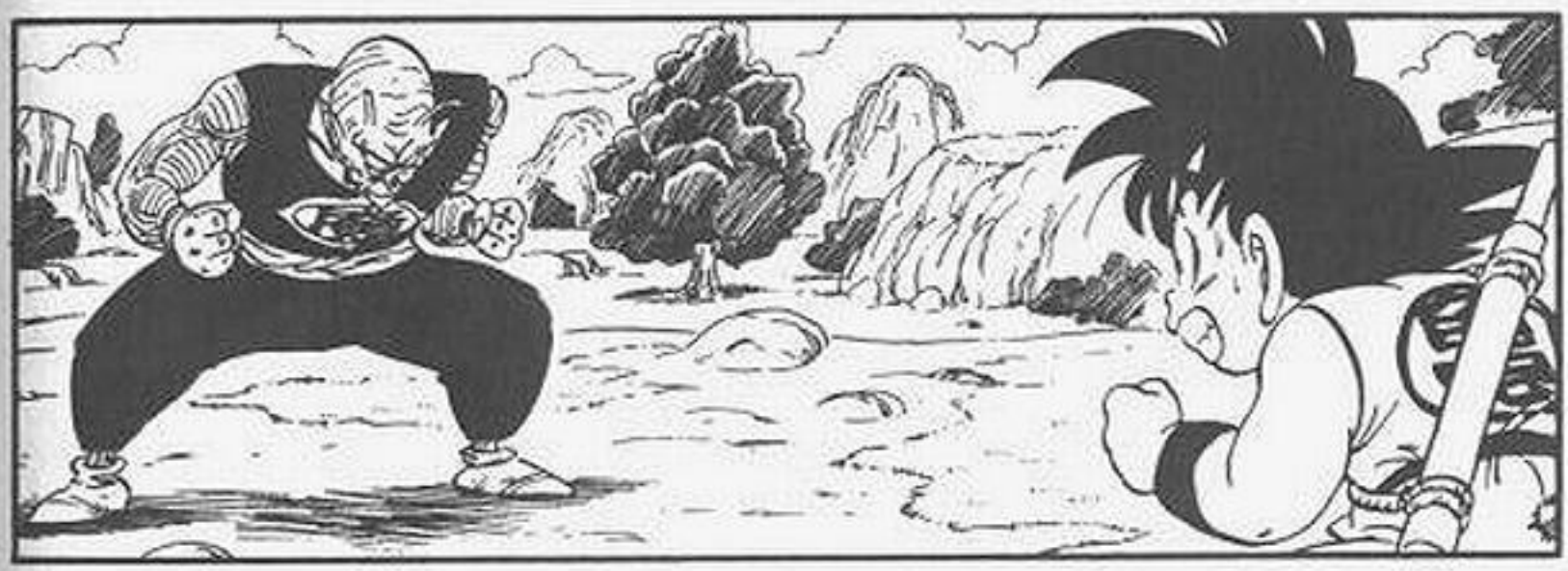



끼이이…!!


파하하…설


이…!!


나이스...




타아앗!!!




앗!!



아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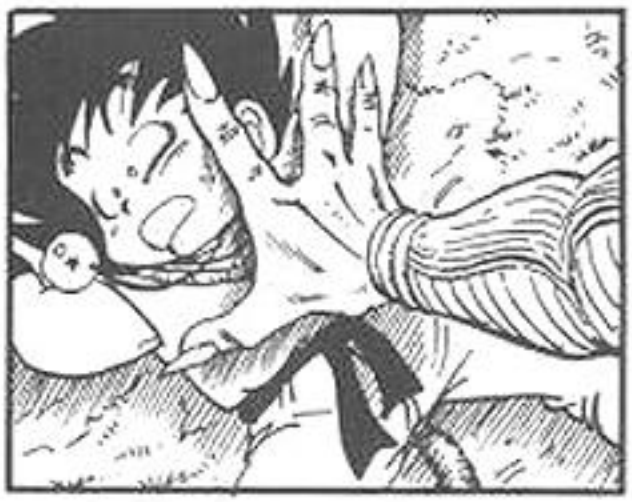



후후후….
어떠냐, 봤지?
대마왕님의
위력을.


노…
노친네가
대단해….
…저…, 정말
무시무시
하네요….


어차피
인간의 실력
수준이야
그 정도지.
크흐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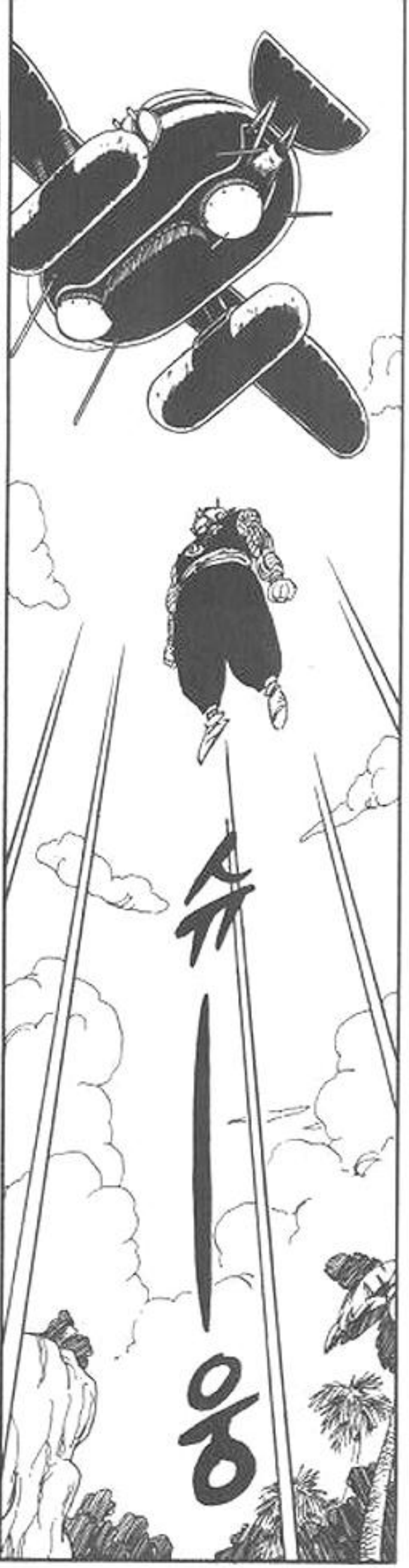

역시
죽었어….
심장이
멈췄군….




핫핫핫!


툭


타
수고
하셨습니다!


슈~웅


분명 나머지
드래곤 볼을
모으는 놈들이
있었지?
빼앗으러
가자!


이 피콜로
대마왕님이
젊은 오빠
되는 것도
시간 문제다!

저… 저기…,
젊어지면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해지겠죠…?

으하하하…!

……!

오싹…!

전 우주
최강이야.

당연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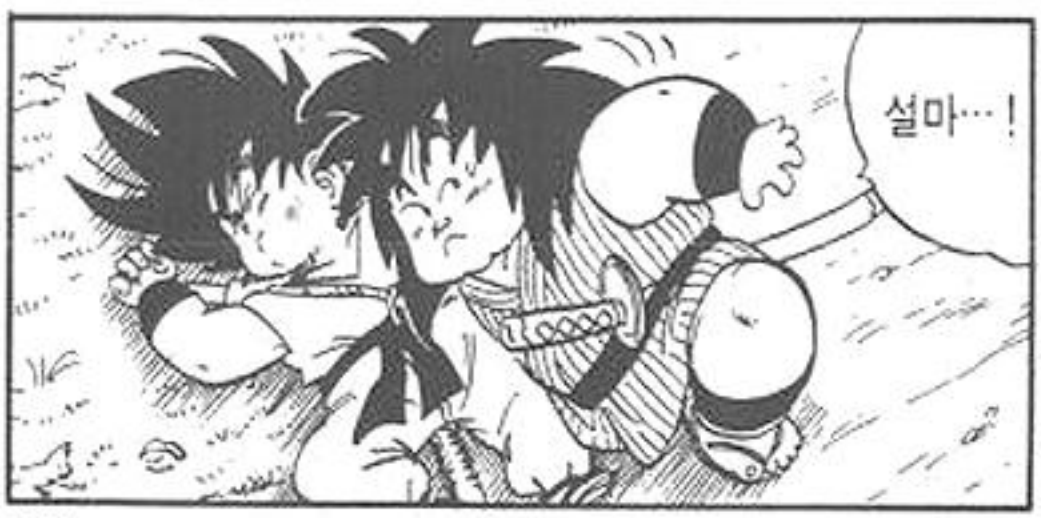
구아아앙!!!


상대가
너무
강했어….
소…,
손오공이
죽다니….


구아아앙!!!
휴…,
갔다…!


먹어도
별 맛이
없을 것
같고….
할 수 없지.
우선 산소라도
만들어 줘야겠다.


어!?


설마…!


으…!


짝짝
야, 손! 정신 차려! 얌마!
심장이 뛰기 시작했네!!
무…, 물….
콜록! 콜록! 콜록
허헉!
그래, 알았어!
두두두…


푸앗!


자, 실컷 먹어!
꿀꺽 꿀꺽


제… 제길…. 비참하게 패했어….


너도 생명력 하난 무지 질긴 놈이다…. 심장이 강철이구나. 다시 살아나다니….
콜록! 콜록! 콜록!


저 피콜로 대마왕은 괴물이야!
어쩔 수가 없어…, 방법이 없거든.

나…, 난 온 몸이 쑤셔서 잘 움직일 수가 없거든….

미… 미안하지만 장소를 가르쳐 줄 테니 좀 데려다 줘….

카린탑?

그게 원데?

저… 저기…. 카린탑이라고 아니?

그 대신 나 맛있는 거 많이 먹여준다고 약속해!

거기에 귀신 같이 솜씨 좋은 의사라도 있니? 알았어. 내가 데려다 주는 거야 쉽지.

있다, 있어!

엉?

CAPSULE

그럼 나머지 두 개 가운데 하나를 피콜로 대마왕이 갖고 있겠네….

이제 다섯 개 구나….

게… 게다가 아무래도 이쪽으로 오고 있는 것 같아….

나머지 두 개가 모여 있어….

아니, 왜 그러시죠 !?

…음!

이제 신중하게 움직여야 해….

찰깍

당연하지! 난 세상에서 죽는 게 가장 싫거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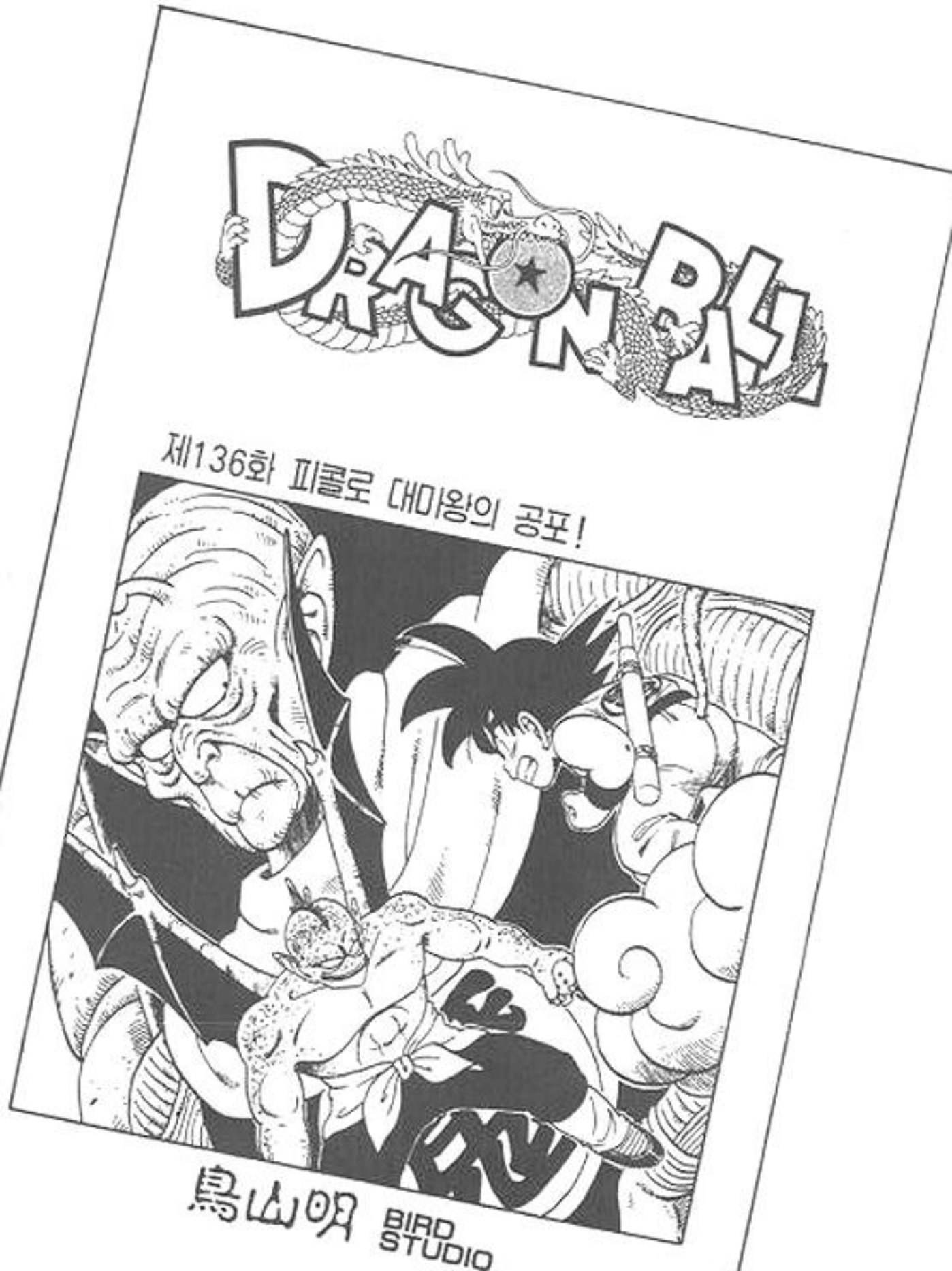
야지로베, 도… 도와줘서 고마워….

CAPSULE

피… 피콜로 대마왕이 온다… !!

표지 페이지 대특집XI

으~음, 피콜로 대마왕이란 녀석은 엄청 강하구나…!
앞으로 전개되는 이야기는 더더욱 눈을 떼기가
어려워졌어! 뭐, 이 표지 페이지 대특집이라도 보면서,
다음 권 발행을 기다려주세요!
(소년 점프에 실린 그대로라는 건 이미 알고 있겠죠!!



DRAGON BALL



제137화 부활하라, 손오공!

鳥山明 BIRD STUDIO

DRAGON BALL

제138화 구슬을 가진 묘한 녀석



鳥山明 BIRD STUDIO

DRAGON BALL

제139화 야지로베의 사냥감

鳥山明 BIRD STUDI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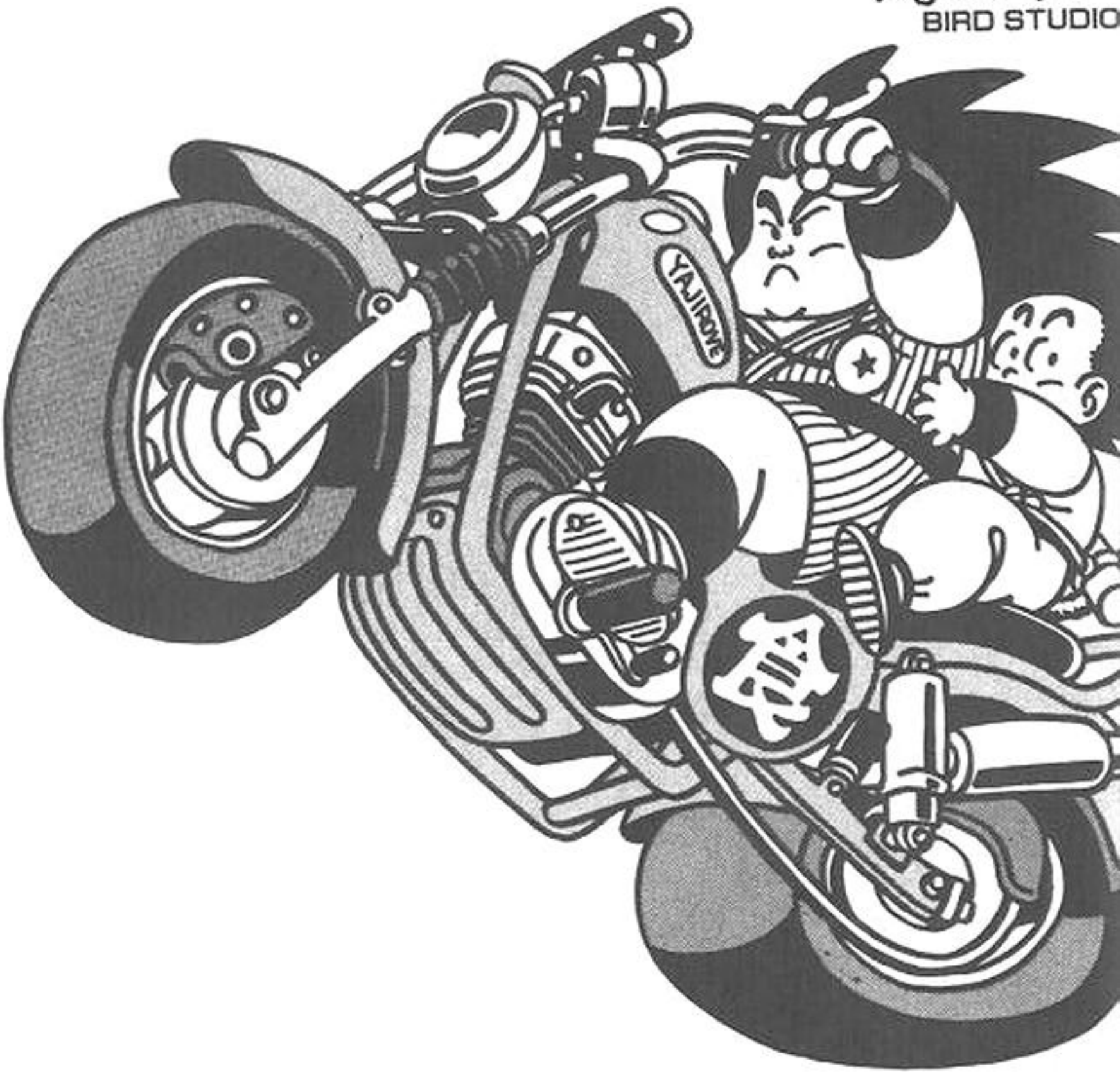


DRAGON BALL

드래곤 볼

제140화 탬버린의 습격!

鳥山明
BIRD STUDIO



DRAGON BALL

제141화
손오공의
분노 폭발!!

鳥山明
BIRD STUDIO



DRAGON BA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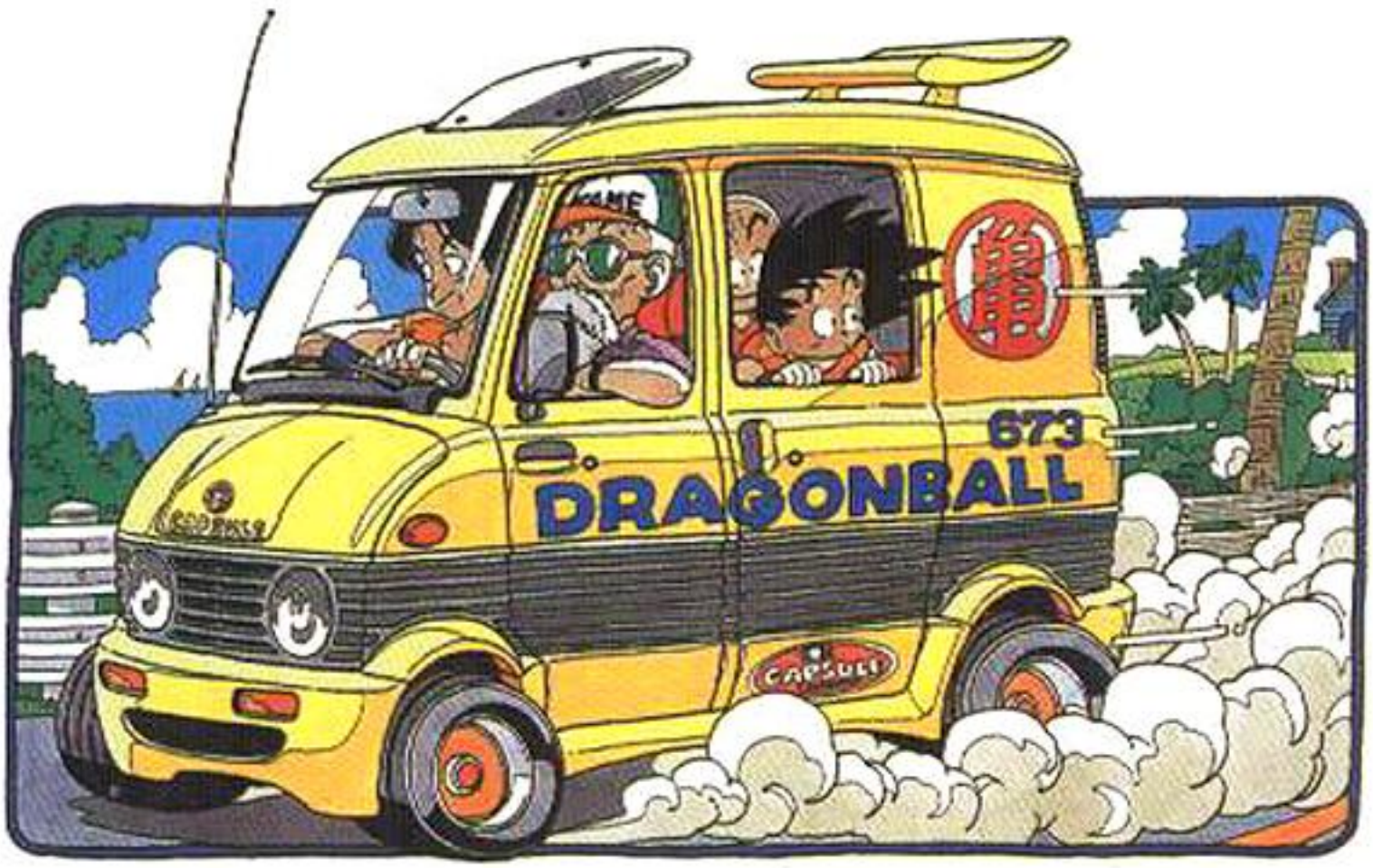
제144화 손오공 완패!!



鳥山明 BIRD STUDIO

IQ JUMP COMICS

DRAGON BALL



살아있는 만화의 전설 〈드래곤 볼〉!
무삭제 오리지널판 완벽 부활!!

scanned by raprnb